

전략연구 2016-24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송두범 · 양병찬 · 강수현

발 간 사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만나고 교사와 주민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모델이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방과 후 협동조합, 충청남도 홍성군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거산초등학교, 서울시 성미산 공동육아, 경기도 의정부시 마을교육과정, 경기도 시흥시 혁신교육지구 등과 같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례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충청남도 역시 민선5기 들어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통한 새로운 공교육 모델사업인 ‘행복 공감학교’를 시작으로, 민선6기에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새로운 학교문화로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의 공교육 정상화모델학교를 표방한 ‘행복나눔학교(혁신학교)’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충청남도과 시군자치단체, 충남도교육청이 주민참여형 교육사업으로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자율적 교육역량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충남행복 교육시범지구사업’을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등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충남행복 교육지구는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혁신 추진과 충청남도 지자체의 교육특성화 사업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사업으로 신뢰받는 공교육모델 창출과 사회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교육적 대안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주도하지 않지만, 마을이 학교요, 학교가 마을이라는 개념 하에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충청남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풀무학교와 풀무학교 전공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 마을교육, 협동조합 등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는 홍성군 홍동면의 마을교육공동체, 작은학교 살리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하여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아산시 송악면의 마을교육공동체, 농촌마을의 재생과 지역교육활성화를 통해 농촌교육공동체를 지향한 공주시 우성면 충남교육연구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공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등 교육기관의 몫이라고 당연시 되어왔던 논리에서 탈피하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마을이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보면 공교육 실천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지 않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려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 활동도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마을교육 중심의 마을만들기가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민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적 경제구조를 창출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마을이 서로 돕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자체 생산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과 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단위학교와 학부모, 마을이 중심이 되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적 지원, 학교와 학부모, 마을의 주체적인 역할 제시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충청남도에 더 많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연구가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를 수행한 송두범 박사, 양병찬 교수님, 강수현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는 충청도내에서 교육주체들인 학교, 지역사회, 주민들, 행정이 연계하여 전개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현황을 분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선행연구검토 결과 학교중심의 학습공동체, 특정지역의 학교와 지역의 협력관계와 학습에 대해 연구하여 교육공동체의 발전가능성탐구, 기관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다양한 유사사례 연구, 마을교육공동체를 평생교육적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연구는 김신일(1998)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의 교육에 대한 학교중심의 교육운동과 주민 자신들을 위한 평생학습차원에서의 교육운동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론적 배경 및 정책동향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해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학교와 마을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마을주민, 마을의 결사체들이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적 목적, 교육적 내용,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마을교육공동체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교육청 등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학교, 교육마을, 지역교육공동체, 지역사회학교, 교육생태마을 등에 대한 용어를 검토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법률, 조례 등을 검토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책동향을 충청남도, 경기도,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충청남도는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행복공감학교, 행복교육지구, 교육청 주관으로 행복나눔학교사업, 충남도교육청과 3개시(아산시, 논산시, 당진시)가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사업,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혁신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계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 꿈의 학교를 통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사례로는 교육복지형과 마을학교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복지형은 다시 도시부와 농촌부, 마을학교형은 학습마을과 마을공동체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교육이 중심 개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운동주체, 외부의 개입정도 등에서 약간의 차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외국사례로 덴마크애프터스쿨, 일본과 미국의 커뮤니티스쿨 등을 살펴본 결과 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지역사회)과 학교가 긴밀히 연대하는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점이 우리 나라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는 마을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선행연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연구라는 점, 그리고 충남의 마을단위를 사례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실태분석

마을교육공동체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이 어떤 주체가 주도하고 있는가’ 이고,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주체는 학교주도, 마을주도, 중간지원조직 주도 등 3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학교주도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학교가 주도하는 유형으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전공부, 거산초등학교 등이 대표적이며,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남행복공감학교로 선정된 20개 학교들도 이 유형에 속한다. 마을주도형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마을이 주도하는 유형으로 충청남도에는 홍성군 홍동면, 아산시 송악면 등이 대표적이다. 중간지원조직 주도형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중간지원조직이 주도하는 유형으로 충청남도에는 공주시 우성면의 충남교육연구소, 홍성군 홍동면의 햇살배움터네트워크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내용을 목적, 주체, 공간, 활동내용, 네트워크 등의 항목을 정하여 홍성군 홍동면과 아산시 송악면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주민성장과 삶의 질 향상, 주민간 소통과 관계망 확대, 교육기회 제공과 마을학습망 구축, 학습자원 공유와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학습문화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은 풀무학교로 대표되는 농촌학교와 마을간 협력적 관계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아산시 송악면은 학교와 마을이 온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에는 주민과 활동가, 교사, 농민회 등이 지역주체들의 주체적인 참여 즉, ‘각성된’ 주체들이 공동체운동에서 행하는 역할이다. 홍동면의 교육공동체 활동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참여이며, 마을과제에 대한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주체로 형성하게 된다. 마을주민이 교육대상자이고, 주민이 강사로 나서는 주민이 주민에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주체가 된다. 송악면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마을주민이다. 마을주민이 학교도서관의 사서로 참여하고, 마을교사 아카데미를 통해 마을주민이 교사역할을 하며, 마을언니들에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학습이 이루어진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논의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교육활동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홍동면과 송악면에서는 마을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마을의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마을 및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공간을 바라보면, 전통적인 학교, 도서관과 같이 제한된 장소를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적, 사회적공간이 모두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은 마을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접근에서 시작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양한 마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마을교육프로그램은 개별주민의 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여,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동면과 송악면에서는 마을이나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경험, 마을발표회 참석, 학교캠프, 공정여행 등을 통해 마을에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완결된 형태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직은 구축하기에도 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한 마을에 여러 조직이 있고, 그 조직간 다른 영역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들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조직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흥동과 송악에서는 마을내 학교와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내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조직들과 연계하여 교육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이 함께 키우는 교육공동체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다.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는 충남의 대표적인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두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목적, 주체, 공간, 활동, 네트워크라는 분석의 틀을 만들고 이를 준거로 사례지역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이 학교요, 학교가 마을이라는 이념 아래 학교와 마을이 온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학교’, ‘주민’, ‘코디네이터’가 주도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마을내 공동체의 리더와 활동가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간은 전통적인 학교와 같이 제한적 장소를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적, 사회적공간이 모두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시설과 장소의 개념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은 마을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학습동아리 참여, 마을발표회 참여, 마을내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경험, 마을협동조합 조합원 참여, 마을내에서의 배움과 나눔의 실천, 공정여행 참여, 마을문화예술제참여 등 마을에서 행해지는 주민교육과 마을의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의 네트워크는 학교와 마을, 아이들과 마을주민, 단체, 교육활동 간 지속적이고 자율적이며 느슨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느슨한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보다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소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구된다.

충남지역 마을교육공동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충남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도청이나 충청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서는 활동주체(학교주도, 마을주도, 중간지원조직주도),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 공간, 활동, 네트워크에 대한 보다 정교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일반자치의 대상인 마을과 교육자치의 대상인 학교가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충청도 차원에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행·재정적 협력을 위한 교육협력조례, 충청도와 시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및 강화가 요구된다. 우선 충청남도에서는 ‘(가칭)교육협력’ 과와 같은 과 단위 부서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존 교육협력 관련 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교육을 위한 협의회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협력,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시책들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회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충청도와 도교육청간에 교육협력관을 상호과건 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교육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비법정전입금 확충 등의 업무를 협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협력관을 상호과건 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충청도와 도교육청 공동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청남도과 도교육청에서는 충청도 차원의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정립 및 실천사례의 체계화, 교육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교는 마을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운영, 공동체교육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 마을은 교육적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교교사, 마을지도자, 종교인,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회적경제조직 등 마을내 활동가들과 같은 마을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장을 지원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열 번째, 학교와 마을간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마을의 과제와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을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 즉,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모임구성, 학교공간을 학생과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열한번째, 마을과 학교간 작은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과 학교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된다.

열두번째,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충청남도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시군의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핵심사업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주체 역할과 역량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주민(활동가), 행정가(자치단체 및 교육청) 이들 각각의 역할과 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3
3. 연구의 기대효과	3
4. 연구추진과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동향	
제1절 마을교육공동체의 등장배경 및 개념정의	9
1. 마을교육공동체의 확산	9
2.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정의	17
제2절 마을교육공동체 정책동향	23
1. 충청남도 정책동향	23
2. 경기도 사례 : 마을교육공동체	40
3. 서울시 사례 : 마을학교, 마을결합형학교	42
4. 광주광역시 사례	47
제3절 마을교육공동체 국외 사례	49
1. 일본커뮤니티 스쿨(학교지역지원본부)	49
2. 미국 커뮤니티 스쿨	52
제4절 소결	55
제3장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실태분석	57
제1절 분석의 틀	57
제2절 활동주체에 따른 충남마을교육공동체 분석	59

1. 학교주도형	59
2. 마을주도형	63
3.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65
제3절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사례분석	69
1. 송악마을교육공동체	69
2. 홍동마을교육공동체	91
제4절 소결	116
제4장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118
제1절 마을교육공동체 분석결과	118
1.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	118
2.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	120
3.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간	121
4.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	123
5. 마을교육공동체의 네트워크	124
제2절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제	126
1.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126
2.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	129
3.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및 강화	132
4. 지방교육을 위한 협의회 운영 활성화	135
5. 충남도-교육청 공동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136
6. 학교와 마을의 교육연계 및 교류활성화	138
7.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와 협력방안 모색	140
8.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주체 역할과 역량 제안	14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3
제1절 결론	143
제2절 정책제언	145
참고문헌	147
부 록	150

표 목 차

<표1-1> 연구추진과정	4
<표 2-1> 미국의 세 가지 학교 특징	12
<표 2-2> 마을학교 개념 정의	13
<표 2-3> 마을학교에 대한 기본관점의 전환	14
<표 2-4> 행복공감학교 지원현황	23
<표 2-5> 충남 행복나눔학교 운영현황	25
<표 2-6>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공통필수사업)	28
<표 2-7>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지구별특성화사업 예시)	28
<표 2-8> 아산시 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	30
<표 2-9> 논산시 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	31
<표 2-10> 당진시 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	32
<표 2-11> 발굴사업 목록	33
<표 2-12> 2017년 교육협력사업 및 소요예산	38
<표 2-13> 2017년 교육협력사업의 주요내용	39
<표 2-14>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별 구조	42
<표 3-1> 마을교육공동체 분석유형	58
<표 3-2> 마을교육공동체의 분석틀	58
<표 3-3> 송악마을 교육관련 조직 및 주요행사	69
<표 3-4> 송남초등학교 교육방향	71
<표 3-5> 거산초등학교 교육내용	72
<표 3-6> 송남초등학교 솔향글누리 도서관 활동 소개	75
<표 3-7>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76
<표 3-8> 도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77
<표 3-9> 농어촌희망교육공동체 사업(2013년)	78
<표 3-10> 마을에서 놀다. 마을공정여행	79

<표 3-11> 송악마을골목예술제와 송악달장	80
<표 3-12> 마을이 학교다. 마을언니에게 배우자 등 마을문화예술교육	80
<표 3-13> 흥동마을 교육관련 조직 및 주요행사	92
<표 3-14> 마실이학교 9기 세부프로그램	109
<표 3-15> 마실이학교 9기 견학단체 명단	110
<표 4-1>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개념	120
<표 4-2>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129
<표 4-3> 서울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0
<표 4-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30
<표 4-5>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32
<표 4-6> 경기도 교육협력국 수행업무	133
<표 4-7> 경기도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134
<표 4-8>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예시	138
<표 4-9> 홍성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141
<표 4-10>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별 역할과 역량	142

그림 목 차

[그림 2-1] 행복나눔학교 운영모델	24
[그림 2-2] 충남 행복나눔학교 네트워크	25
[그림 2-3]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비전	27
[그림 2-4] 경기도교육청(2014). 마을교육공동체 내 꿈의 학교의 위상	40
[그림 2-5] 경기 꿈의학교 추진체계도	41
[그림 2-6]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성루시 마을학교 지원정책 변천사	43
[그림 2-7] 마을교육의 지향성	44
[그림 2-8]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마을결합형학교 추진체계	45
[그림 2-9] 일본 학교자원지역본부의 운영	50
[그림 2-10] 학교와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체계	51
[그림 3-1] 마을 곳곳이 배움터 흥동	64
[그림 3-2] 햇살배움터(주말방과후 학교)	68
[그림 3-3]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68
[그림 4-1] 충남도-교육청간 마을교육공동체 공동추진 업무협약	127
[그림 4-2]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정리(경기도)	13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육아나 교육이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만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모 뿐 아니라, 친인척, 마을주민 등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해왔던 마을의 과제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붕괴됨으로써 마을교육보다는 학교교육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분업화되고 단순화된 논리가 지배해왔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뿐 상호작용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일차적인 교육의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던 부모들이 공교육제도의 출범과 함께 이를 국가의 역할과 책임으로 이양함에 따른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있고, 둘째,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바쁜 일상의 삶들이 공동체적인 사회로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데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셋째, 근대합리주의에 기초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교육에서의 삶과 삶의 통합 및 공동체적인 가르침과 배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¹⁾ 이러한 근대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현대학교들은 교육전문성에 입각하여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삶과 삶이 통합되도록 교육하는데 있어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교육이라는 행위가 어떤 한 체제나 기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총체에서

1) 박제명(2014).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에 관한 사례연구: 하늬교육마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발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외적인 교육의 장소 및 인력풀의 제공을 넘어서 교육철학과 문화를 공유하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연합을 통해 교육공동체로서 재탄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삶과 삶이 조화롭게 영위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는 지역사회를 필요로 하고 지역사회 또한 학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가 사회에서 유리된 섬으로 존재해서는 학교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존재가치를 실현할 수도 없다. 학교는 우리가 거주하는 마을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하는 교육을 구현해야 진정한 교육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다.

공교육은 온 마을의 관심과 협력을 통한 온전한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힘이 없으면 마을도 공동체도 와해되고,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지는 운명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학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을 함께 기르려는 공동체적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역공동체는 경제적 욕구 이외에도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욕구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는 교육공동체적 성격을 함께 지니는 사례가 많다.

이 연구는 학교는 마을이고, 마을이 학교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야 교육의 본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였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충남도내에서 교육주체들인 학교, 지역사회, 주민들, 행정이 연계하여 전개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현황을 분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고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국내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충남지역 마을교육공동체를 유형화하고 실천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교육청, 마을차원의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첫째,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정립을 시도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대한 논의와 마을교육공동체와 유사용어인 마을학교, 교육마을, 지역교육공동체, 지역사회학교, 교육생태마을 등을 함께 살펴본다.

둘째, 마을교육과 관련한 제도 및 국내외 마을교육공동체 정책동향을 분석할 것이다. 교육관련 법 및 조례, 서울과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경기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사례, 세종시의 사례, 일본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충청남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을 활동주체별로 유형화해보고, 충남도내 대표적인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홍동마을과 송악마을을 사례로 하여 분석할 것이다.

넷째, 충청남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코자 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마을주민 및 마을단체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이다. 이론, 개념정립, 국내외 정책동향을 위해 국내외 저서와 논문을 분석할 예정이다.

둘째, 면접 및 사례연구이다. 연구사례로 선정된 홍동마을과 송악마을 교육공동체를 현지 방문하여 관찰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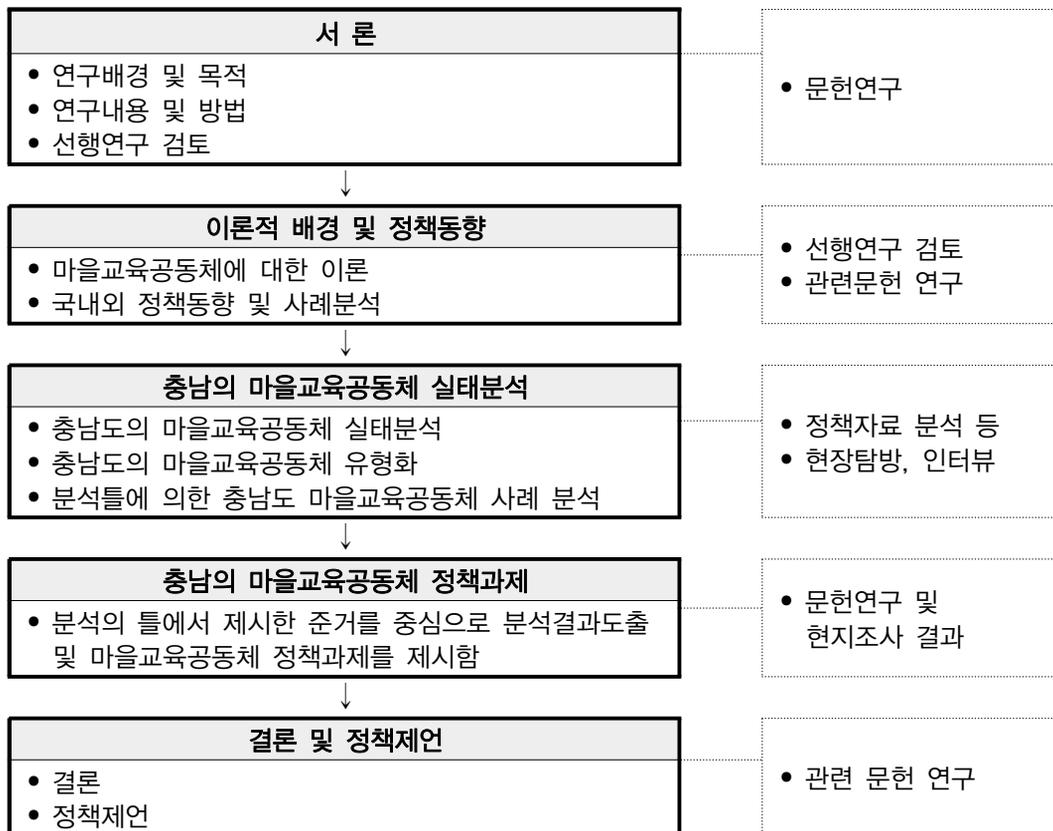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교육영역을 자치단체 정책영역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논의를 마을만들기의 아젠다로 포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학교와 마을이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마을의 교육력 재생과 마을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공교육이 학교의 몫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공동체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연구추진과정



〈표1-1〉 연구추진과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참여 주체, 역할,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고정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교육공동체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의미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 접근법에서도 학교 교육 중심의 교육공동체 관련 연구와 평생교육에서의 지역교육공동체 연구, 그리고 최근의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등으로 나누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라 하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합되고,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통해 결속되는 개인들의 집합’을 말한다(노종희, 1998). 다시 말해서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인간의 사회(society)와 달리 공동체(communitiy)는 상호 신뢰와 헌신에 기초하여 문화적, 정서적, 가치적, 규범적, 목적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인간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접근을 교육공동체에 적용하여 정의내리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종태(1999)는 교육공동체를 ‘교육에 대한 공유된 가치와 신념으로 구성된 집단이 그들의 가치와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감정을 통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사회적 응집력으로 협동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엄기형(2003)의 경우 교육공동체를 ‘교육 현장을 매개로 결합하여 교육주체가 형성되는 관계망의 총체로서 역사적·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지는 교육현상의 외연’으로 이해한다.

이들 관점과 연결되어 서지오바니(Sergiovanni, 1994) 또한 학교가 공식 조직(formal organization)에서 공동체(communitiy)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가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조직(게젤샤프트)이 아니라 공동체(게마인샤프트)로서 가치, 감정,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신현석(2006)은 교육공동체를 ‘학교공동체, 지역사회공동체, 교육이해공동체’ 세 가지 관점으로 제시한다. ‘학교공동체’는 학교의 구성원인 교육행정가, 교사, 직원, 학생 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는 교육공동체의 단위로서 학교를 이해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공동체’는 학교의 교육적 외연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포괄하는 교육공동체를 말하며, ‘교육이해공동체’는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 정부기관,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각

구성주체들이 맡아야 할 교육적 기능을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서로 연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 평생교육학 분야에서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의 맥락을 살펴보면 초창기 서울대 농대 농촌사회교육학과 정지웅 교수 연구실에서 지역개발과 사회교육실천에 대한 참여 연구법을 실제 적용한 연구들이 오랜 연구 역사를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사회교육적 실천을 연구한 경향도 있었다.²⁾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연구진들의 학습공동체 이론적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주로 개념과 역사 연구 중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³⁾ 최근에는 실천 기반한 사례 연구들이 주를 이루면서 공동체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과정이나 지역 교육네트워크의 진화 과정, 주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경험의 분석, 주민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확장된 학습과정, 주민의 임파워먼트(주체형성) 과정, 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운동과 체제의 정합성 혹은 모순 등에 주목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라는 개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연구 방향성에 있어서 몇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 학교중심의 학습공동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연구로 김성길(2004)⁴⁾, 정현경(2012)⁵⁾ 등의 연구가 있다. 특정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관계와 학습에 대해 연구하여 교육공동체의 발전가능성을 탐구한 연구로는 양병찬(2008)⁶⁾, 박형충(2009)⁷⁾, 강영택(2012),⁸⁾ 박제명(2014)⁹⁾, 이태문(2014)¹⁰⁾, 김용련(2015)¹¹⁾ 등이 있다. 자치단체

-
- 2) 정지웅과 참여연구회원(1994). 「참여연구법과 그 사례」. 서울대출판부. / 김남선, 김선효, 윤준상 등 많은 연구자들의 농촌을 연구지로 선정하고 활동가로 거주하면서 참여 연구 논문 집필
 - 3) 이지혜(1994). 학습공동체를 통한 학습권의 실현. 사회교육학연구 19권; 정민승(1997). ‘학습공동체’ 개념 구안을 위한 시론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함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연구.3(1); 정민승(1999). 학습집단의 두 경향 : 학습조직과 학습공동체. 평생교육연구5(1); 윤창국(2001). 학습공동체 논의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이지혜(2001). 학습공동체 운동의 의미와 전략. 한국YMCA연맹.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학습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실험들; 오혁진(2005). 학습공동체의 다차원적 성격과 구현 원리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회. 11(1); 오혁진(2005).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김문당; 오혁진(2007). 일제하 이상촌 운동을 통해 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실천 원리. 평생교육학연구. 13(2); 박상옥(2010). 지역사회와 학습의 관계 탐색-지역사회형성 및 발전과정으로서 학습활동. 평생교육학연구. 16(2) 등
 - 4) 김성길(2004). 배움공동체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7(2).
 - 5) 정현경(2012). 학습공동체운영사례연구: 반딧불이문화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대학원.
 - 6) 양병찬(2008). 농촌학교와 지역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충남 홍성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3).
 - 7) 박형충(2009). 학교와 지역요인 및 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이 학교평생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 8) 강영택(2012).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연구: 홍성군 홍동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4.
 - 9) 박제명(2014).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에 관한 사례연구: 하니교육마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10) 이태문(2014). 대안학교가 귀촌형 공동체마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논문집. 163)
 - 11) 김용련(2015). 지역사회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33(2)

(교육청) 등 기관이 중심이 되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해가는 연구로 박경민(2015)¹²⁾ 등이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정립 및 다양한 유형의 사례 연구로 서용선(2015)¹³⁾ 등의 연구가 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차원의 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를 연구한 양병찬(2014)¹⁴⁾, 마을학교 정체성을 연구한 김종선·이희수(2015)¹⁵⁾ 등이 있다.

첫째, 학교중심의 학습공동체와 관련한 연구로 김성길(2004)은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배움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 기존의 학습과 구별되는 배움의 의미를 살펴보고, 배움공동체 원형과 구성형태를 짚어보았으며, 학교기관과 배움공동체의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배움공동체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정현경(2012)은 학습공동체의 구체적인 사례인 반딧불이문화학교를 통해 학습공동체의 특징 및 학습의 과정이 구성원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특정지역의 학교와 지역의 협력관계와 학습에 대해 연구하여 교육공동체의 발전가능성을 탐구한 연구로 양병찬(2008)은 학교와 지역간 협력 사례로 충남 홍동지역 풀무교육공동체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복합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농촌이 지역주체들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학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박제명(2014)은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하늬교육마을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로서, 하늬교육마을 형성의 배경과 과정을 조사분석하고, 교육공동체로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과 학교의 다양한 활동과 삶의 특징적 현상들을 밝혀, 하늬교육마을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도출코자 하였다.

셋째, 박경민(2015)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 필요한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이 학교만이 아니라 통념을 깨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이 중심이 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서용선 외(2015)는 마을교육개념정립,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국내외 이론 검토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구축과 운영을 위한 로드맵 제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12) 박경민(2015).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 노원구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13) 서용선 외(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정립과 정책방향 수립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14) 양병찬(2014). 지자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 :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 제2권 제1호.

15) 김종선·이희수(2015). 개념지도에 근거한 마을학교 정체성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Vol21. No2.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적 지원과 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사례 조사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유형을 학교중심 유형, 마을중심 유형(학부모포함), 센터중심유형(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포함)으로 구분하여 13개 사례의 특성(재원, 진행, 리더), 방법론(계기, 프로그램), 성과,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마을교육공동체를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양병찬(2014)은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채용되고 있는 ‘마을학교’라는 교육활동을 주민 주체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마을학교’ 개념의 수용과정과 실천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과 함께 구상되어 실행되었던 ‘마을학교’라는 교육장치가 주민의 주체역량 개발과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마을교육공동체는 배움공동체, 학습공동체, 지역사회기반 교육공동체, 지역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학습 등의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학교교육에서 점차 평생교육까지를 포괄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마을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선행연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연구라는 점, 그리고 충남의 마을을 사례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동향

제1절 마을교육공동체의 등장배경 및 개념정의

1. 마을교육공동체의 확산

1) 마을교육공동체의 등장 배경

최근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운동과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사회의 관심과 추동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지식기반사회를 비롯하여 저출산고령화, 위험사회(U. Beck), 경제적 격차 심화, 도농간의 격차 등의 근본적인 사회변화에 따라 기존의 근대학교 모형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알파고 파문에서 처럼 입시중심의 학교 모델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의 양성이 불가능하여 학문세계, 직업세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핵심 역량의 형성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는 기존 학교와 학력 만능의 교육은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학교교육 내적으로는 교과 통합, 체험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입시 위주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에 기초한 교육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누가 우리의 교육을 결정하는가? 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를 아니 할 수 없다.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 정부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지역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식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근대 학교, 즉 대중(대량)교육, 지육 중심, 경쟁 중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학교 교육의 모순에 대한 새로운 교육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낡은 경쟁교육체제를 극복하기에는 새로운 교육 지원 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교육과의 협력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구호가 이 곳 저 곳에서 외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적으로는 교육청과 함께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며 마을 주민들과 교사들의 협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모순 극복이라는 교육 내적인 배경과 함께 최근의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의 확산도 또 하나의 배경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 정부의 지원 정책들에서 시작되었다. 즉, 행정안전부(일본의 내무성)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나 희망마을만들기사업(빈곤 지역 중심 지원)을 비롯하여 문화관광부의 생활문화 공동체사업, 농림부의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사업, 국토해양부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등에서 공모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렇게 최근에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 참여에서 벗어나 지방 정부들이 앞 다투어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지역을 살펴 보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경기도의 ‘행복마을만들기,’ 충청남도의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부산시의 ‘커뮤니티 뉴딜’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등을 들 수 있다. 매스컴에서 이를 ‘마을만들기 열풍’ (경향신문, 2013.1.28), ‘전국에 부는 공동체 바람’ (한겨레신문, 2013.1.20)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운동사업의 열풍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유사 개념이라는 ‘마을학교’ 개념이 도입되면서 “마을만들기 흐름 속에 마을교육공동체가 탄생했다” (서용선, 2015:39)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움직임은 그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공동체(이종태, 1999; 신혁석, 2006; 이진철, 2012)를 지역과 함께 해야 한다는 흐름 속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책(서용선 외, 2015: 39)에서 “우리가 그리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이라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지향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제도권 교육 중심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학교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속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학교를 위한 마을교육 자원의 동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연계 등 학교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2) 마을교육공동체의 관련 용어

(1) 지역사회학교

지역사회학교란 그 용어 자체가 표현하듯이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세워지는 학교이다. 즉, 지역사회학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으로 학교가 소속해 있는 지역의 발달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생활중심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지역사회교육 역할에 대해서 올센(Olsen, 1973: 26)은 학교를 전통적 학교(Traditional School), 진보적 학교(Progressive School),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나누었다. 첫 번째 전통적 학교는 학교가 지역적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한다. 두 번째 모델은 전통적인 학교와는 달리, 1930년대 새로운 진보주의 사조가 등장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는 어른들의 권위와 교과서를 지양하고 아동의 흥미와 생활을 중심으로 교육을 생각하였다. 진보적 학교는 지역의 모형을 되어야 하며, 학교는 지역의 견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아동이 성숙하여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라는 소규모 사회 속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방법과 생활태도를 배워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모형으로서 지역사회학교는 진보주의교육 자체의 결함이 지적되면서 출발하였는데,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흥미와 자유, 개인적 성공과 경쟁에 치우치게 됨으로서 교육에 필요한 사회적 관심, 사회 질서, 협동과 봉사 등이 소홀히 되었다는 것이다. 그 비판자들 중에는 진보주의교육 운동의 지도자인 킬패트릭(Kilpatrick)과 카운츠(Counts) 그리고 지역사회학교 건설의 선구자인 쿡(Cook)과 올센(Olsen)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 카운츠(Counts)는 진보주의교육이 아동 개인의 흥미와 능력에만 강조를 두는 나머지 사회적 지침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을 통해 미국에서 대공황기를 전후한 시기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질서와 책임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중심학교 운동이 등장하였다. 지역사회를 학습의 장으로 보고, 학교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장소인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학교는 지역의 개선을 위한 기관으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학생은 성인이든 아동이든 간에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사회학교란 학교와 가

정과 사회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로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우며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이 동시에 주인이 되는 학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생활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학교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¹⁶⁾

다음 <표 2-1>은 전통적 학교, 진보적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학교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지역사회학교의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학교 개방과 학교와 지역 연계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표 2-1> 미국의 세 가지 학교 특징

구 분	전통적 학교	진보적 학교	지역사회학교
기본적인 방향	교과서중심	아동중심	지역사회중심
아동관	모든 아동은 똑같다.	개인차를 강조	개인차는 사회적 참여와 직접 관계가 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악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도 선도 아니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점적 동기	훈육	개인적 성공	집단적 성공
교육방법	암기, 교과서 사용, 사실과 기술 습득	자발적이고 개별적 연구문제 해결	집단책임, 집단설계,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엄격한 교육과정 훈육적인 과목	아동의 흥미를 중심으로 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지역사회의 문제와 과정을 중심으로 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사회적 활동	사회적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권위로 접근	장래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생 활경험	지역사회활동에 직접 참여시키고 훈련시킨다.
사회질서	현존하는 사회질서 속에 아 동을 부합시킨다. 현존상태를 유지	보다 민주적인 사회 질서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

자료 : W. Brookover(1975). The Sociology of Education. (Dorsey Press). p. 364.

(2) 마을학교

‘마을학교’ 라는 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흔히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마을의 학교’ 라는 의미로 마을학교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용어이다. 이는 최근 마을만들기

16) 김향식·최은수(2009). 지역사회학교의 평생교육실천적 함의 : 지역사회 학교의 평생교육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제5권 제1호.

사업이나 평생학습마을 사업 등에서 지역의 독자적인 교육 공유공간을 지칭하는데 친근하게 사용되고 있다. ‘마을학교’ 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마을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마을학교에 대한 생각을 토대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선·이희수(2015)에 따르면, 마을학교는 주민 스스로 다양한 유무형의 마을자원(주민, 공간, 환경, 역사, 언어, 문화, 유대감, 재정지원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심점이다. 또한 마을학교는 마을의 주민을 키워내고 주민을 발견하고 주민들 간의 뒤섞임을 만들어내며 마을공동체를 작동시키는 매체가 된다. 그래서 마을학교의 경험은 마을을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마을력(마을역량)을 만들어내는 기능성의 보고라고 본다.

〈표 2-2〉 마을학교 개념 정의

운영사례	마을학교 개념 정의
마포구 성미산 마을학교	마을학교란 교육활동의 학교건물과 학교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한정되지 않고, 마을의 여러 공간이 교실이고 학습장이며,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사건과 활동이 학습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마을의 주민이 교사 또는 멘토 등 교육적 지원자로 참여한다는 의미이다.(유창복, 2011. 나의 마을살이 10년:이제는 마을하자)
시흥시 참이슬 평생학습마을학교	마을학교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을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 사업
남양주 마을학습관 학습등대	학습등대란 1,2,3평생학습인프라중 기초단위로서 주민이 사는 가장 가까운 곳 10분 이내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주민이 마을단위(자연부락, 아파트)로 운영하는 마을학습관을 말한다.
노원구마을학교	마을학교란 문화예술체육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단체, 기관 등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경기도 골든트라이앵글 학습마을 프로젝트	주민이 평생학습 참여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및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학습마을로 일-학습복지-문화가 연결되는 마을 평생학습 생태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마을학교란 공동체성 회복 및 시민력 향상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학습공동체

출처: 김종선·이희수. 2015. 개념지도에 근거한 마을학교 정체성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Vol.21, No2., 78.

양병찬(2014)은 ‘마을학교’ 라는 개념(‘교육장치’ 라고 표현했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중의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마을일꾼 양성과정이라는 목적지향적 의미로부터 마을 아동교육에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의 교육시스템이라는 지역자원의 학습네트워크적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지역을 배우고 익히는 사회적 실천 학습과 활동의 공유 등 성인의 사회적 학습으로서의 범위까지 계속 새롭게 개념화되고 사용 주체에 따라 복합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종선·이희수(2015)는 서울자치구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을학교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마을학교의 개념과 정체성을 주체, 공간, 목적, 활동(또는 사업)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마을학교는 학습을 통한 주체의 성장,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 마을활동의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마을공동체라는 마을학교 운영의 목적을 이루어간다고 보았다.

2015년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를 수행한 서울시(2015)는 다음과 같이 마을학교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마을학교는 “주민 스스로 일상적으로 배우고 돌봄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이며, 좁게 보면 “일상으로 확장된 학교”로 정의 될 수 있다. 마을학교는 유형의 공간이나 행정시스템이 아니라, 느슨한 연대이며 사회문화적 관계망의 성격을 가진다. 마을학교는 삶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생태환경, 경제, 문화(주민활동) 등과 함께 일상의 영역이다. 마을학교는 배움에 대한 개념은 물론, 일상과 관계 맺기를 배움으로써 실제적 삶에 다가가는 공동체이다.

〈표 2-3〉 마을학교에 대한 기본관점의 전환

구 분	기존개념	전환개념
학 습	평가가능한 정규과목	정규과목 이외의 마을살이 포함
학 생	학교에 소속된 학습자 학교에서 학습	배움이 가능한 모든 대상 학교를 포함한 마을에서 상호배움
교육형태	문제아동은 교육복지사업에서 지원, 해결 학교 후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에서 관 리됨	마을에서 돌봄 정규수업 연계 및 수업외 마을에서 마을살이를 배움
교육자	자격이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	교사와 주민이 다양한 교사역할 수행
교실	학교시설속에 존재	학교를 포함, 마을이 교실
교과서	국정, 검정, 인정교과서 사용	교과연계 및 교과 외 수업을 위해 교사와 주민이 만들
수 업	규정된 교과와 시수 진행	정규수업 및 창의재량수업, 혁신학교 제도 내 역량에 따라 자율 기획하여 진행
학부모	학교운영위, 학부모회를 통한 참여	학교운영위 이외 마을학교 내 주민모임, 주민교사 등 교육주체화
마 을	학교주변의 거주지와 상가	학교와 순환하는 관계의 범위에 있는 공동체 단위
주 민	마을 거주 주민을 의미함	학교교사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을 주민으로 확장

자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6). 여섯 갈래의 마을학교로 가는 길. 20.

한편, 조례에 나타난 마을학교의 법률적 개념을 살펴보면, 마을학교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위한 하위사업으로 해석된다(서울시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또한 마을학교란 문화, 예술, 체육, 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단체, 기관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제2조).

이처럼 마을학교의 개념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마을학교는 주민이 마을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교육과 마을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주민학습과 교류, 협력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학교’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마을

박제명(2014)은 기독교 사상의 대안학교인 하늬교육마을(가칭)을 중심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해 교육마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공동체 관점에서 교육마을의 개념을 살펴보면, 교육과 공동체라는 두 가지 ‘핵심가치’ 를 가지고 강한 연대의식 속에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교육공동체로서의 마을을 의미하며, 이는 ‘마을’ 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실현되고 기능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학교중심의 교육공동체와 비교되는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교육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유기적으로 통합된 ‘교육마을’ 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된 기능을 수행할 학교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고, 배움의 장이 학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즉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되어 삶과 삶의 통합적인 배움과 실천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을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마을을 새로운 교육공동체의 모델로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관계 그 이상을 추구하는 융합된 체제라 할 수 있다.

한편, 교육마을이라는 개념과 함께 교육생태마을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이태문(2014)이 산청간디중학교와 갈천마을을 대상으로 대안학교와 귀촌형 공동체마을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제시한 개념이다. 교육생태마을은 공식화 된 용어가 아닌 교육과 생태마을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생태마을이란 공동체마을 건립의 다양한 방법론 중 하나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적 공동체 마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생태마을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학교가 마을의 중심점이 되고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어 학교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마을의 정신이 된다. 둘째, 학교의 다양한 생산, 소비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므로 마을의 수입원을 다양한 아이টে으로 조성할 수 있어 학교의 안정적 운영에도 큰 힘이 되어 서로 상생이 가능하다. 셋째, 마을과 학교가 공생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생태적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문화는 그 마을이 위치한 지역, 자치단체의 특별한 성격이 되어 그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마을은 공동체를 둘러싼 교육, 생태, 문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간다. 교육생태마을은 박제명(2014)의 교육마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태마을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동체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까지 고려한 점이 교육마을과 차이라고 할 수 있다(박경민, 2015).

(4) 지역교육공동체

지역교육공동체란 공동체와 교육학습이 융합된 교육공동체(learning community)를 의미한다(양병찬, 2008). 양병찬(2008)은 충남 홍동면에 위치한 풀무학교와 이를 둘러싼 교육공동체 사례를 연구하면서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였다. 그가 지역교육공동체 문제를 고민한 이유로 국가주도의 거시적, 획일적 정책중심의 방법론으로는 마을단위로 다극화된 농촌지역발전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농촌문제와 농촌학교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고, 지역 내 모든 교육주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만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문제의 해법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통성과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서 민주성, 상향성, 포괄성, 참여성, 현장 적합성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합해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지역교육공동체라는 논리는 ‘지역’ 이라는 용어에 대신해 작은 지역과 밀도 있는 사회적 관계를 내포한 한국적 뉘앙스의 ‘마을’ 로 대체해 넣어서 오늘날 사용되고 있다.

2.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정의

1)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공동체와 교육공동체 사이에 중첩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1) 마을공동체

마을은 자족적 공동체로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자기조직화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곧 마을은 학습, 네트워크, 상호헌신 등이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마을 공동체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형성·유지된다는 점에서 학습기제가 배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습이 개인 차원의 인지적 변화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차원의 공동체학습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였다. 공동체학습의 부각은 공동체적인 삶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마을공동체에서 부각되는 공동체의 논의는 근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도시화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자유주의의 확대는 전통적 가치의 붕괴와 인간관계 분절화를 초래하면서 인간 삶에 여러 문제들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공동체는 자유주의가 강조된 사회에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면서 현대사회에 부각되었다.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역적 삶의 질 향상에 있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성숙한 민주시민을 위한 훈련과 학습의 제도화를 통한 공동체적 삶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김영정, 2008). 이러한 목표 하에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공동체의 해체를 조장하는 공간적 특성을 극복하고자 하며 지역이 담고 있는 현안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민주적 절차의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학습의 제도화를 위한 공유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다. 바로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상호작용과 소통을 하며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마을공동체는 공동체의식과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특성이 나타나며

소통의 과정으로 학습이 배태되어 있다(이윤진, 2015).

학습이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며 학습을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김신일, 2009). 학습이 개인적 맥락이건 혹은 집합적 차원이건 간에 경험을 통해 학습이 유발된다고 할 때 마을공동체에서 경험은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학습을 추동하는 가제이다. 대체적으로 학습의 담론에서 공동체학습은 개인과 대비되는 집단의 학습을 의미한다. 무형식학습은 마을공동체 주민들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공동체 구성원 삶의 전반을 주도하는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 변화와 양상은 지속적인 지식창출과 습득이 필수적이며 이는 무형식 학습의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삶에서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2)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는 앞에서 살펴본 마을공동체와 교육공동체가 만나서 형성되는 마을 단위의 교육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위수준의 개념적인 접근만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함의와 특징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학교중심의 교육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 자신들을 위한 평생학습차원에서의 교육운동이다(김신일, 1998: 13). 이는 학교와 지역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학생과 주민이 서로 만나는 구조를 의미한다. 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서 교육공동체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그 시작은 학교의 무거운 짐을 지역사회가 나누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학교는 정규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을 비롯하여 교육복지, 돌봄 등의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은 학교와 교육책임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아동들의 교육활동에 관여하는 어른들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학습과정들을 종합하고 상호의 연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를 창조하게 된다. 이제 아동과 주민의 생활과 학습은 가정-지역-학교라고 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양병찬 외, 2003 : 18-19).

최근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를 통해 마을과 학교의 협력 관계를 넘어, 마을 그 자체가 하

나의 교육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양병찬·전광수(2015), 김용련(2015), 서용선 외(2014), 박경민(2015)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과 ‘학교’ 사이에 관계 맺음에 있다. 서용선 외(2015)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말하는 ‘마을’ 은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된다고 주장한다. 학교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이 양자가 교류하고 함께 변화한다. ‘학교가 마을이다’ 거나 ‘학교밖 학교’ 라는 말이 그 차원의 의미로 주장한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말하는 ‘공동체’ 는 학교와 마을의 분리, 학교와 교육청의 분리,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리, 교사와 교사의 분리, 학생과 교사의 분리, 학생과 학부모의 분리 등을 넘어서서 이른 통합적으로 연결짓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실천적 방법으로 학습시킴으로써 그들의 학습역량과 정의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결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적 구조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교육은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 이라는 세 가지 유형에 입각해 실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마을을 통한 교육(learning through community)은 그 지역사회의 인적,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형태를 말한다. 학생들은 마을의 교육인프라와 자원을 통해 배움을 실천한다. 마을을 통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교육인프라와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대시키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대로 마을을 통한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이다. 이 방법에서 마을은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된다. 마을에 존재하는 여러 재능기부자들, 문화체육시설, 마을고유산업, 마을과 그 마을에 인접한 지역에 속한 여러 기관과 기업들을 잘 활용하여 네트워크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을 배움공동체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마을을 통한 교육의 핵심이다. 이 방법은 양병찬(2008)의 연구에서 나온 지역교육공동체에서 ‘지역’ 을 바라보는 시각과 유사하다.

둘째, 마을에 관한 교육(learning about community)은 학생이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다.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산업적 특수성 및 발전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의 교육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역시 마을공동체의 한 유형이므로 마을공동체의 주요특징인 ‘정체성’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을에 대한 정체

성은 마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생긴다. 마을에 관한 교육 역시 마을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준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의 지향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마을을 위한 교육(learning for community)은 학생들이 지역사회발전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진로 역량을 키워주는 활동이다.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기반을 근거로 하는 문화, 자원, 사회, 경제 등의 학습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이루고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발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자원과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의 교육이 될 것이다. 마을발전의 핵심은 미래의 자원과 인재를 육성하여 이들이 다시금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마을에 속한 학생들을 훌륭하게 교육시켜 성장시키는 것이 곧 마을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용련(2015)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는 것’ 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내포된 개념인 세 가지 유형에 더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주체에 관한 것이다. 즉, 마을 주민에 의한 교육(learning of community)이 빠진 것이다. 누가 마을교육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추진할 것인가? 학교인가? 아니면 마을 주민인가? 이 연구에서는 주체에 대한 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학교와 마을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마을주민, 마을의 결사체들이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적 목적, 교육적 내용,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 제도

(1) 법률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법률로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2항에서는 학생의 교육 외에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 제10조(사회교육) 1항에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정규교육 외에 학생 및 국민들을 위한 교육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1항에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상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조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5.11.4.)”가 대표적이다.

[제정이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경기도 더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기꿈의 학교·교육협동조합·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 경기꿈의학교, 사회적 경제,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활동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마을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경기꿈의학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경기꿈의학교 사업 및 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아. 교육협동조합 지원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 자.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 차.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
- 카.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계획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7조)
- 하.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센터의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경기 꿈의학교·교육협동조합·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4).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조례 “어린이·청소년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도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공동체” 로 규정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

- 교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 운영 및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 마을교육 교재·프로그램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관련 매뉴얼 개발
-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최근, 대구광역시에서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 창의·인성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주민과 청소년간의 유대강화사업, 지역특색사업
- 학교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연계 청소년체험활동 사업
-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돌봄, 부모교육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내 진로직업체험지원단과 우리마을 교육나눔 연계 사업
-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이외, 마을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조항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조례에는 마을학교, 공간으로서의 마을배움터, 마을배움활동가 양성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부산시 마을만들기지원조례에서도 주민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 등의 조항이 제시되어 있어,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2절 마을교육공동체 정책동향

1. 충청남도 정책동향

1) 행복공감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는 교육감 교육정책 슬로건인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 과 도지사 공약인 “혁신형 행복학교” 를 접목하여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인성을 도모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통한 새로운 공교육 모델사업이다.

〈표 2-4〉 행복공감학교 지원현황

(2015.09.01. 기준)

순	지역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지원액(천원)	비고
1	부여	은산초	10	135	70,000	4년차
2	예산	응봉초	7	87	70,000	
3	보령	천북중	4	50	70,000	
4	논산계룡	노성중	5	89	70,000	
5	홍성	갈산고	9	241	70,000	
6	천안	목천초	14	213	70,000	3년차
7	논산계룡	부적초	7	89	70,000	
8	서천	마동초	6	56	70,000	
9	홍성	홍성중	21	573	70,000	
10	당진	합덕여고	6	150	70,000	
계					700,000	

2013년 5개교, 2014년 5개교 등 총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7천만원의 운영비 균등지원(도청 50%, 기초지자체 25%, 도교육청 25%)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예산은 프로그램개발·운영비, 교원연수비, 전문기관 컨설팅비, 시설비, 교구/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되 프로그램운영비가 전체 운영비의 60% 이상을 사용하도록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행복공감학교는 자연친화형, 인성교육중심형, 다문화공감형 등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행복나눔 학교

행복나눔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교육부 훈령, 충남형 혁신 학교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로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의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와 지정방식을 통해 총25개교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2-1) 행복나눔학교 운영모델

행복나눔학교의 주요지원내용은 혁신학교 운영비(행복공감학교 중 희망학교를 심사하여 지정 및 재정지원), 교원인사(교사초빙, 교장공모 등), 자율학교지정, 행정지원(학급당 정원 하향 조정, 학급편성운영 자율권 지원, 교무행정사 및 학습보조인력 우선배치 등), 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남도내 행복나눔학교는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1개교, 6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당 4,000만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되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표 2-5〉 충남 행복나눔학교 운영현황

(2016. 3.1기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총수	행복 나눔 학교수	비율 (%)									
학교수	418	22	5.2	188	11	5.9	116	6	5.2	722	39	5.4



(그림 2-2) 충남 행복나눔학교 네트워크

행복나눔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복나눔학교 컨설팅, 학교혁신 역량강화 연수, 행복나눔학교 평가,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 행복나눔학교 추진단 운영, 행복나눔학교 네트워크 구축, 행복나눔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학교혁신연구연합동아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3)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사업

(1) 추진개요 및 사업내용

충남 행복교육시범지구사업은 진로교육법, 평생교육진흥법 및 자유학기제 관련 ‘지역교육력 배양’, 충남도 2016년 시책구상인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육감 5대 정책방향인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교육협력체 형성’에 근거하여, 충남도와 교육청이 주민참여형 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자율적 교육역량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다.

충남행복교육지구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와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시군지역을 의미” 한다.

충남행복교육지구는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혁신 추진과 충청남도 지자체의 교육특성화 사업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으로 신뢰받는 공교육모델 창출과 사회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교육적 대응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상생협력(자치단체의 평생교육사업과 교육청의 학교교육간 교육협력사업 융합추진)을 위해 도교육청과 시군간 업무협약체결(공동사업-공동투자), 시군과 교육지원청의 공동사업 관리, 충청남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 지역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축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군(교육경비 미지원 4개 시군)을 포함하여 지정 및 운영한다.

사업영역은 공교육혁신사업(혁신교육 활성화 추진, 미래역량 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마을학교 운영지원, 마을학교 네트워크 지원, 주민평생교육지원) 등이다.



(그림 2-3)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비전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공동체

『마을학교』란?
 지역내 기관·단체 및 자발적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학교교육을 돕고 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주민 모임을 말함

충남행복교육지구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지원전략으로 하여, 학교교육혁신으로 신뢰받는 공교육모델 창출, 교육청-지자체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 전형구축,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교육공동체 형성, 교육환경 낙후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공통필수사업)

구 분	사업 영역	사 업 명
공교육 혁신 사업	혁신교육 활성화	행복나눔·공감학교(학교혁신) 지원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	마을학교 운영	마을학교 운영 지원

〈표 2-7〉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지구별특성화사업 예시)

구 분	사업 영역	사 업 명
미래역량 인재 육성	교육과정 특성화	논술 네트워크 구축, 진학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인재육성 문화체험,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학습부진아 멘토학습 지원
	창의적체험활동	나를 찾고 함께 크는 청소년 문화스포츠 지원, 평화안전 생명존중 사업, 환경문화재공공예술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방과후 지원	영어체험센터운영, 초등보급자리교실
	위기학생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청소년 지원센터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동반자사업, 청소년문제 예방해결 사업
	교육복지	돌봄과 사랑의 에듀케어 사랑방, 희망심기 사업
	특수교육지원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장애우 문화체험
	지역사회교육	내고장 역사 알기, 지역사회학교 사업
교육환경 개 선	미래 학교 조성	미래교실 조성, 복합배움터, 텃밭 농장, 학교숲
	교육환경 개선	노후시설 개선 사업, 학교 복합센터 조성
마을학교 네트워크	마을학교 네트워크 지원	마을학교 사업, 지역 교육협동조합, 사회적 교육기업
주민 평생교육	평생교육 지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충남행복시범교육지구는 시군단위로 지정하되, 충남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선정한다.

지구단위	⇒	· 지구지정 지역범위
협약기간	⇒	· 지구 운영기간(2016.10~2017.02)
기본조건	⇒	· 행, 재정적 기본조건
시행사업	⇒	· 지구운영시 세부추진사업
재정투자계획	⇒	· 기관별 자원부담 계획
세부운영방안	⇒	· 지구 운영주체(지역교육협의체) 설치

(2) 3개 시군 시범사업(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① 협약의 취지와 목적, 주요내용

충청남도교육청과 3개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충남교육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행복교육시범지구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을 체결한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교육청은 3개시를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로 지정운영하며, 3개시는 3개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운영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한다.

셋째,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으로 혁신교육 활성화, 미래역량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혁신과 마을학교운영, 네트워크 지원, 주민 평생교육지원 등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2016 충남 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비는 3개시에서 부담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아산시

아산시의 행복교육시범지구 비전은 온마을이 학교 ‘행복교육도시 아산’ 으로 정하고, 2개 영역 5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행복교육시범지구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내 전담부서와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교육공동체 형성, 교육지원청-시청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으로 아산형교육모델 창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아산교육문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2-8〉 아산시 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

구 분		소 계	아산시
정책과제	단위사업		
합 계(천원)		250,000	250,000
공교육 혁신 사업			
혁신교육 활성화	행복나눔학교 준비 지원	9,000	9,000
미래역량 인재 육성/ 교육환경 개선	교육 특성화사업지원	19,000	19,000
	혁신교육 운영비	7,000	7,000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			
마을학교 운영 지원	마을학교 운영 지원	15,000	15,000
	아산시민참여학교	200,000	200,000

자료: 아산시·아산시교육지원청(2016). ‘행복교육도시 아산’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운영계획.

③ 논산시

논산시의 행복교육시범지구 비전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100년, 꿈교육도시 논산” 으로 정하고, 3개 영역 14개 사업에 12억 9천만원의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공교육 혁신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가칭)논산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고,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논산드림마을학교운영,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꿈을 실현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학교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운영, 교육활동 중심의 실천하는 학교문화조성을 기대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은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로 개인역량강화 및 시민의식 함양,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주체로서의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은 지역교육인프라를 통한 학생교육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9〉 논산시 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

정책과제	구 분	소 계	논산시	교육기관
	단위사업			
합 계(천원)		1,288,410	1,127,410	161,000
목표1. 함께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1,060,000	930,000	130,000
공교육 혁신 사업 지원	1. 씬(.)이 있는 행복 놀이	200,000	100,000	100,000
	2.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400,000	400,000	0
	3.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120,000	90,000	30,000
	4.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100,000	100,000	0
	5. 유소년 승마단 운영	70,000	70,000	0
	6. 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활동	130,000	130,000	0
	7. 학교 텃밭·정원 프로그램	40,000	40,000	0
목표2.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93,410	62,410	31,000
마을교육공 동체 구축	8. 학교와 함께하는 「지역사회학교」 운영	30,000	15,000	15,000
	9. 논산시 청소년 소셜 캠프 운영	18,410	7,410	11,000
	10. 진로코칭 전문가 양성 운영	30,000	30,000	0
	11.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15,000	10,000	5,000
목표3.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 확대		135,000	135,000	0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 확대	12.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80,000	80,000	0
	13. 논산 시민대학	45,000	45,000	0
	14. 군(軍) 평생교육 활성화	10,000	10,000	0

자료: 논산시·논산계룡교육지원청(2016). 논산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운영계획.

④ 당진시

당진시의 행복교육시범지구 비전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도시 당진으로 정하고, 2개 영역 10개 사업에 2억4천7백만원의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육활동 참여도 향상을 통한 교육주체로서의 자부심 고양, 학교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환경 구축 및 실천을 통한 정주성 및 애향심 제고, 미래역량 중심의 학

교교육과정 모델 창출 및 우수 교육의 공교육 혁신을 통한 혁신교육의 발전 방향 제시, 당진시 교육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이 기대된다.

〈표 2-10〉 당진시 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내용

구 분		소 계	사군	교육지원청
정책과제	단위사업			
합계		247,000	247,000	-
공교육 혁신 사업		24,600	24,600	-
혁신교육 활성화	Co-EDU 행복나눔학교 지원단 운영	1,000	1,000	-
미래역량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	미래역량 신장 중심의 교육사업 지원단 운영	500	500	-
	21세기 교육활동 전개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단 운영	500	500	-
	그린헬스 스카우트 운영	2,000	2,000	-
	당진시 행복교육 아동실태조사	20,600	20,600	-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		222,400	222,400	-
마을학교 운영지원	당진시 주민주도형 평생학습마을	100,000	100,000	-
주민평생교육 지원 (마을네트워크 크지원)	당진시 평생교육 배달강좌제	100,000	100,000	-
	당진시 드림스타트 사업	10,400	10,400	-
	당진시 주민자치학교 운영	10,000	10,000	-
	평가 및 컨설팅	2,000	2,000	-

자료: 당진시.당진교육지원청(2016). 당진시 행복교육시범지구 업무추진 주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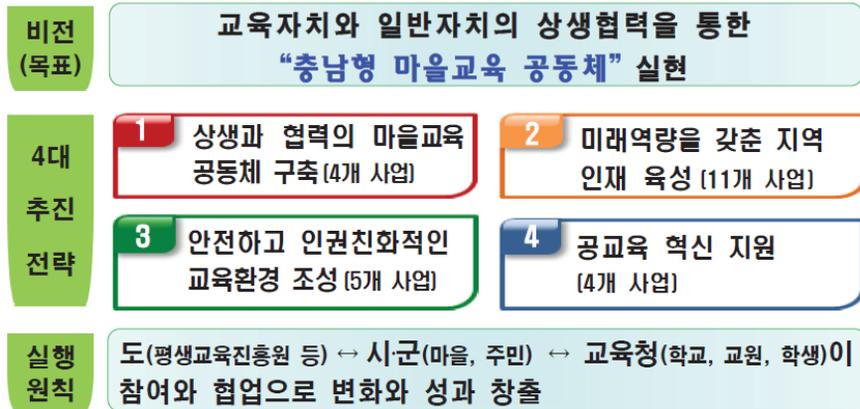
4) 도 및 교육청간 교육혁신모델 발굴

(1) 필요성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협력, 즉 충남도청과 충남도교육청간 교육혁신모델 발굴은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생산적 협력모델 추진,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반영한 교육협력의제(agenda) 제안 및 조정, 통합적 교육협력사업(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사업간 통합), 충남도청의 교육에 대한 역할 필요성 증대 등을 이유로 추진되어 왔다.

(2) 비전

교육혁신모델 정립을 위한 비전으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협력을 통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9개 전략과제, 24개 세부사업을 발굴하였다.



(3) 발굴사업 목록

4개 영역 25개사업, 기존사업 지속추진 6개, 신규(보완)사업 18개사업 발굴

<표 2-11> 발굴사업 목록

구 분	사업명	비 고
상생과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의 복합화(신규)	신규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보완
	주말행복배움터사업	기존
	농산어촌체험학습 활성화	기존
미래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신규
	초중고 학생 민주시민 교육	신규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하는 인성진로교육	신규
	-학생사회환경교육	신규
	-청소년맞춤형 시민교육	신규
	-청소년양성 프로젝트 운영	보완
	-청소년 참여예산 정책사업 운영	보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신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기존
	학교밖 청소년 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꿈키움 학교 운영	신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기존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기존
	행복공감학교 육성운영	기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인권교육강화	신규
	인터넷 청정 충남교육 환경조성	신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보완
	학교시설 디자인 컨설팅	신규
	생존수영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보완
공교육 혁신지원	도-교육청 연수기관 간 협력	신규
	도-교육청 도서관 연계운영시스템 구축	신규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기존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운영	신규

자료: 충청남도(2016).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만들기' 교육상생협력기획단 회의자료.

(4) 실행력 확보 및 소요예산 확보

재정 및 학습 현장여건에 맞도록 그동안 추진해오던 4개 사업을 성과분석후 일몰을 검토하고, 충청남도와 도교육청 담당부서별 회의, 교육발전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의 충실도,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고 보완토록 하였다.

2017년 소요예산은 24개 사업중 23개 사업에 157.8억원으로 편성하고, 사업별 재원 부담은 도와 교육청간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였다.

(5) 교육혁신모델 실천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지사와 충남도교육감은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대가치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혁신모델' 을 발굴하고, 이 모델에 대한 현장실천 기본사항을 담아 '업무협약서' 를 마련한다.

협약체결의 목적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통하여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려는 것이다.

본 협약을 계기로 삼아, 도정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으로 지역과 교육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학교내 시설과 지역자원을 확충, 주민과 학생이 공유활용하여 ‘상생과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 하는데 상호노력한다. 둘째,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 및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여건 마련 등 ‘미래 지역인재 육성’에 협력한다. 셋째,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학교시설 디자인 컨설팅 등 행재정적인 협력을 한다. 넷째, ‘공교육혁신’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세계 시민교육에 협력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내 우수 농산물을 보급하고, 학교폭력과 각종 재난사고 예방 등 ‘생명존중, 행복한 학교’를 조성한다.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만들기 -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업무협력 협약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충남형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양 기관은 '상생과 협력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지역자원을 공유·활용하고, '마을 속의 학교', '학교 속의 마을'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학교 내 문화·체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2. 양 기관은 학교 안과 밖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진로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양 기관은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시설 디자인 컨설팅 및 통학로 확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민과 청소년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4. 양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며, 다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5. 양 기관은 도내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공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6. 양 기관은 재난사고·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정보제공 등 '생명존중,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양 기관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도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6년 10월 12일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표 2-12〉 2017년 교육협력사업 및 소요예산

전략 과제	사업명	2017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군비	교육청	
합 계	25개 사업	16,133	700 (480)	3,958	3,980.5	7,014.5	
1. 상생과 협력의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소 계	3,594	(480)	641	959	1,564	
	①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의 복합화	1,600	(480)	-	320	800	
	②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180	-	141	39		
	③ 주말행복 배움터사업	1,200	-	300	600	300	
	④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614	-	200	-	414	
2. 미래역량을 갖춘지역 인재 육성	소 계	8,014	200	1,859	1,941.5	4,014.5	
	⑤ 자유학기제·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190	-	190	-	-	
	⑥ 초·중·고 학생의 민주시민 교육	-	-	-	-	-	
	①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인성·진로교육	80	-	40	-	40	
	② 학생 대상 사회·환경교육	70	-	70	-	-	
	③ 민주주의 여권을 활용한 청소년 맞춤형 시민 교육	30	-	30	-	-	
	④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젝트 운영	160	-	140	-	20	
	⑤ 청소년 참여예산 정책사업 운영	100	-	90	-	10	
	⑥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150	-	40	70	40	
	⑦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4,040	-	348	812	2,880	
	⑧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꿈키움 학교' 운영	600	-	200	200	200	
	⑨ 특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700	200	150	-	350	
	⑩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1,544	-	386	772	386	
	⑪ 행복 공감학교 육성·운영	350	-	175	87.5	87.5	
3.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조성	소 계	2,565	500	1,168	-	897	
	⑫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	430	-	210	-	220	
	⑬ 인터넷 형정 충남교육 환경 조성	315	-	158	-	157	
	⑭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료지원	120	-	100	-	20	
	⑮ 학교시설 디자인 컨설팅	500	-	500	-	-	
	⑯ 생존수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200	500	200	-	500	
4. 공교육 혁신 지원	소 계	1,960	-	290	1,080	590	
	⑰ 도, 도 교육청 연수기관 간 협력	비예산	-	-	-	-	
	⑱ 도(시·군)와 교육청간 도서관 연계 운영 시스템 구축	'18년 추진	-	-	-	-	
	⑲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360	-	90	180	90	
	⑳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운영	1,600	-	200	9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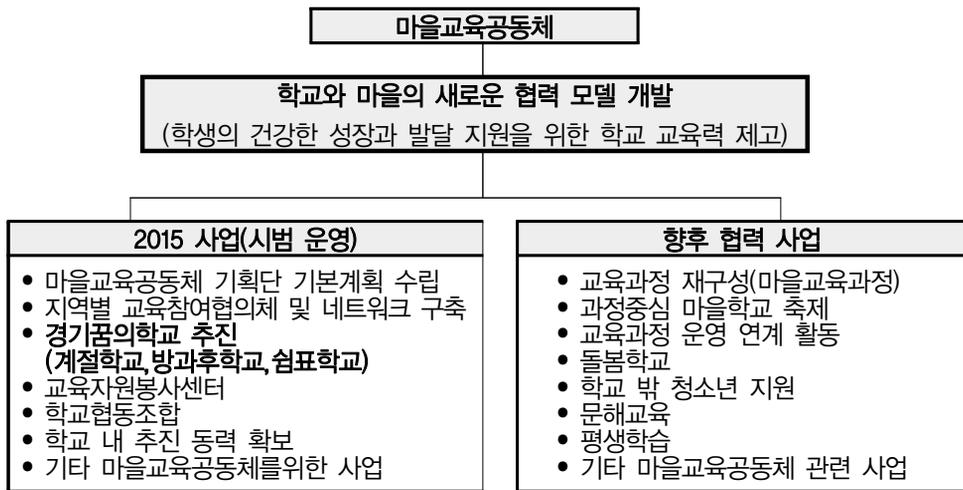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2016).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만들기' 교육상생협력기획단 회의자료.

〈표 2-13〉 2017년 교육협력사업의 주요내용

구 분	사업명	내 용	
상생과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의 복합화(신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이원화로 단절된 학교와 마을의 융복합 시도를 위해 교육문화클러스터, 소규모 학교통합시 지역연계 커뮤니티 시설, 학교시설 융복합회 마스터플랜 마련, 프로그램 융복합 운영 등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주도형 충남형 행복학습 마을자치학교 운영, 마을배움터 지원사업, 마을과 교사협력을 통한 마을학습 공동체 조성	
	주말행복배움터사업	체육, 문화예술 등 주말교육프로그램 공모 운영	
	농산어촌체험학습 활성화	농업농촌의 다기능 체험학습 및 학교 텃밭가꾸기 사업 지원	
미래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기업병원소상공인 등 민간분야 진로체험 지원홍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도소속 공공기관 진로체험 운영지원	
	초·중·고 학생 민주시민교육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하는 인성진로교육	시범학교 선정, 학교수업과 사회적기업체 등 체험교육 병행 실시, 향후 정규교육과정 개설
		학생사회환경교육	학생 환경체험활동 지원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맞춤형 시민교육	청소년맞춤형 시민교육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태도, 덕성 배양을 위해 각종 참여 제도를 수록한 여권형태의 핸드북인 민주시민여권 활용한 교육
		청소년리더양성 프로젝트 운영	도내청소년(중 3 또는 고 1) 대상 청소년 리더십 교육 및 활동, 강사 양성, 페스티벌 개최 등
		청소년 참여예산 정책 사업 운영	도시군 청소년예산 및 청소년 정책 사업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자치 학습, 체험기회 제공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학교구성원, 지역사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도내 전 초등학생 418개교 115천명 대상 학습준비물 구입비 추가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꿈키움 학교 운영	학교에서 교육 받지 못하는 학생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 꿈키움 학교 설립운영	
	특성하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특성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소통능력 등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해외선진기술 습득 등 국내외 취창업 역량 배양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보조인력을 위촉운영함으로써 사회부적응 조기예방	
	행복공감학교 육성운영	선정된 20개교에 대해 방과후 체험 학습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등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인권교육강화	아동청소년 참여 상설 인권협의체 구성, 충남 청소년 인권의 날 행사,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등	
	인터넷 청정충남교육 환경 조성	기존 저소득층 학생 지원대상자 외에 초·중·고학생 가정 PC까지 확대 지원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사회심리적 외상지원단을 구성하여 도내 중·고등학교 심리적 외상 예방교육 및 사후 개인프로그램 지원	
	학교시설 디자인 컨설팅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학교디자인 컨설팅	
공교육 혁신지원	생존수영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학생수영장, 사설(지자체)수영장을 활용하여 생존수영 실시	
	도-교육청 연구기관 간 협력	도 공무원교육원과 교육청 교육연구위원간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정보 공유	
	도-교육청 도서관 연계운영시스템 구축	지자체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 모바일 앱 조성, 물류시스템 구축 등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대졸자이상 교육자격을 소지자를 시군당 1교 이상 시간제 강사로 채용 정규 및 방과후 보조교사로 활용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충남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함		

2. 경기도 사례 : 마을교육공동체17)

마을교육공동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교육공동체사업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며 인수위원회에서도 주요 정책의제로 제시되었다. 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큰 그림이었다. 그러나 2015년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출범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학교교육력의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주민 등 협력/지원/연대하는 교육공동체로 정의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활동으로 꿈의 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협동조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마을교육공동체보다는 다소 축소된 형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준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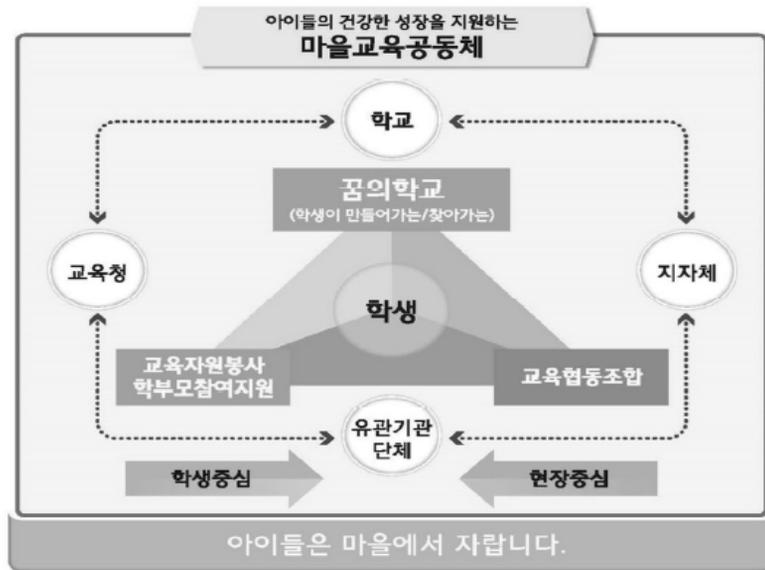


(그림 2-4) 경기도교육청(2014). 마을교육공동체 내 꿈의 학교의 위상

경기도 교육청은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마을교육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교육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

17) 서용선(2014). 꿈의 학교 정책입안 배경과 과정. 참조작성.

의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영역의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2-5) 경기 꿈의학교 추진체계도

꿈의학교 :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참여하되,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기획·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꿈이 실현 되도록 도와주는 학교, 학생 중심의 꿈의학교 실현으로 인성·지성·감성이 조화된 전인적 인간 육성

- 교육자원봉사 : 학교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교육자원으로서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마을교육공동체 정신과 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학교에 제공하는 활동
- 학부모 교육참여 : 학부모들의 전문역량과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인팍에서 활동하고 참여하여 교육과정과 체험활동의 다양화를 꾀하고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일
- 교육협동조합 : 교육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교구성원 및 지역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교육과정 : 마을과 관련된 제 교육과정으로 교과와 비교과 등 학교 교육활동에서 마을의 인적·물적·환경적 자원을 학교교육과정에 결합·재구성하여 실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표 2-14〉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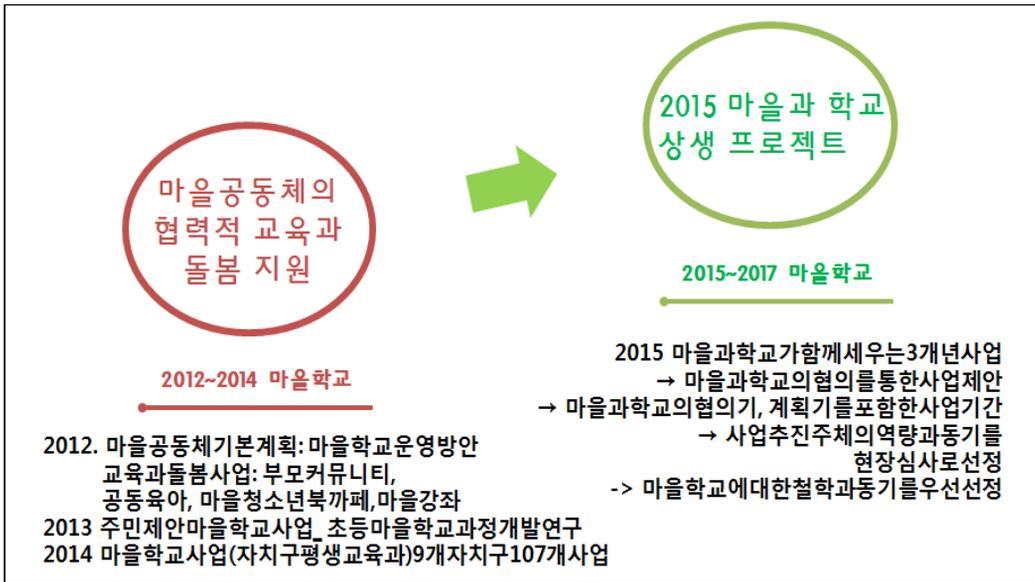
구분	사업내용
1. 마을교육공동체 포괄사업	1-1. 학생 꿈 조사 및 마을자원 지형도 제작
	1-2. 마을교육공동체 발굴·지원·홍보
	1-3. 도교육청 각부서 연계성 강화와 마을교육과정 개발지원
	1-4. 실천사례 발굴 및 연구와 자매결연을 통한 모델링화
	1-5. 마을학교장 및 마을교육 플래너 양성과 홍보물 발행
	1-6.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지원단 운영
	1-7.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2. 꿈의학교	2-1. 경기꿈의학교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응모사업자 인큐베이팅 및 인증제시행
	2-2. 방과후 꿈의학교 운영을 통한 단기형 꿈의학교 실현
	2-3. 계절형 꿈의학교 운영을 통한 심화형 꿈의학교 실현
	2-4. 심포형 꿈의학교 운영을 통한 대안형 꿈의학교 실현
3. 협동조합	3-1. 자생적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지원 및 모델링화
	3-2.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학교협동조합 시범운영
	3-3. 마을교육공동체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연계 학교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3-4. 학교협동조합 연수과정 개발과 가이드북 제작을 통한 꿈의학교 기틀 마련
4. 학부모지원	4-1. 마을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부모교육 운영
	4-2.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4-3. 학부모자원봉사 중심의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4-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4-5. 학부모와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자료: 경기도 교육청, 2015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안).

3. 서울시 사례 : 마을학교, 마을결합형학교

1) 서울시청 : 마을학교

서울시는 201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서의 ‘마을학교 운영방안’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2016년)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마을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마을학교 지원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6)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6). 서울시 마을학교 지원정책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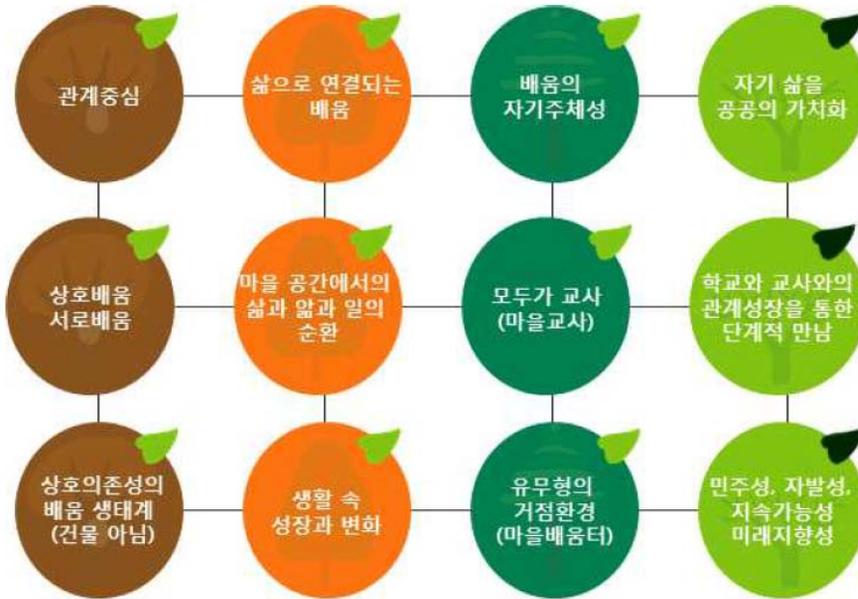
현재 추진 중인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서 마을학교 사업을 설계하였고,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3년 연속사업의 1년차인 ‘2015년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이하, 마을과 학교)’를 통해 마을과 학교 상생을 위한 토대와 관계맺기 작업을 실행하였다.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의 목적은 ①학생(아동·청소년)·주민·교사 간 다양한 관계망을 복원하고 ②관계망을 통한 상생과 협력적 상호학습을 통한 성장과 ③마을과 주민들의 역할 재설계를 통해 다양한 마을학교의 상을 정립하고 마을학교의 활동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마을과 학교는 ‘학교에서 마을(이하 학교발)’ 유형과 ‘마을에서 학교(이하 마을발)’ 유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학교발 유형은 준비된 학교의 역량으로 함께할 마을 역량을 발굴, 추진하고 마을발 유형은 준비된 마을의 역량으로 함께할 학교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마을과 학교의 출발을 통해 이룬 성과는, 첫째로 지난 3년간 등장한 주민모임이 마을단위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모임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교육청의 마을결합형 학교에 대한 욕구와 마을의 만남이 촉진되면서 학교 안 교육혁신주체들의

결집이 가시화되었다. 셋째는 서울시-교육청-중간지원조직-민간전문가의 상시적 협력과 공유를 통한 확장된 민관거버넌스의 형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림 2-7] 마을교육의 지향성

자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 2015년 마을계획 연구결과 공유회: 마을에서 만나는 마을.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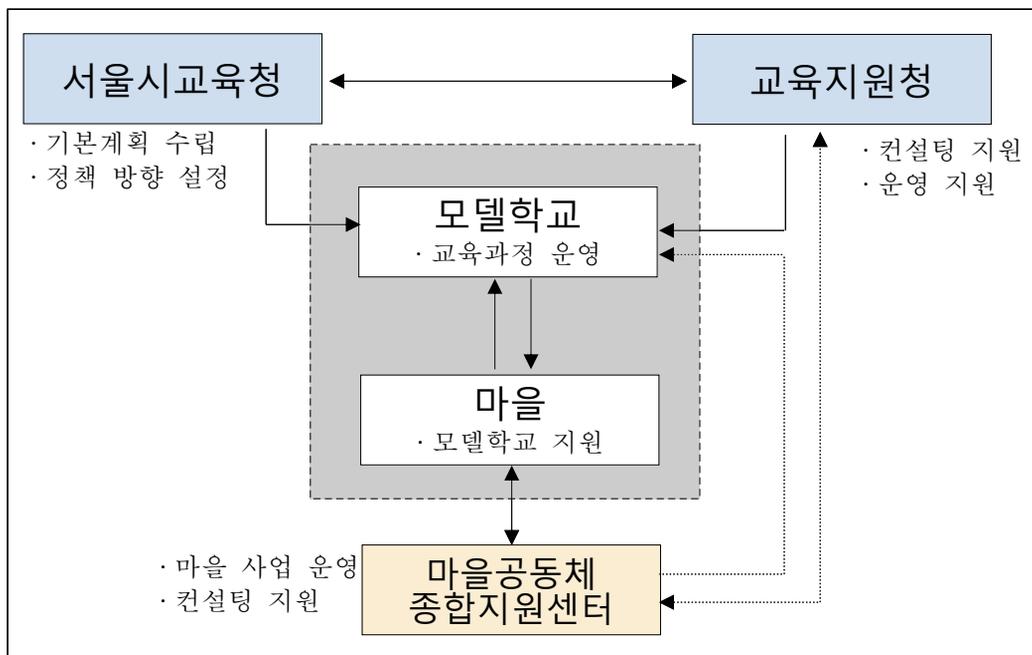
(2) 서울시교육청 : 마을결합형학교

마을결합형학교는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 을 통해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로 활용하며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은 물론 학교와 마을도 함께 성장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말한다. 서울시 교육청(2016)¹⁸⁾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을결합형학교는 ‘유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일체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이다.

18)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2016). 2016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지원계획(안).

마을결합형학교는 학교-마을 간 협력적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연계·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 역할은 학교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결합형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마을결합형학교의 운영 지원과 지역단위 교육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시교육청은 마을결합형학교 정책 지원 및 지역사회 교육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 관련 사업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8] 서울시 교육청(2016). 서울시 마을결합형학교 추진체계

마을결합형학교는 1단계인 ‘부분적 마을결합형학교’와 2단계 ‘전면적 마을결합형학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먼저, 1단계(부분적 마을결합형학교)에서는 모든 학교가 마을결합형 교육활동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마을결합형 교육활동 운영 실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하여 현재보다 한 차원 더 발전된 형태로 마을결합형 교육활동을 기획·운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단계(전면적 마을결합형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음 2단계(전면적 마을결합형 학교)에서는 마을결합형 학교문화를 일상화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배움과 돌봄의 성장 지원망을 촘촘히 조성하며 체계적·통합적인 마을결합형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교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학교-마을 연계 협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고히 하여 학교와 마을의 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을결합형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결합형학교가 학생들의 온전한 발달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본질 지향적인 평가·환류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마을결합형학교 유형(예시)

- **부분적 마을결합형학교**
 - 마을 활용 프로그램형: 일회적이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을 자원을 학교에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거나 마을배움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실시 (예) 마을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 마을과 함께 하는 축제, 지역의 각종 센터 활용 프로그램 등
 - 마을 초대 프로그램형: 학교 시설(체육관, 도서관, 운동장 등) 지역 개방 및 지역주민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지역주민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체육관 활용 지역주민 배드민턴반 운영 등
- **전면적 마을결합형학교**
 - 마을결합형 학년교육과정형: 특정 학년 단위로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 교과 및 창체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을 다양한 마을결합형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전면적·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 (예)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중학교 1학년 마을결합형 진로 교육과정 운영 등
 - 마을결합형 교과교육과정형: 특정 교과 단위로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 교과 교육과정을 다양한 마을결합형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 (예) 생물과의 우리 지역 자연생태계 교육과정 운영, 사회과의 마을살이 교육과정 운영 등
 - 마을결합형 학교교육과정형: 전 학교 차원에서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 교과 및 창체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 등을 다양한 마을결합형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이 전면적·통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마을결합형 학교문화와 시스템이 정착된 학교

서울시교육청(2015년)¹⁹⁾에서 발표한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마을결합형 교육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마을을 통한 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마을결합형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도 주로 방과후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 차원의 통합적·유기적·체계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본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을결합형 교육 활동 운영을 위한 학교-마을 간 거버넌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다.

4. 광주광역시 사례²⁰⁾

1) 시와 시교육청의 협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시작

도시에서 주민들의 관심은 교육이다. 특히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운영 등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 4월 시와 교육청 간 회의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모델구축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추진단’의 공동구성을 제안 및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마을활동가, 교사, 관련 전문가, 광주시, 시교육청이 참여하여 22명으로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6월부터 추진방향과 정책추진과제를 논의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계획안을 공동으로 확정하고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2)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방향

광주의 마을교육공동체 기본방향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재능과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가 되고 마을과 사회의 배움을 통해 미래사회에 걸맞는 인재로 키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에서는 교육기능 강화로 마을공동체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적 기능을

19) 서울시교육청(2015). 2015학년도 마을결합형학교 운영기본계획.

20) 손명(2016). 마을과 학교가 함께 키우는 광주마을교육공동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65권 754호를 참조하여 작성.

지역사회가 나누고 참여함으로써 공교육 질을 강화하는 데 있다.

3)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해 광주시 주관으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를 실시하였다. 마을공동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은 반드시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구성하기로 하였다. 지원규모는 최대 5천만원 이내로 하고 마을공동체 자부담을 5%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사업내용도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어 두어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되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현재 23개 공동체와 45개 학교가 연계되어 활동 중으로 마을주민들이 교과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주민들과 함께 직업체험과 진로교육을 하기도 하며 학생동아리활동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마을로 나오기도 하며 공동체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3절 마을교육공동체 국외 사례

1. 일본커뮤니티 스쿨(학교지역지원본부)

일본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추진 역사는 존듀이(J. Dewey)의 아동중심교육과 올슨(Olsen)의 지역사회학교, 전후(戰後)의 평생교육론 등의 모델의 적용이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澁谷英章, 1996 : 21-5). 최근의 지역사회학교 사업의 추진은 2000년 12월 일본의 ‘교육개혁국민회의’에서 ‘교육을 바꾸는 17가지 제안’ 가운데서 지역의 독특한 요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이 운영에 참가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를 제안한 것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학교로 일컬어지는 커뮤니티스쿨인데 각 지역(시정촌)에 설치하고자 검토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이 이 제안에 따라 2002년부터 커뮤니티스쿨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형의 학교운영을 위한 실천 연구’ 과제를 설정하여, 전국의 초중학교 9개교를 연구 지정 학교로 정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커뮤니티스쿨의 목표는 공립초등학교의 모든 기능을 지역에 개방함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생애학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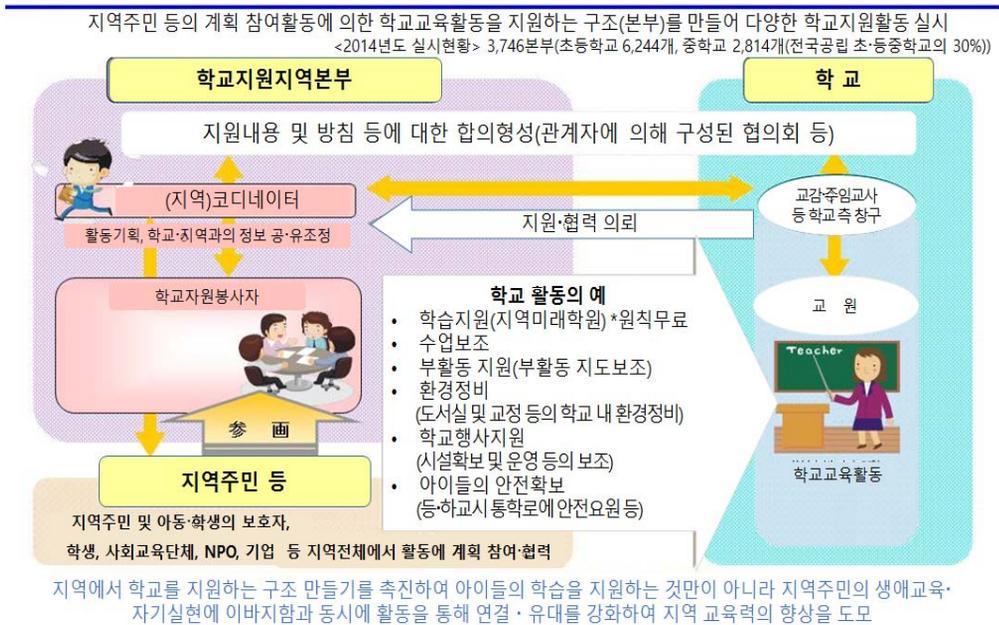
2006년 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지원지역본부라는 구조를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지역공동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학교지원지역본부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위원회는 PTA(학부모 교사 연합회, Parent-Teacher Association), 졸업생, 지역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여금 보충학습, 특별활동, 시설관리 등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지원 지역본부 설치를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1,800여개 학교지원지역본부 모델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한화 약 655억원), 중학교구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지원지역본부는 기본적으로 ‘지역 코디네이터’, ‘학교지원 자원봉사자’, ‘지역교육협의회’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지역코디네이터 : 학교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상호간의 연락 및 조정 역할, 학교지원 지역본부의 실질적 운영 담당, 퇴직 교사 혹은 PTA 임원 경력자 출신으로 구성 됨. 지역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신뢰가 높고, 기획력이 뛰어나며 헌신성과 열정을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하고 있음

- 학교지원자원봉사자 : 학습지원 활동, 방과 후 학교 지원, 교내 환경 정비, 학생 안전 지도, 체험활동 보조자, 수업보조자의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
- 지역교육협의회 : 학교당국, PTA, 지역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대표, 공민관 등의 사회교육관계자, 지역자치회 및 지역상공회의소 등의 지역관계자로 구성되어, 학교 문제 해결을 도울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제안과 협조를 부탁하는 등 지역교육 전반의 방향을 제안

학교지원지역본부



[그림 2-4] 일본 학교지원지역본부의 운영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마을의 주민 가운데서 이 사업의 중심 인력을 육성하는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코디네이터는 지역과 학교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과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지난 8년간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을 통해 총 618명의 지역코디네이터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100여명이 학교에 따라 1명에서 3명까지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다. 학교지원지역본부와 지역코디네이터 사업의 효과성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학교지원지역본부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로 대피하는 학생의 이동이 미설치 학교에 비해 혼란없이 순조로웠다는 앙케이트 조사결과가 있다. 당시 지역코디네이터의 학생 돌봄 역시 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역과 학교의 교류가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닌 일상적이고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지원지역본부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보호자와 지역주민이 학교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공개 주간 등을 통하여 주민이 교사와 학생과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2-10) 학교와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체계

2. 미국 커뮤니티스쿨

미국의 커뮤니티스쿨은 앞서 논의한 미래학교 시나리오 중에서 학교와 지역의 협력으로 공교육의 경계를 확장해가는 가장 가까운 형태일 것이다. 미국 교육학자들과 단체들은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커뮤니티스쿨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제 운동을 넘어 미국 공교육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CLC)” 사업이다. 전통적인 지역사회교육운동(Community School Movement)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하여, 부시 행정부의 ‘No Child Left Behind’법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의 주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교육의 측면에서 지역개발과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회복, 성인 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1994년 미 의회의 승인으로 처음 시작하여, 미 교육부에서 각종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 재정지원 규모나 참여지역과 참여 학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3년 미 의회로부터 99,350만 달러를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1,420개 지역의 6,800여개 공립학교가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에 참여하였다.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는 단순히 1개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수준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고등교육기관, 과학문화 단체들이 모두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3년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데 연방정부는 본 사업 계획서에 지역 내의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교육기관과의 협력사항을 기술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각 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유도하고 있다(<http://www.ed.gov/21stccclc/21qa98.html>).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는 평생학습커뮤니티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연령의 제한 없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교육, 여가, 건강,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립 초·중·고등학교 건물 내에 설치한 학습센터에는 정보통신기술 소양 함양 교육, 실버교육, 직업상담 및 훈련 배치, 지역 도서관 운영 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역의 모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최대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학습지원 시스템 개념과 자원간의 네트워크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는 방과 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는데, 마약 등 각종 사회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학업성취의 증진, 음악, 드라마 등의 문화활동을 통한 레크리에이션의 기회 제공,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가정학습센터, 기본 학업 능력, 약물과 폭력 예방 상담, 상급학교 진학 준비반,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 제공 뿐 아니라 주요 과목에 대한 보강학습, 기술교육, 장애우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 사업이 구현되는 방식은 커뮤니티스쿨인데 이는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의 학계, 의료단체, 공동체활동과 리더십 등을 통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프로그램에 적극 도입한다. 학생들의 기초학습을 끌어올려야 할 경우에는 인근 대학의 교수와 대학생들이 방과 후 교사로 자원활동을 하고, 보건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역의 보건소와 병원이 아동과 부모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재단의 후원을 받아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또 어떤 곳은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미국에는 커뮤니티스쿨을 만들고 지원하는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커뮤니티스쿨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학교가 있을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그 지역의 대학과 기업, 자원봉사자, 단체와 기관 등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주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 마련하지만, 재단기금 혹은 기업 후원과 같은 민간 자금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97년 설립된 커뮤니티스쿨 연합회(The Coalition for Community Schools)는 142개의 커뮤니티스쿨 지원단체 및 관련 기관의 연합체이다. 커뮤니티스쿨의 효과와 발전방법을 연구하고,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연방과 주 정부의 지원정책도 연구하고 있다. 빈곤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The Children's Aid Society는 1992년 뉴욕시교육청과 함께 커뮤니티스쿨 프로젝트를 시작한 곳이다. 일반학교가 커뮤니티스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파트너를 주선하고 컨설팅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체코 등에 걸쳐 1만5천 개의 커뮤니티스쿨 설립을 지원해 왔다. 이 밖에도 예일대학에서 만든 Schools of 21th Century는 미국 전역 1,300여 개의 커뮤니티스쿨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스쿨의 효과와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이은경, 2015).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은 각 지역, 환경,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 있는 Hamton Year Round Elementary School의 경우,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방과 후에는 읽기, 과학, 컴퓨터, 예술, 재활용클럽을 운영한다. 또한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하는 ‘책과 아침식사 클럽’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버지니아 주, 세인트폴 지역의 St. Paul High School의 경우, 지역의 습지지역의 생태에 관한 수업을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학생들은 수질과 대기질,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배웠다.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습지생태에 대해 배우고, 직접 산책길도 만들었다. 아이들의 활동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배움 센터’를 만들어 펀딩 제안서도 쓰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발표도 하고, 지역대학과 파트너십도 맺었다.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리학습의 성취와 더불어 읽기와 쓰기, 나아가 사회성의 발달에도 큰 향상을 보였다고 한다(이은경, 2015).

학교의 핵심 교과과정과 결합하여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킨 사례도 있다. 오클라호마주 툄사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인 Roy Clark Elementary School은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꿀벌은 어디에 있나?’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에 꿀벌이 감소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조사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용 비디오를 찍기도 했다. 더 나아가 직접 정원을 만들어 벌을 치는 활동도 했다. 아이들이 참여한 지역 비즈니스로 7개의 커뮤니티 기금이 만들어지고, 디즈니의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디즈니 플래닛 챌린지’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 밖에도 오클라호마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가족과 아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빈곤율이 높고, 건강지수가 낮으며, 전체의 절반이 넘는 한부모 가정 등의 열악한 환경인 이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가 교육을 전담한다는 전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마을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인력, 재원을 네트워크 하여 학교가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전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스쿨 활동은 경계를 넘는 배움이 학교 안과 밖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를 둘러싼 지역과 사회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여 교육에 연결하는 모습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제4절 소결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해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학교와 마을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마을주민, 마을의 결사체들이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적 목적, 교육적 내용,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마을교육공동체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교육청 등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학교, 교육마을, 지역교육공동체, 지역사회학교, 교육생태마을 등에 대한 용어를 검토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법률, 조례 등을 검토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책동향을 충청남도, 경기도,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충청남도는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행복공감학교, 행복교육지구, 교육청 주관으로 행복나눔학교사업, 충청남도교육청과 3개시(아산시, 논산시, 당진시)가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사업, 충청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혁신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 꿈의 학교를 통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사례로는 교육복지형과 마을학교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복지형은 다시 도시부와 농촌부, 마을학교형은 학습마을과 마을공동체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교육이 중심 개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운동주체, 외부의 개입정도 등에서 약간의 차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외국사례로 덴마크에프터스쿨, 일본과 미국의 커뮤니티스쿨 등을 살펴본 결과 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지역사회)과 학교가 긴밀히 연대하는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점이 우리 나라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을 것으로 보였다.

선행연구검토 결과 학교중심의 학습공동체, 특정지역의 학교와 지역의 협력관계와 학습에 대해 연구하여 교육공동체의 발전가능성탐구, 기관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다양한 유사사례 연구, 마을교육공동체를 평생교육적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연구는 김신일(1998)

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의 교육에 대한 학교중심의 교육운동과 주민 자신들을 위한 평생학습차원에서의 교육운동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마을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선행연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연구라는 점, 그리고 충남의 마을단위를 사례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제3장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실태분석

제1절 분석의 틀

마을교육공동체 실태분석을 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어떤 주체가 주도하고 있는 가이고,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관점이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주체는 서용선 외(2015)가 학교주도형, 마을주도형(학부모 및 지역포함), 센터주도형(지자체/교육청/지역운영)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박경민(2015)은 학교주도, 마을주도, 중간지원조직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활동 내용은 서용선 외(2015)가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의 원리와 요소들을 특성(재원, 진행, 리더), 방법론(계기, 프로그램), 성과, 한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박경민(2015)은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의 핵심요소를 교육프로그램, 공간, 관계망 형성 등 3가지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양병찬(2016)은 세종시 마을교육공동체 연구에서 지역성, 공동학습성, 실천성, 자발성, 민주성을 운영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김종선·이희수(2015)는 마을학교의 개념적 구성요소로 주체, 공간, 목적, 활동의 네 가지, 마을학교를 움직이는 핵심요소로 주민의 학습하기, 관계맺기, 참여하기로 구분하여 마을학교를 개념지도화 하였다.

〈표 3-1〉 마을교육공동체 분석유형

구 분		유 형
활동 주체	서용선 외(2015)	학교주도형, 마을주도형(학부모 및 지역포함), 센터주도형(지자체/교육청/지역운영)
	박경민(2015)	학교주도, 마을주도, 중간지원조직 주도
	서용선 외(2015)	특성(자원, 진행, 리더), 방법론(계기, 프로그램), 성과, 한계
활동 내용	박경민(2015)	교육프로그램, 공간, 관계망 형성
	양병찬(2016)	지역성, 공동학습성, 실천성, 자발성, 민주성
	김종선·이희수(2015)	개념적 구성요소(주체, 공간, 목적, 활동), 핵심요소(주민의 학습하기, 관계맺기, 참여하기)

이러한 분석유형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우선, 박경민(2015)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충청남도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주체를 학교주도, 마을주도, 중간지원조직 주도 등 3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김종선·이희수(2015)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홍성군 홍동면과 아산시 송악면을 사례지역으로 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내용을 목적, 주체, 공간, 활동내용, 네트워크 등의 항목을 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3-2〉 마을교육공동체의 분석틀

구 분	분석항목
목 적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마을교육공동체의 지향점)
주 체	교육주체(학습자, 교수자), 운영주체(주체를 어떻게 형성)
공 간	교육공간(공간의 기능)
활 동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동내용(활동을 통한 성과)
네트워크	네트워크/관계망, 유기적 협력체계

출처 : 김종선 · 이희수. 2015. 개념지도에 근거한 마을학교 정체성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Vol.21, No2., p.86에 기초하여, 필자가 보완하여 작성.

제2절 활동주체에 따른 충남마을교육공동체 분석

1. 학교주도형

학교주도형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학교가 주도하는 유형이다. 마을교육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 속에서 마을을 위하여 그리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사례들이다. 학교프로그램에 마을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학생들이 마을속(시장, 자연, 문화공간, 공공기관, 주민 등)에서 그들의 배움을 심화시켜 나가는 유형이다. 충청남도에서 이 유형의 마을교육공동체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전공부, 거산초등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남 행복공감학교로 선정된 20개 학교들도 이 유형에 속한다.

1)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충남 홍성군 홍동면은 전국적으로 농촌경제·교육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들 중 하나로서 최근 농촌지역개발, 대안교육, 농촌학교 등의 모델지력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홍동면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은 50년전 농촌과 농업의 시대적 위기상황을 예견하고 이를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풀어나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이다.

풀무학교는 1958년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세워진 학교로 ‘더불어 사는 평민’이라는 교육으로 기독교교육, 농민교육,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을 교육실천의 원리로 삼고 있다. 풀무의 교육은 그 출발부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역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초창기부터 학교는 지역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는 지역과 협력해야 하며, 지역의 자원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풀무학교의 이러한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학교구성원들이 강조하는 ‘지역이 학교이고, 학교가 지역’이라는 이념이다. 이러한 교육관을 바탕으로 풀무학교는 초창기부터 지역사회와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연계사업을 해왔고, 시작은 학교에서 하고 자립단계가 되면 지역으

로 내보내는 형식을 취한다. 실제로 현재 흥동지역의 생산, 가공, 소비유통, 교육, 문화, 환경,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의 주요한 많은 사업들이 그 시작은 풀무학교에서의 작은 실험들이 뿌리가 되어 출발하였고, 지금은 흥동지역의 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단체와 기관으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에서 졸업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¹⁾

2001년 개교한 풀무학교의 2년제 연장과정인 풀무학교 전공부는 ‘지역에 뿌리내리는 평민대학’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생태농업 전문역량을 육성하는 활로를 찾고자 개설되었다. 풀무학교전공부는 지역주민과 교류를 중시한다. 학교의 모든 강좌는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이 현장 교수가 되고 주민이 학생이 되어 평생 지역교육을 실현하는 풀뿌리 주민대학을 지향한다. 풀무학교의 지역과의 협력은 지역 전체의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을 확산시켰다.

흥동지역에는 풀무학교와 풀무학교 전공부 이외에도,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햇살배움터네트워크, 논배미, 꿈이자라는 뜰, 갯골어린이집, 갯골목공실, 교육농연구소, 생각과 실천창작소, 흥동밖담도서관, 흥성환경농업교육관 등 다양한 마을교육관련 단체들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확산해가고 있다.

2)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전공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설립에 관한 논의는 무려 15년을 끌었으며, 2001년 3월 28일에 개교하게 되었다. 원래 계획은 그보다 한 해 전에 개교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러 모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늦어진 것이다. 학교의 모양새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것은 첫 졸업생(창업생)이 배출되고 난 2003년 1학기 무렵이었다.

전공부라는 학제는 교육부 법령상 농업고등기술학교는 그와 같은 교육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된 것이다.²²⁾ 이를 정확하게 말하면, 1992년 교육부는 풀무학교의 건의를 받아들여 “농업고등기술학교에 전문 과정 2년을 둘 수 있도록 (중략) 교육과정을 개정했으므로 교사 확보, 본관 건축 등 여건만 갖추면 전공부설치의 길이 열렸다.”²³⁾

21) 양병찬(2008). 농촌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충남 흥동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연구. 13(3).

22) 이러한 점은 홍순명, <한국 풀무 전공부의 실천과 비전>, <<지역과 학교>>, 제16호(2009년 7월), 8-20쪽을 참조할 것. 이 글의 내용은 본래 2009년 1월 31일 일본 애농회 전국대회에서 홍순명이 발표한 것이었다.

23) 홍순명(1992). 가장 큰 선물, 92년 크리스마스에, 풀무, 제124호.

당시에는 이미 갯골에서 전공부로 올라가는 길도 닦였다. 전공부 본관도 모양을 갖춰 교실 두 개와 도서실, 직원실이 마련되었다. 이와 별도로 남녀기숙사와 식당도 운영되었다. 당시 전공부에는 여덟 명의 정식 직원이 근무하였다. 이밖에도 학교의 업무를 돕는 이가 네 명이나 되어 총 12명이 전공부를 이끌었다. 그러나 전공부의 개교 당시에는 이와 같은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였다.

아무래도 전공부의 교육은 실습 위주가 되었다. 그러나 실업계 전문대학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인문과목이 설강되었다. 처음부터 늘 그랬다. 결과적으로, 강사에 의존하는 학과목이 많아졌다. 지난 10년 동안 이것은 전공부의 중요한 특색으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전공부의 학생 수는 들쭉날쭉 했다. 2002년 신입생은 10명이었지만, 그 이듬해인 2003년에는 3명에 불과하였다. 학생들은 연령층도 다양하고 학력이나 출신지역도 모두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부가 언제나 결속력 있는 공동체를 유지해 왔다.

재정도 늘 부족했지만, 그로 인해 전공부의 활동이 위축된 적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학교부지며, 실습지, 교직원 급료 조달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전공부는 생명과 평화의 정신을 체득하고 인문정신을 함양하여, 자급적 생태공동체를 건설하는 역군을 기르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이 학교는 흥동지역과 불가분의 관계일 뿐 아니라 국내외의 뜻있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학교마을” 공동체인 전공부는 학생, 교사가 공동으로 논 10,000여 평, 밭 5,000여 평, 도합 1만 5천여 평의 농지를 공동 경작한다. 이 공동체는 논농사에서 공동 생산한 쌀로 식량을 자급하고, 남은 것을 외부에 판매하여 실습비용을 충당한다. 밭농사는 규모가 작아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의 전량이 전공부 식당에서 소비된다. 예외적인 것은 밀농사 2,000여 평이다. 수확된 밀은 학교생협에서 판매하는 제빵 원료로 충당된다.²⁴⁾

전공부는 출발부터 흥동지역공동체 속의 학교, 국내외의 뜻있는 개인 및 단체와 연대하는 교육기관을 지향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일을 가장 많이 한 이는 홍순명이지만, 2003년경부터는 장길섭 역시 지역 일을 많이 하였다. 그는 풀무생협 이사도 하였고, 농협에도 관여했다.

24) 장길섭, 전공부 농업실습 10년을 돌아보며.

3) 거산초등학교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거산초등학교는 1935년 개교하였으나, 학생수 감소로 1992년 분교장으로 격하되었고, 학교폐지가 추진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1999년도 통폐합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으나 폐교위기는 상존하였다. 2001년도 아산 지역한국글쓰기연구회에서 시작한 공교육 내 대안 학교 모색을 위한 지역주민·학부모와 교사들의 교육공동체가 형성되어 그 대상학교로 거산초등학교를 선정하고 2002. 2 천안 및 아산시내 학생 96명을 전학시켜 도농통합에 의하여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2005년도 본교로 승격하였다. 25)

이후 학생중심 학교운영·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기존 학교와는 다른 학교운영 방식과 교육방법으로 새로운 농촌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학생의 통합교육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도농지역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거산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교육주체간 참여와 역할분담이다. 교사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의 대소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자발성과 능동성을 바탕으로 일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부모들은 기존의 지원자적 배치의 한계를 벗어나 학교교육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참여하는 주체로 서고 있다.

둘째, 농촌 지역사회활성화로 연결되고 있다. 거산초등학교는 지역사회의 피폐화·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집중화 현상 속에서도 거산초등학교 학구 내에는 오히려 지역으로의 이주 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산지역으로의 이주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과 인간다운 교육에 대한 열망의 분출에 보다 더 가깝다. 농촌의 작은 시골마을이 터 잡고 살만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 웃음소리가 끊긴지 오래인 농촌지역 사회의 부활로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셋째,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있다. 거산초등학교는 지역사회 자원·개별전문가·민간단체·공공기관과의 연결망을 형성하여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교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으로 넓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25) 박계식(2007).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소규모학교 발전 가능성 모색: 충남 아산 거산초등학교 폐교위기 극복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거산의 색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중심화 된 사유와 동일성의 논리를 거부하고, 학교너머의 외부와 두려움 없이 접촉하고 자기 확장과 혁신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산은 공교육의 경계를 넘어선 학교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혼자 결정하고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따라가는 상명하달의 학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교육적 사유와 철학이 만나고 다양한 복수적 욕망이 분출되고 끊어 넘쳐 새로운 삶의 감각을 가지게 하는 용광로 같은 학교다. 그리하여 얇보다는 삶, 경쟁보다는 공동체 정신, 교사 주도보다는 학생주도, 통제보다는 자율의 힘이 살아있는 대안적 교육실천의 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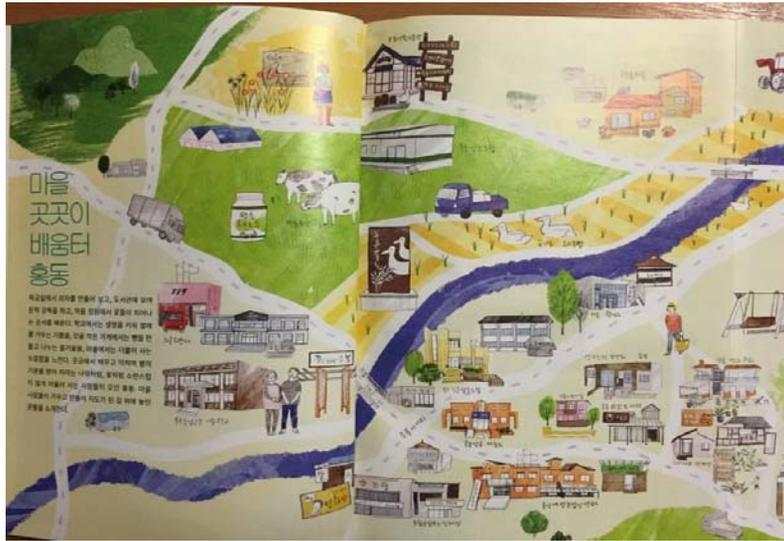
2. 마을주도형

마을주도형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마을이 주도하는 유형이다. 주로 학부모 모임이나 지역사회에서 교육적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체교육, 방과후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충청남도에서 이 유형의 마을교육공동체는 홍동면, 송악면 등이 대표적이다.

1) 홍동면 마을교육공동체

홍동면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내 교육관련 다양한 단체와 모임, 도서관, 학부모 등이 주도하고 있다. 홍동면의 마을교육관련 기관단체는 풀무학교, 풀무학교전공부, 홍동초등학교, 홍동중학교, 금당초등학교, 갓골어린이집과 같은 정규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마을통신 발간, 마실이학교 운영, 마을발표회 개최, 지역인재 및 조직발굴지원 등 홍동마을의 중간지원조직기능을 수행하는 마을활력소, 마을내 다양한 행사개최 및 마을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밝맑도서관, 마을과 학교가 서로 돕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교육을 주도하는 햇살배움터 네트워크 등이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갓골목공실, 교육농연구소, 꿈이 자라는 뜰, 논배미, 생각실천창작소, 홍성환경농업교육관, 씨앗도서관, 홍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그물코출판사 등과 같은 교육관련 단체, 풀무신평, 홍동농협, 풀무학교생협과 같은 협동조합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3-1) 마을 곳곳이 배움터 흥동

2) 송악면 마을교육공동체

송악면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내 교육기관, 종교기관,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들이 주도하고 있다. 송악면의 마을교육기관단체는 송남초등학교, 송남중학교, 거산초등학교와 같은 정규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송악교회,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열린공간 놀다가게, 학부모 모임인 아버지모임 등이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송남초등학교 도서관인 ‘솔향글누리’는 단순히 학교도서관이 아니라 마을주민 및 학부모들의 문화공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적정기술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송악에너지공방, 로컬푸드 및 친환경 꾸러미를 표방하는 ‘고랑이랑’ 등의 협동조합도 마을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0년 출범한 ‘송악희망교육네트워크’, 마을주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송악마을골목예술제(송악놀장, 연극제, 열씨구 공연마당, 골목골목 미술제)’, 면내 송학초, 거산초, 송남중 학부모가 의기투합하여 송악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송악희망장학금 마련을 위한 먹거리 장터 행사 등 역시 학교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만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의 장이다.



3.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중간지원조직주도형은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을 중간지원조직이 주도하는 유형이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위해 중간지원조직²⁶⁾은 상담과 조언, 인재육성 및 확보, 재정 및 경영지원,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교육청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관련 센터, 도서관과 같이 관에서 운영하는 공설공영형 및 공설민영형 중간지원조직뿐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을 기획 및 주도하고 있는 재단, 단체 등과 같은 민설민영형 중간지원조직을 포함한다.

충청남도에서 이 유형의 마을교육공동체는 충남교육연구소, 햇살배움터네트워크 등이 있다.

1) 충남교육연구소

충남교육연구소는 충남지역 교수와 교사가 중심이 되어 2000년 9월 ‘교육 및 교육주체 정체성 재정립, 연구실천 역량조직 및 영속적 활동틀 마련, 지역단위 연구실천센터 기능, 교육운동 연대강화’ 라는 창립취지를 내걸고 창립된 민간 교육연구실천 단체이다. 2002년 2월 충청남도교육청 허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2002년 3월 충청남도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26) 중간지원조직이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 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이다.(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2011, p.18.)

등록하였다. 2010년 5월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충남지역 교육분야 제1호 사회적기업이기도 하다.

충남교육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촌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충남교육연구소에서 소통의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주민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충남교육연구소와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은 큰 소득이다. 지역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마련한 것 또한 큰 소득이다. 그 결과 지역에서는 공동체를 재생하는 관점에서 농촌을 보게 되었고, 학교와 소통하게 되었으며, 주체적인 활동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²⁷⁾

충남교육연구소의 활동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째, 지역과 공동체의 재생이다. 지역교육활성화는 학교교육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교육문제의 원인이 지역사회의 문제와 지역공동체의 붕괴에서 비롯된 만큼 지역교육문제의 해결 또는 지역과 공동체의 재생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역교육문제는 지역과는 유리된 채 학교교육에서만 그 해답을 찾곤 했다. 교육의 문제는 우리사회, 우리지역의 총체적인 불평등구조 속에서 나타난 문제다. 따라서 지역교육의 문제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전체가 함께 교육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학생 및 주민, 지역학교와의 연계,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켜온 충남교육연구소의 지역교육공동체 활동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이다. 인적, 물적자원이 도시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교육현장 일수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충남교육공동체 활동은 지역속에서 지역교사와 지역민, 지역사회와 지역학교가 힘을 합쳐 교육활동에 필요한 곳에 적절한 교육인력을 배치하고, 또 그 인력이 적절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작업, 즉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을 통해 지역교육의 희망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교육희망찾기’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²⁸⁾

충남교육연구소 활동추진동력은 다음 여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소 회원 교수 및 교사들의 교육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농촌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교육역량과 진정성을 가진 교사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할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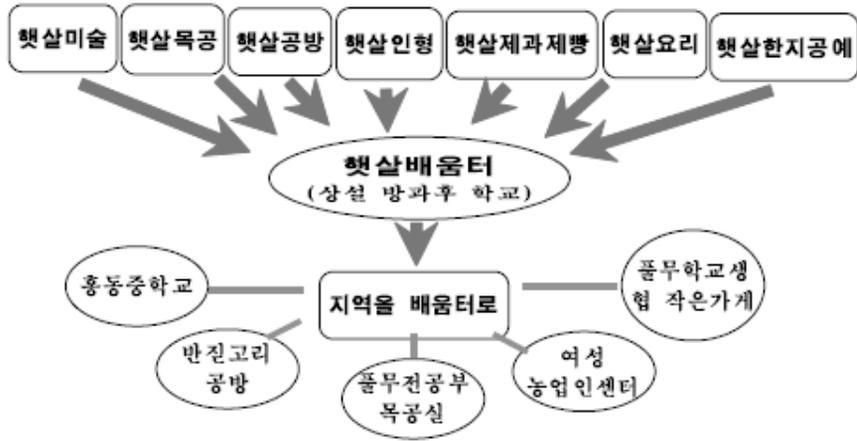
27) 윤여각 외(2013). “농촌교육공동체와 지역교육력 강화: 충남교육연구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평생교육 사례와 과제. 에피스테메.

28) 강윤정 외(2015). “마을이 성장시키는 학교,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사회적경제의 발전. 포도밭.

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농촌의 교육문제를 누구보다 많이 겪어온 ‘농촌’ 교사들이기에 농촌 문제의 해결은 곧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주체의식이 다양한 형태의 참여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교육활동을 통한 다양한 교육연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만남, 학교와의 연계활동, 대학의 연구역량과의 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활동이 교육을 통한 지역의 재생과 교육연계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촌주민의 삶과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촌교육문제를 풀어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다는 점이다. 지역의 일원으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려는 노력이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하는 동력인 것이다. 넷째,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정부나 기업 등의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간 적극성이다. 다섯째, 지역의 문제 속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폐교공간을 지역주민의 교육활동 장소로 개방하여 공간의 이점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해 나갔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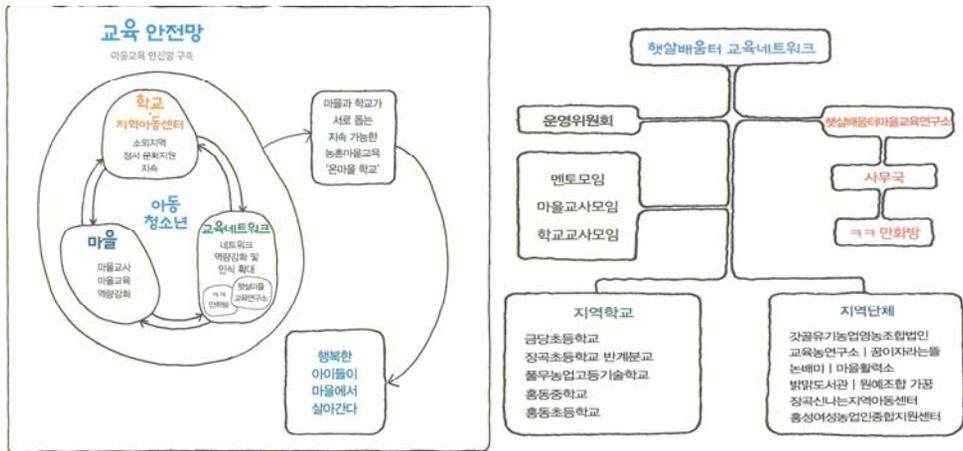
2) 햇살배움터네트워크

햇살배움터는 홍동-장곡지역의 배움터와 일터가 힘을 모아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교육 네트워크이다. 2007년부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현,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 홍동중학교와 홍동초등학교가 전원학교로 선정되어, 홍동지역의 지원사업은 줄이고, 장곡지역에 반계분교, 오서분교(현재 폐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2년부터는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라는 이름으로 삼성꿈장학재단 지역네트워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홍동범교과 교육과정연구회’ 와 마을교사, 홍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의 역량이 모여 가능한 일이었다. 2014년에는 청소년거점공간 ‘ㅋㅋ만화방’ 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그림 3-2) 햇살배움터(주말방과후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 마을에서 살아간다’ 는 비전을 가지고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과 지역의 후원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27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마을교사역량강화, 마을교육안전망 구축, 마을작업장학교를 통한 진로탐색, 농촌 소외지역 문화정서지원, 네트워크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3)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제3절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사례분석

1. 송악마을교육공동체

1) 송악마을 현황

아산시 송악면은 아산시 최남단에 위치하여, 공주시와 예산군과 접해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총면적 6,219ha 중 84%인 4,606ha가 해발 110~430m에 이르는 임야이고 농지가 943ha이다. 송악면은 아산시에서 면적이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016년 7월 현재 4,225명으로 가장 적다. 그러나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폐교위기에 있는 농촌학교를 이용한 최초의 전원형 작은 학교(거산초등학교)와 송남초, 송남중학교, 서남대학교가 입지하고 있다. 외암리민속마을과 송악저수지 등이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민물가재가 있고 반딧불이 밤이면 마을을 밝혀주는 오염되지 않은 환경이 보존되고 있는 지역으로 외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아산시홈페이지, <http://town.asan.go.kr/songak/>).

〈표 3-3〉 송악마을 교육관련 조직 및 주요행사

구분	교육관련 조직 및 단체
주요조직 및 단체	송악골어린이집, 송남초등학교, 거산초등학교, 송남중학교 솔향글누리도서관(학교 및 마을이 함께운영하는 도서관)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한부모,조손가정을 위한 아동돌봄기관) 송악교회(송악면 종교기관) 송악동네사람들(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놀다가게(마을카페) 아빠모임(세 학교 아버지 모임) 송악희망교육네트워크(교육을 위한 마을주민모임)
주요행사 및 미디어	송악희망장학금 마련 먹을 거리장터(아빠모임이 개최하는 행사) 송악마을골목예술제(아빠모임, 역촌리에서 개최하는 마을축제) 송악마을교육신문(마을교육관련 신문)

2) 마을내 교육관련 조직 및 단체

(1) 송악골 어린이집

1991년 ‘사랑선교원’ 으로 세운 교회부설 유아교육기관을 ‘송악골어린이집’ 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의 기독교정신과 ‘어린이중심’ 의 아동복지정신, ‘자연과 더불어’ 의 생태적 감성교육정신으로 교육한다. 원훈은 천국의 씨앗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아교육프로그램으로 4세 늘기뽀반, 5세 즐거운반, 6-7세 행복한 반이 있고,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공부방이 있으며 예능교육으로 피아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생태유아교육’ 은 지역의 청정자연 속에서 자연을 닮은 교육을 하는 것이다. 개울에 나가 물놀이하고, 논두렁에 나가 뛰어놀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바람과 동물과 나무와 꽃을 느끼게 하고, 모든 교육을 생태중심의 감성교육으로 한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전문화되고 세련된 교육과정(프로젝트 접근법, 절기와 민속세시풍속을 활용한 과정)을 통해 생태유아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



자료 : 송악골어린이집 카페(cafe.daum.net/songarkgolkd)

(2) 송남초등학교

송남초등학교는 1924년 송남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950년 송남국민학교로 개칭되었고, 1996년 송남초등학교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6년 현재 초등학생 231명, 유치원생 17명이 재학중이고, 졸업생수는 5,790명이다.

송남초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자율과 창의가 꽃피는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 이고, 교육방향은 감성과 창의성 함양, 문화예술집중 학습,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학년별 주제체험학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마을학습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내에는 학교도서관 및 마을문화공간인 “솔향글누리도서관” 이 위치하고 있다.

〈표 3-4〉 송남초등학교 교육방향

구 분	내 용
감성과 창의성 함양 문화예술 집중학습	자율성과 협력성을 키워 나가며, 전문성과 집중성의 효과를 살려 꿈과 기를 키우는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신장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학년별 주제체험 학습	1학년 : 숲과 친해지기, 2학년 : 숲알아보기 3학년 : 텃밭교육, 4학년 : 수서생태 5학년 : 원예교육, 6학년 : 논생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마을학습	마을의 모든 자원을 학교교육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며, 마을과 학교가 서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형성 지향

자료: 송남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ongname.cnees.kr/>). 2016년 8월 11일 접속.

(3) 거산초등학교

거산초등학교는 1935년 송남보통학교 부설 간이학교로 인가받아, 1992년 송남초등학교 거산분교로 격하되었고, 2005년 거산초등학교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거산초등학교의 학교장 경영의지는 “꿈을 키우는 거산 교육”이며, 거산이 꿈꾸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 자율과 나눔을 삶의 바탕으로 삼는 학교)를 학교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거산초등학교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 일과 삶이 하나 되는 학교, 자율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학교 등을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5〉 거산초등학교 교육내용

구 분	내 용
작고아름다운 학교 (환경생태, 학생중심의 학교만들기)	둘레환경을 활용한 농촌학교의 가능성 주체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간적 규모의 학교 학생을 중심에 둔 학교운영 교수학습공동체
맑고 삶이 하나되는 학교 (체험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운영)	창의적인 학사일정 지역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학습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예술활동문학 영역
자율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학교 (모두의 참여로 만드는 새학교문화)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학교운영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자료: 거산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keosan.cnees.kr/>). 2016년 8월 11일 접속.

거산초등학교는 1935년 개교하였으나, 학생수 감소로 1992년 분교장으로 격하되었고, 학교폐지가 추진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1999년도 통폐합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으나 폐교위기는 상존하였다. 2001년도 아산 지역한국글쓰기연구회에서 시작한 공교육 내 대안 학교 모색을 위한 지역주민·학부모와 교사들의 교육공동체가 형성되어 그 대상학교로 거산초등학교를 선정하고 2002. 2 천안 및 아산시내 학생 96명을 전학시켜 도농통합에 의하여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2005년도 본교로 승격하였다.²⁹⁾

이후 학생중심 학교운영·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기존 학교와는 다른 학교운영 방식과 교육방법으로 새로운 농촌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학생의 통합교육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도농지역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거산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교육주체간 참여와 역할분담이다. 교사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의 대소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자발성과 능동성을 바탕으로 일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부모들은 기존의 지원자적 배치의 한계를 벗어나 학교교육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참여하는 주체로 서고 있다.

29) 박계식(2007).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소규모학교 발전 가능성 모색: 충남 아산 거산초등학교 폐교위기 극복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둘째, 농촌 지역사회활성화로 연결되고 있다. 거산초등학교는 지역사회의 폐쇄화·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집중화 현상 속에서도 거산초등학교 학구 내에는 오히려 지역으로의 이주 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산지역으로의 이주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과 인간다운 교육에 대한 열망의 분출에 보다 더 가깝다. 농촌의 작은 시골마을이 터 잡고 살만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 웃음소리가 끊긴지 오래인 농촌지역 사회의 부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셋째,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있다. 거산초등학교는 지역사회 자원·개발전문가·민간단체·공공기관과의 연결망을 형성하여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교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으로 넓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산의 색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중심화된 사유와 동일성의 논리를 거부하고, 학교너머의 외부와 두려움 없이 접속하고 자기 확장과 혁신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산은 공교육의 경계를 넘어선 학교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혼자 결정하고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따라가는 상명하달의 학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교육적 사유와 철학이 만나고 다양한 복수적 욕망이 분출되고 뚫어 넘쳐 새로운 삶의 감각을 가지게 하는 용광로 같은 학교다. 그리하여 얕 보다는 삶, 경쟁보다는 공동체 정신, 교사 주도보다는 학생주도, 통제보다는 자율의 힘이 살아있는 대안적 교육실천의 학교이다.

(4) 송남중학교

송남중학교는 송악면 역촌리에 1971년 설립 및 개교하여 2016년 현재 121명이 재학중이며, 총 4,0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송남중학교는 “배움의 희열과 동행의 기쁨을 키워주는 행복 송남교육” 을 모토로 5개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교육목표의 핵심은 공동체의식, 도전의식과 창의성, 심신의 건강성, 자기주도적 학습 및 진로개척, 문화예술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송남중학교는 그동안 육설없는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사교육 없는 방과후교육,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여름꿈사다리학교 등을 운영해 왔다.

학교 교육목표

배움의 **희열**과 동행의 **기쁨**을 키워주는 **행복 송남 교육**

교육 목표

- 예의바르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의식이 강한 학생
- 진취적이며 도전의식과 창의성을 갖춘 학생
-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추구하는 건강한 학생
-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
- 문화에 대한 감성과 예술적 교양을 갖춘 학생

역점 사업

- STP 동행 프로젝트를 통한 참인성 가꾸기
- 내 꿈 가꿈 행복디자인 자유학기제 프로젝트

특색 사업

-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는 다모임 학생회의

자료: 송남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asansongnam.cnems.kr/>). 2016년 8월 11일 접속.

학교 송남초등학교 / 거산초등학교 / 송남중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꿈꾸다!!!

↓

"마을이 학교다"

학교를 중심에 두는 지역사회

찾아오는 농촌 학교 만들기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만들기

자료: 홍승미(2016). 더불어 함께하는 재미난 마을살이를 꿈꾸는 송악마을교육공동체. 2016 충남 평생교육성과공유 연수 자료집.

(5) 솔향글누리도서관

솔향글누리도서관은 송남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나, 송악마을의 독서, 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2006년 솔향글누리도서관이 개관하였으며, 도서대출업무뿐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 아빠들과 함께하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캠프’, 학부모 및 마을주민의 도서관활동 등 마을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3-6〉 송남초등학교 솔향글누리 도서관 활동 소개

구 분	내 용
아이들의 꿈을 키워 주기위한 활동	작가와의 만남, 재미난 옛이야기 듣기, 북아트, 영화상영, 도서관장터 운영
아빠들과 함께 하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캠프	송남초 아빠들이 주관하고 도서관 후원회가 후원 노래, 악기공연, 작가와의 만남, 영화, 이야기나누기 등 1년에 한번 아빠들이 진행하는 캠프
학부모와 마을주민의 도서관 활동	각부모 사서지원단, 그림책 읽는 학부모모임,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함께 교육영상 모임

자료: 송남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ongname.cnees.kr>)와 솔향글누리도서관 소개팸플렛.

(6) 송악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송악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어리이들과 청소년들을 돌보는 시설이다. 가정사정으로 인해 방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쉬며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마을 학교이기도 하고 따뜻한 집이기도 하다. 농촌지역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은 아이들에게 특별활동, 견학, 기행, 캠프 등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송악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10여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를 꾸리고 지역민들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다. 마을회관을 빌려 공간을 쓰게 되었고 현재 송악마을 노인회관으로 옮겨 세 명의 교사와 26여명의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 2011년 그동안 졸업했던 청소년들과 송악마을 청소년 연극단을 만들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지역과 센터가 다양한 멘토, 자원봉사로 협력하여 함께 하고 있다.



〈표 3-7〉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보호프로그램	급식(매일 저녁급식 제공), 생활지도, 안전교육
교육프로그램	학습지도(방과후 학습지도, 학습부진지도), 특기적성지도(예체능 지도, 독서지도), 음악동아리(기타, 드럼 등)
문화프로그램지도	도자기만들기 체험, 온양민속박물관 체험프로그램, 반짝반짝 반딧불이 보러가기, 당림미술과 미술체험, 반딧불이 여름 별밤 캠프
복지프로그램	부모교육, 운영이사회(지역주민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어린이난 큰잔치 ‘친구야 사랑해’, 부모자녀 정서지원프로그램, 손모심기와 단오축제, 장애친구들과 함께한 통합캠프

(7) 송악교회

송악교회는 1980년대 초부터 농촌선교에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지역신협운동, 기독교농민운동,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농촌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1997년 송악면 역촌리에 나무건물을 짓고, 유아보육, 방과후 아동공부방, 예능교육과 지역 사회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8년에는 ‘친환경생명농업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농민선교위원회’를 조직했다. 농민선교위원회는 2000년 2월 지역내 농민들과 함께 ‘송악동네친환경 농사연구회’를 창립하여 한살림 생산자조직과 연결되면서 ‘한살림송악면지회’를 창립하고, 도시소비자와 농민생산자의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가을 추수철에는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하여 ‘메뚜기잡기와 추수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여름밤에는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이중명, 2012).



〈표 3-8〉 도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행 사	내 용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광덕산 야생화탐사, 계곡, 냇가 등 물속 생물 탐사, 논생태탐사, 송악저수지 철새탐사, 봄나물 채취, 여름밤 반딧불이 탐사
농사체험교육프로그램	친환경 논모내기, 논매기, 가을들판 메뚝 잡기와 추수체험, 고구마캐기, 밤줍기, 여름철 콩밭매기, 감따기 체험
농촌문화프로그램	친환경 논오리 넣기, 된장/간장 담기, 정월대보름 문화축제, 짚풀문화축제, 허수아비만들기 컨테스트, 농촌마을의 겨울놀이
체험관사업을 통한 사업	지역내 친환경농업 체험관을 통해 체류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자료: 이종명. 송악교회와 송악지역의 마을만들기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사업. p.153.

(8) 송악동네사람들(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은 2012년 “마을이 컨텐츠타” 강좌 개최, 2013년 마을의제 찾기 워크숍, 농어촌희망교육공동체사업진행(송악은마을교육공동체 : 마을이 학교다), 마을의제찾기 워크숍 개최, 협동조합 강좌, 2014년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시시콜콜’ 진행, 2015년 아산문화재단/아산YMCA의 창조마을사업 진행 등을 거쳐, 2015년 9월 준비모임을 결성하였다.

2016년 2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승인을 받았다. 송악동네사람들은 자조, 나눔연대, 공공성, 민주주의의 가치로, 조합원은 참여, 배움성장, 사회적책임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며, 마을안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 살림살이 공유, 자조자립의 마을경제, 조합원이 즐겁게 참여하고 성장하는 자치의 마을공동체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3-9〉 농어촌희망교육공동체 사업(2013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역		
	목적	기간	프로그램 내용
마을이공학교다	마을의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기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부여	7월 ~ 8월	- 학생들 사전 활동을 통하여 마을 직업 탐구계획서를 작성 - 희망직업군을 선정 - 3일~4일의 집중 직업체험활동후 멘토와 멘티의 관계유지 피드백
마을교사아카데미	온 마을이 교육의 장이 됨을 느끼고 기여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8월	- 마을교사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강사역할과 교육방침 협의
대안에너지학교	적정기술을 지역에 알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 제작	7월 ~ 10월	- 적정기술에 대한 이론강의 - 햇빛건조기, 온풍기, 고효율난로 제작
청소년마을학교-청소년인문학여행	내가 삶의 주인임을 여행을 통해 느낀다	6월~8월	청소년 스스로 여행을 기획하고 실천 해 내는 인문학 여행
청소년마을학교-마을어르신 자서전 만들기	지역어르신 자서전만들기를 통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애착을 높인다.	6월~10월	마을어르신 밀착 인터뷰를 토대로 자서전 만들기
청소년마을학교마을-마을신문	마을소식나눔을 통한 공동체 형성	6월~11월	마을교육 중심의 소식지를 마을신문으로 발행
송악청소년연극단	연극 활동을 통한 자기성찰과 자신감 향상	6월~11월	마을 내에 연극 멘토와 함께 연극을 배우기
송악청소년마을밴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6월~11월	기타, 키보드, 잼베 악기 배우기를 통한 어쿠스틱 밴드 결성
송악마을축제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어우러지는 대동의 장을 마련 공동체의식 함양	10월	학생, 지역주민, 초청공연과 대안에너지, 웹툰, 덧생 전시

송악동네사람들의 주요사업은 마을문화예술사업, 방과후 돌봄 및 마을교육사업, 교류협력 및 공정여행사업, 지역물품 공동구매 및 도소매업, 주민공공서 커뮤니티사업 등이다.

송악동네사람들의 사업목표는 마을공동체로 마을문화, 마을학습, 마을경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마을주민들 스스로의 힘과 창조성으로 만드는 마을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간다
- ‘마을에서 놀고 먹기’, ‘배움과 성장’, ‘참여와 자치’로 만드는 마을학습공동체를 지향한다
- ‘마을이 학교다’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마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삶을 배워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 마을안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 살림살이의 공유, 자조자립의 마을경제를 지향한다
- 우리 마을에 꼭 있었으면 하는 공동의 필요를 위해 스스로의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향한다

자료: 송악동네사람들 창립총회자료집, 2016.2.

송악동네사람들의 2016년 활동사업은 첫째, 마을에서 놀다, 마을공정여행, 둘째, 송악마을 골목예술제와 송악달장, 마을이 학교다. 마을언니에게 배우자 등 마을문화예술교육의 확산, 넷째, 지역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2016년 활동사업의 주요내용 및 계획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0〉 마을에서 놀다. 마을공정여행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단	시기 및 횟수
■ 공정여행	• 국내외 공정여행 사례 만들기	• 운영이사, 조합원, 공정여행 경험 개인과 단체	• 연중, 계절별 1 회 - 국내 3회 - 국외 1회
■ 마을공정여행 기획	• 송악의 역사문화, 생태, 사회적 경제 경험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마을공정 여행 기획 • 마을공정여행기획단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진행	• 운영이사, 조합원, 마을기업 담당자, 마을 모임	• 연중
■ 마을경제 시스템강화 프로그램 개발	• 마당, 마을 스테이, 마을공간, 체험마을, 로컬푸드, 에너지 공방, 가능한 개인 공간을 융합하여 마을경제를 잇는 프로그램 개발	• 운영이사, 조합원, 마을기업 담당자, 마을 모임, 개인	• 연중 - 상반기 탐방 2회 - 하반기 실행 발표

〈표 3-11〉 송악마을골목예술제와 송악달장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단	시기 및 횟수
■ 송악달장	• 마을 어르신들과 귀농, 귀촌인, 청소년과 어린이 등 마을 전 세대 간의 생활나눔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운영이사, 조합원, 마을이장, 마을 사무장	• 연중 - 4회
■ 송악마을골목 예술제	• 마을과 예술의 간극 메우기,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 발표	• 운영이사, 조합원, 마을 문화예술 모임, 청소년 모임, 송악 3개 학교	• 연중 - 4회

〈표 3-12〉 마을이 학교다. 마을언니에게 배우자 등 마을문화예술교육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단	시기 및 횟수
■ 문화예술교육 멘토-멘티 운영	• 품앗이, 지역화폐, 공유경제를 컨셉으로 문화예술 교육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운영이사, 조합원, 마을 문화예술 모임, 청소년 모임, 송악 3개 학교	• 연중
■ 마을 교육 지원 네트워크 발판 마련	• 마을 도서관과 마을센터 활성화 및 학교와 아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	• 운영이사, 조합원, 마을 문화예술 모임, 청소년 모임, 송악 3개 학교, 아버지 모임	• 연중
■ 마을 언니네 shop 운영	• 다양한 창작물 shop을 통한 나눔과 소통, 공유문화 형성	• 운영이사, 조합원,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	• 연중 상반기준비 하반기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 ① 마을에서의 배움과 나눔
다양한 문화의 힘을 지닌 마을사람들 스스로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함께 배웁니다.
'마을언니에게 배우자', '자연밥상', '인문학강조'
- ② '마을이 학교다'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마을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삶을 배워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아동청소년마을학교, 마을진로아카데미, 마을청년모임
- ③ 마을문화예술모임
마을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모임을 만들고 함께 합니다.
마을연극단 '우정공'(우리가 정말 공연할 수 있을까), 마을청소년밴드
- ④ 마을공정여행
마을공정여행은 관광과 소비가 아닌 사람의 관계망으로 함께 먹고, 놀고, 즐기는 따뜻한 여행입니다.
송악마을의 생태와 역사, 문화와 먹거리, 사람들을 즐겁게 만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습니다.
송악마을공정여행안내, 주제별 마을여행 기획, 마을탐방 및 캠프
- ⑤ 마을장터와 축제
시골농부, 요리사, 예술가가 함께하는 송악마을장과 마을예술제는 송악동네 재미난 삶을 공유하며 마을주민들 스스로의 힘과 창조성으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장입니다.
송악놀장(연4~6회), 송악마을예술제(10월)
- ⑥ 마을순환경제의 장
우리 마을에 꼭 있으면 하는 공동의 필요를 위해 스스로의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마을순환경제를 실험하고 만들어 갑니다.



마을에서 꿈꾸다!
참여, 자치, 협동으로 만드는
마을공동체



자료: 홍승미(2016). 더불어 함께하는 재미난 마을살이를 꿈꾸는 송악마을교육공동체. 2016 충남 평생교육성과공유 연수 자료집.

(9) 놀다가게

송남초등학교 건너편 송악면 우체국 옆에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이 운영하는 놀다가게가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열린공간으로 누구나 오고가다 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차를 판매하고, shop in shop인 언니네 가게(수공예품, 먹거리 등 주민들이 생산한 제품 판매) 뿐 아니라, 마을배움터, 모임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열린카페로 누구나 오고가다 쉬며 차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열린공간이다. 조합원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 공간을 지키며 무인카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마을shop으로 놀다가게 한편에 서로가 가진 물품들, 직접 만든 수공예품, 먹거리, 아나바다 물품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을SHOP 코너가 설치되어 있다. 송악동네사람들이 서로의 재주와 살림살이들을 공유하는 나눔터이다.

셋째, 마을배움터로 마을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마을배움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모임방으로 저녁과 주말에는 놀다가게를 송악동네 모임의 모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출처 : 충남 사회적경제 따숨 블로그.

(10) 아빠모임

송악마을내 아빠모임은 송남초, 거산초, 송남중학교 등에 조직되어 있다. 송남초 아버지도움이 주관하는 ‘아빠와 1박2일’ 행사는 이 학교 도서관에서 책, 영화, 만화, 작은공연, 낭독, 별관찰, 작가와의 만남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이들을 책방, 만화방, 영화방, 소통방으로 나뉘어진 작은 공간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아빠와 함께 1박2일을 보내는 색다른 경험을 한다. 또한, 세 학교 아빠모임은 2014년부터 희망장학금 모금을 위한 먹거리 장터를 개최해 왔다.

아빠랑 캠핑 / 학년별캠핑 / 다함께캠핑



자료: 홍승미(2016). 더불어 함께하는 재미난 마을살이를 꿈꾸는 송악마을교육공동체. 2016 충남 평생교육성과공유 연수 자료집.

(11) 송악희망교육네트워크

아산 송악면에서는 2001년 거산초교를 시작으로 교육혁신이 진행됐다. 전원형 작은 학교로 다시 태어나 주목 받기 시작했다. 같은 면의 송남초교와 송남중학교도 동참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기 위해 ‘송악희망교육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송악면 소재 학교교사·학부모는 물론이고 주민·시민단체를 총망라했다. 모두들 “지역의 희망은 교육”이라는 데 공감했다.

학생들은 즐겁게 공부하고, 교사들은 교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신나게 가르치고, 학부모는 학

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해 교사와 협력하는 배움공동체가 되는것에 최종목표를 두고 있다.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 방향은 지역교육포럼을 통한 교육문제 공유, 주민 교육요구 수렴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 교육예산 확보, 다양한 캠페인:책 읽는 가정, 학원대신 도서관 보내기, 체험 캠프 및 독서클럽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문화센터 혹은 교육·문화·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이다.

송악희망교육네트워크

1. 목적

송악지역은 광덕산을 중심으로 송악저수지, 외암민속마을, 봉곡사, 평촌뜰 등 산과 들과 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으면서, 천안·아산 등 도심지역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지정학적 특색을 갖고 있다.

그런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의 최대산지, 도농교류와 농촌체험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고, 전원형 작은 학교의 모델이 된 거산초, 지역주민참여와 학교가 협력하여 운영되는 솔향글누리도서관을 가진 송남초의 사례가 이미 한국사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송악지역내에 있는 초·중학교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공동체 형성이 결국 지역의 인재양성은 물론, 살기 좋은 송악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에 송악희망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의 교육 자원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한 유기적인 관계망 형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 목표

■학생들의 개성과 인권이 존중되고, 즐겁게 배우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학교+교육공동체를 위해 학교 중심, 아이들 중심의 지역 교육환경을 준비한다.

- 안전한 통학로, 학교 주변 생태 산책로, 지역과 학교의 돌봄과 치유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권이 보장되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교육공동체를 위해 교수학습 중심, 연구 시간 확보와 교육활동지원 인력풀 구축을 위한 학교 지원단을 구성한다.

- 지역사회 기관 협력을 통한 학생 멘토 지원, 생태교육 지원단, 체험활동 지원단, 문화예술활동 지원단, 돌봄 학생 치유상담 지원단, 소외계층 지원단 등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고, 교사들과 협력하는 학교+교육공동체를 위해 학교와 지역의 교육 자치를 준비한다.

- 학교와 지역사회, 교사와 학부모 공동포럼, 학부모회 의결기구화, 학생 인권을 위한 공동실천, 송악 교육주체 한마당 등.

■지역사회 학교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교육공동체를 위해 지역의 교육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 지역내 생산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 지역내 유관 교육기관 상호 네트워크 구축(송남유치원, 송악골어린이집, 송남초등학교,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거산초등학교, 송남중학교),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 만들기, 송악지역내 교육투자 비용 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와 인류보편의 가치가 상식으로 통하는 학교+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역 사회의 평생 학습 토대를 마련한다.

- 지역사회 교육, 생태교육과 농촌교육, 지역주민교육과 지역사회 일꾼 마련, 인권, 평화, 학교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3. 활동방향

-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주민, 전문인사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성한다.
- 송악 지역 내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실무단 및 지원단을 구축한다.
-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전문인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소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 송악이 속한 아산 지역의 교육, 복지, 문화, 생협 운동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4. 원칙

- 현안에 대한 활동을 넘어 단기·중장기적 비전, 대안 및 지역교육활동을 준비한다.
- 교육계를 넘어 각 분야의 중심 활동가, 지도자, 여론 주도층 인사와 협력한다.
- 유아교육부터 중등교육, 돌봄 교육까지 지역 교육 네트워크의 소통 허브가 된다.
- 지역 학교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소통·교류·협력하며 차이를 극복한다.
- 농촌 학교 살리기, 농촌 지역 교육 발전에 공감하는 개인 혹은 단체 누구나 동참할 수 있게 열린 구조를 갖는다.

5. 향후 추진 방안

- 한국 농촌 사회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공유, 실천을 결합한 모델로서의 송악희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 ‘송악지역교육 포럼’을 통한 교육문제 공유 및 여론화
- 송악 희망 교육 토론회 개최 : 주민의 요구를 교육정책 대안으로
- 송악 희망 교육 강좌 개최 : 교육아카데미, 부모·주민·청소년 교양강좌 등
- 송악지역 특성을 살린 풀뿌리 지역교육운동을 통해 농촌 교육 희망을 통한 농촌 지역 살리기를 전개해 나간다.
- 2011 지역 교육예산 요구 조직화 - 올바른 현장 지원, 효율적 사용 등
- 캠페인 : 책읽는 학교와 가정 만들기, 학원대신 도서관 보내기, 청소년 인문학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상실 운영 등
- 지역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 강좌, 체험 캠프, 독서 클럽 등
- 송악지역교육문화센터 또는 송악지역교육문화생활협동조합 등 운영

3) 마을내 행사 및 매체

(1) 송악희망장학금 마련 먹을거리 장터

송악면 내 3개 학교(송남초, 거산초, 송남중) 아빠모임이 주체가 되어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먹을거리 장터가 2014년부터 개최해왔다. 2015년에는 송악면사무소 앞마당에서 개최하였고, 2016년에는 송악마을교육관(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옆)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듣고 놀장(버스킹공연: 송남, 거산아이들의 춤과 음악공연, 반디아이들 공연, 송남 교사밴드 공연), 먹고놀장(송악희망장학금 송악아빠들의 떡거리 부스, 만들어놀장(캘리, 코사지,

조각그림, 요리체험 등), 나누며놀장(수공예부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벼룩시장) 등이 계획되어 있다. 세 학교 아빠모임에서는 먹을거리 장터를 통해 얻은 수익과 지역단체 후원금을 합하여 아이들의 교복구입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송악희망장학금 모금 위한 먹을거리 장터

아산시 송악면에서는 송악면내 세 학교(송남중, 송남초, 거산초) 학부모회가 모여 협의회를 구성해 송악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주기 위해 송악 희망장학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3일 송악면사무소 앞마당과 역촌리 노인회관앞 마당에서 지역주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5 송악희망장학금 마련을 위한 먹을거리 장터'와 송악마을 골목 예술제를 개최해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송악희망장학금 마련 행사는 거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흥겨운 풍물 속에 마을 골목 골목 길놀이로 시작돼 거산초, 송남초 학생들의 축하공연 및 개회식을 가졌으며, 송악면사무소 앞마당에서는 '2015 송악희망장학금 마련을 위한 먹을거리 장터'가 열려 마을주민 및 후원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마무리됐다.

송남초등학교 아버지모임 강석포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송남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전부에게 교복장학금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교복장학금은 우리들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의 상징으로 송악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데 교육적 환경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https://www.facebook.com/가슴-따뜻한-사람들의-이야기>
-889665241058718/likes)



자료: 홍승미(2016). 더불어 함께하는 재미난 마을살이를 꿈꾸는 송악마을교육공동체. 2016 충남 평생교육성과공유 연수 자료집.

2016 송악희망장학금 마련을 위한
먹을거리 장터

마을이 학교다

마을이 희망입니다.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울때 아이들은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송악의 학교에 송악마을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송악의 아이들이 송악의 초·중학교에서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송악 희망장학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꿈꿀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십시오.
송악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마을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하는 날 2016. 9. 24 오후 1시 ~ 9시 **하는 곳** 송악마을 교육관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옆)
송악면 역촌길 30

문의 송남중 아베대표 010-4845-1559 **주최/주관** 송남초·외암마을 주자장
거산초 아베대표 010-5620-3347
송남초 아베대표 010-4938-4991

(2) 송악마을골목예술제

역촌리마을과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가 주최하는 송악마을골목예술제가 2014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2014/2015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시콜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왔으며, 2016년에도 계획되어 있다.

송악마을골목예술제는 송악달장(송악마을의 시골농부, 동네요리사, 청년셰프들의 맛난 먹거리, 마을예술가들의 정겨운 물품들이 오가는 장터), 골목에서 놀자 마을에서 놀자를 모토로 골목골목미술제, 얼씨구 공연한마당(청소년밴드, 반디초등연극단, 청소년연극단, 아빠밴드, 송악마을연극단, 송악에너지협동조합), 음악제와 연극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악마을 골목예술제

역촌리마을과 송악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가 진행한 '2015 송악마을 골목예술제'와 함께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돌담골목을 갤러리로 활용해 아이들 그림과 어른들의 서각 등을 전시한 '골목골목 미술제', 수십 년 전까지 마을에 있었던 오일장을 재연한 '추억의 역말장터', 송악숲학교의 생태체험, 마을별 공동체가 준비한 '고물고물체험마당', '아나바나 알뜰장터' 등 알찬 프로그램은 마을주민과 후원자 방문객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했다.

마을정자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얼씨구 공연마당'에선 송악청소년밴드, 반디초등연극단, 청소년연극단, 아빠밴드 공연이 관객의 큰박수를 받았고,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송악마을연극단 '우정공'의 '신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흥도야 울지마라'의 창단공연은 관람객의 눈시울을 자극했으며, 행사장 곳곳의 송악에너지협동조합에서 선보인 적정기술 난로는 가을저녁의 찬바람을 따뜻하게 데워 주었다.

송악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김영미 센터장은 "송악마을 골목예술제는 마을사람들이 도란도란 엮어간 삶의 이야기를 마을 골목 곳곳에 풀어 놓고 가을밤을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장희 송악면장은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가 어린이, 청소년과 마을주민은 물론 모든 분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력하여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역촌리 윤광덕 이장은 "마을이 학교다. 평소 마을 주민들은 지역 내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서로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자 노력해 왔는데, 오늘 송악면 내 송남초, 거산초, 송남중 학부모가 뜻을 같이해 추진한 송악희망장학금 모금행사와 역촌리 마을·송악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추진한 송악골목예술제는 마을 주민과 지역 내 학교, 기관, 단체가 모두 함께 발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동기와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고 마을주민 모두가 행복한 송악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https://www.facebook.com/가슴따뜻한사람들의이웃기> -889665241058718/likes)

2016 송악마을 예술제에 초대합니다

가을빛물든날, 예술과 놀장

예술가가 뭐로 일해요?
올해만 나오면 정말로 재미있어하는 우리 아이들, 어른들
어디든 무엇이든 재미있게 그리고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고 스스로의 재미를 느낄수있는
마을사람들 모두가 예술가지요!
공짜마다 불편하다 하던가위 실과 아홉달음
재미난 미술살이가 되거리는 송악마을
그 속에 살아가는 마을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낸 실과 이야기,
남치는 미를 모아 다함께 어울려 놀아보자 - 최고 시적인
송악마을예술제가 올해로 3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두 주인공 놀았어요!
마을 아이들이 준비한 골목예술제, 송악마을연극단의 무척박한 공연,
음은 마을요리사들이 준비하는 먹거리장터,
마을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제까지,
한바탕 흥겨운 축제가 놓은 거대까지 펼쳐집니다.
같이 많이 오셔서 함께 놀아요~

● 화는 날 : 10월 27일 (화) 오후 2시~4시 8시
● 화는 꽃 : 송악마을교육회 대강 (한가리/송악마을연극단) 등
● 주 : 시골마을에서 온 송악마을사람들
● 열 : 예술리 / 020201000 / 송악마을교육회(가정) / 송남초 / 거산초 / 송남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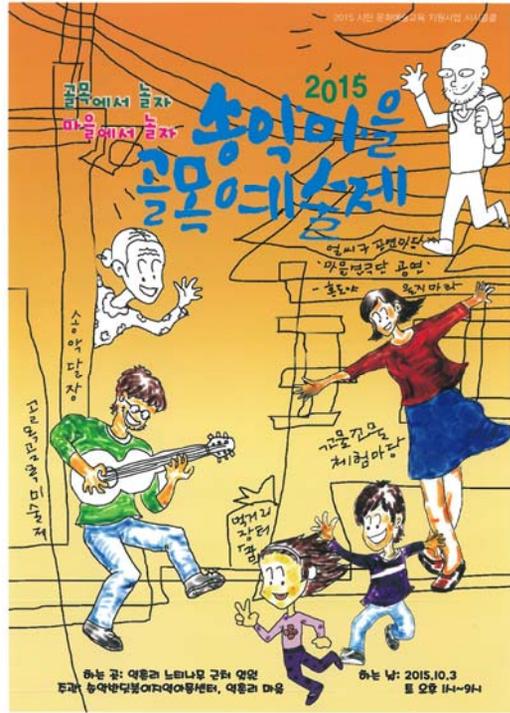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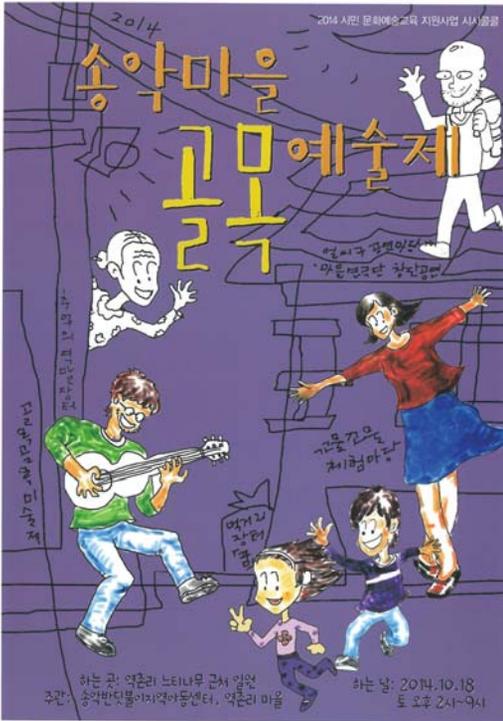
미술제 | 오후 2시~6시
"이웃집을 보러가" 미술전시로 열린다.
송남초, 거산초, 송남중, 반디초등학교의 미술전
"고물고물" 마을과 가게·사람들 어울림을 보여주는
서각전시(송악면사무회)

음악제 | 오후 5시 30분 - 저녁 7시
송악청소년밴드: '대들구름',
· 반디초등합창단: '즐거찾기',
· 반디 음악회: '동백씨',
· 송악청소년 대동니가 공연
· 아나바나 무용단의 공연
· 아나바나 노래공연: '정안애'

영화제 | 밤 8시~9시
· 송악청소년영화제: '일꾼기, 힘의 영화 '역편'
· 송남초 제작 영화 '말썽한 집장'
· 거산초 제작 영화 '별짜이'

우리는 송남초 운동장고 영화방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제'는 '마을'에 알맞게 열려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재단 | 한국문화재단 후원
www.kcf.or.kr | www.kcf.or.kr



(3) 송악마을교육신문

송악마을교육신문은 송악마을교육공동체가 2013년 7월 25일 ‘마을이 학교다’ 라는 모토로 창간하였다. 편집장인 천경석 온양고등학교 교사는 창간호에서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교육문제는 애들이 있는 집에서나 신경쓸 일’ 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는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여건이 안 좋으며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 지역 경제도 나빠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있어야 지역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니 교육문제는 지역살리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은 배움이고 배움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아이들은 가정과 마을, 지역사회에서 보고 겪으면서 어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 바람직한 것들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 모두 포함되는 이런 학습 결과는 평생동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학교교육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육이다. 송악 지역은 10여년전 거산학교 살리기 운동이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좋은 선생님들이 고생했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송악으로 이주해온 분들도 많다. 이분들이 기존 주민들과 동화하며 마을교육, 지역교육을 위해 함께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 마을이 함께 송악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도 만들었고 송악희망교육네트워크도 출범했으며, 올해는 송악온마을교육공동체가 꾸려져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송악의 마을교육, 지역교육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송악마을교육신문 **마을이 학교다**

● 발행 : 송악온마을교육공동체 ● 편집장 : 천경석 ● 후원 : 송악희망재단 ● 발간일 : 2013. 7. 25 (상간호)

마을이 학교다 제호를 창간하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창간하신 때에는 송악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이며 경남도 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2012년 13대 한민과 서예대전 입상 수상하신 서예입니다. 현재 송악면 주민자치센터에 서각을 지도하고 계시는 조원호선생님과 함께 계십니다.

본 신문은 사업은 KFA와 함께하는 송악희망재단에서 한국아시회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호가 4면으로 발행 될 예정이며 내년부턴 4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이 취지를 희망합니다.



창간 인사를 올립니다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교육취약계층 아동 보살핌 등 소극적 활동이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이 요청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들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생애주기별 학습지원이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사람이 많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 교육문제는 오래 전부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송남중 설립도 주

키우는 데에는 마을 전체가 필요합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교육문제는 '예를 있는 집에서나 신

적한 것들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이런 학습 결과는 평생동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학교교육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육입니다.

2. 흥동마을교육공동체

1) 흥동마을 현황

홍성군 흥동면은 군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산군과 접한 야산구릉지의 전형적인 농촌면이다. 총면적 3,626ha중 농경지와 임야면적이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현재 3,77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00만평 규모의 전국제일의 친환경 오리농법쌀 생산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귀농인이 증가하고 있다. 풀무학교와 풀무학교 전공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입지하고 있어 면단위에서는 드물게 유치원부터 대학과정까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표 3-13〉 흥동마을 교육관련 조직 및 주요행사

구분	교육관련 조직 및 단체
주요조직 및 단체	갯골어린이집, 흥동초등학교, 금당초등학교, 흥동중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마을활력소(마을 중간지원조직), 갯골목공소(마을목공교실), 꿈이자라는 들(장애인을 위한 생태학교), 논배미(논관련 생태교육), 흥동밝맑도서관(마을도서관), 흥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여성농업인 공간), 생각과 실천창작소, 햇살배움터 네트워크(마을교육 중간지원조직), ㅋㅋ만화방(마을만화방), 그물코출판사와 느티나무헌책방(작은출판사 및 헌책방),
주요행사 및 미디어	마실이학교(귀농귀촌인, 청소년을 위한 마을교육), 우리마을발표회(마을내 단체들의 활동발표회), 마을농 & 교육(마을교육, 농업축제), 마실통신(마을신문), 흥동밝맑도서관 소식지(마을도서관 소식지), 조대성의 팜파탈(젊은협업농장 팟캐스트)

2) 마을내 교육관련 조직 및 단체

(1) 갯골어린이집

갯골어린이집은 흥순명 선생이 덴마크방문에서 지원받아 땅을 구입하고 주민들의 도움으로 1981년 4월 2일 개원하였다. 풀무학교가 땅 520평(약 1719㎡)을 기증했고, 독지가의 기부금과 지역주민들의 노동력으로 시멘트 벽돌 건물(35평=약 115.7㎡)을 신축했다. 1981년 3월 어린이 42명을 받아 개원했으며, 흥순명 교장이 초대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갯골어린이집은 원장, 풀무학교 교사(1명), 풀무신용협동조합(1명), 부모 대표(2명), 면내 유지(2명)로 이사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농민, 의사, 교사, 주부, 회사원 등이 어린이집을 후원하였다. 1983년에 법인화로 교육에만 전념하게 되고 교사생활의 안정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갯골어린이집은 지역 주민과 부모가 중심이 되는 이사회·교사협의체·보육시설운영위원회·교육협의회·식단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주축이 돼 어린이집의 건전한 교육·운영·건강·생활·지역관계를 책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 1년

에 세 번 운영하는 부모참여프로그램 참여도가 높고,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개방한다. 보육교사들이 자기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수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갯골어린이집은 흥동지역 주민들한테서 재능기부를 받아 축구교실·풀무학교·논배미학교·밭밖도서관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를 배우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게 하는 것이다.

갯골어린이집의 주된 교육활동은 세시풍속행사, 산책, 텃밭가꾸기, 지역 기관 연계프로그램, 바깥놀이 몸짓과 손끝놀이, 환경지킴이, 생태예술, 책 읽어주기, 혼합 나이반 운영, 소수자(장애와 다문화가정) 통합 운영 등이다. 매해 11월에 열리는 흥동지역 마을축제인 흥동거리 축제에 참가해 공연하고 있고, 노인요양원에 가서 재롱잔치를 하는 봉사활동도 지속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함께 하고 있다.(사사인천, 2016).

갯골어린이집 소개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합니다. 일생의 기초가 놓이는 중요한 시기지요. 어린이는 미숙하지 않고 하나의 세계를 가진 인격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도시문명과 경쟁사회의 현실 속에서 어린이를 억누르는 구속을 떠나 자연과 가정, 이웃과 마을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가운데 자기를 표현하고 소중히 여기며 튼튼하게 자라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하고 친구들과끼리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이 좋게 지내어, 어른의 욕심에 따라 찢들거나 어린이 시기를 훌쩍 넘어 애어른이 되지 않고 어린이다운면서 자연과 고향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만들어갈 몸과 마음의 바탕을 놓도록 합니다’

(2) 흥동초등학교

흥동초등학교는 1922년 4월 21일 4년제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938년 4월 1일 흥성공립심상소학교라 개칭하였고, 1941년 흥동공립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흥동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1996년 오늘날의 흥동초등학교로 바뀌었다. 2016년 현재 118명이 재학중이며, 지금까지 1만 여명이 졸업하였다. 흥동초등학교 교육의 기본방향은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창의지식인, 바른생각을 옳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글로벌 민주시민, 나만의 감성을 활용하여 독특함을 추구하는 문화감성인을 기르고자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교생들이 테블릿PC와 전자칠판, 자체방송국 등을 보유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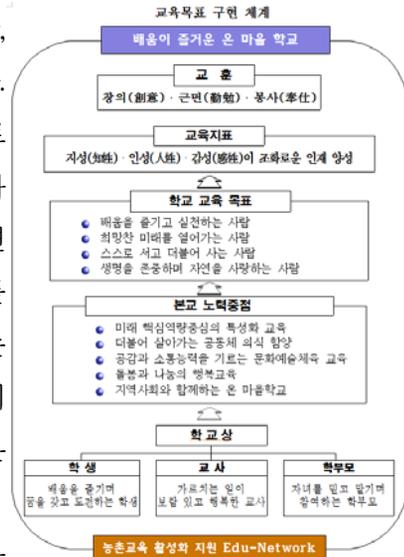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업방식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예술학교 선도학교, 돌봄교실 선도학교, 독서교육(학교도서관) 으뜸학교, 녹색성장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었다.

(3) 흥동중학교

흥동중학교는 1971년 개교하여 2016년 현재 6개 학급, 105명이 재학중이며, 총 6,53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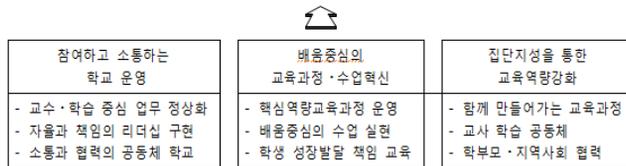
흥동중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온 마을학교” 를 모토로 배움을 즐기고 실천하는 사람,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스스로 서고 더불어 사는 사람,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을 학교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특성화 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 공감과 소통능력을 기르는 문화예술체육교육, 돌봄과 나눔의 행복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온 마을학교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특색사업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교운영,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혁신, 집단지성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 농촌형 공교육 모델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행복나눔(중남형 혁신)학교 운영

미래지향 농촌형 공교육 모델학교 흥동중학교



자료: 흥동중학교 홈페이지(<http://hongdong.cnems.kr/>). 2016년 8월 11일 접속.

홍동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온마을학교’ 라는 표현은 마을과 학교가 교육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홍동중학교 해누리 공연장은 지역사회교육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마을 축제 공간으로 사용하고 여기에서 마을 주관 각종 행사가 열린다. 학부모 아카데미나 학생 공부방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학교 특색 사업으로 뮤지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대학인 청운대 예술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대학생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최근 ‘그리스’ 에 이어 ‘페임’ 작품 공연도 개최되었다. 물론 청운대말고도 충남교육연구소 등 1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마을 탐구’ 가 격주 2시간씩 배정되어 진행되는데, 이 때 학생들이 마을에 있는 생협, 공방, 농장, 연구소 등에 가서 체험 활동을 한다. 지역 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 농장 체험, 논 생물 조사 활동, 지역 생태 환경 주사 및 환경 보존 활동, 마을 도서관 주관 인문학 수업 참여, 풀무신협 주관 홍성문화유적답사 활동 참여, 문화예술 동아리 및 방과후 학교 강사 활동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모 아카데미도 재학생 학부모만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고 관심있는 마을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아카데미 강의 기획부터 강사초청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을 학부모회에서 직접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유관기관들이 연대하는 햇살배움터 교육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 네트워크들 중에서 공립학교가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연대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교사들이 우선 마을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들긴 하지만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관련 업무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홍동중학교는 공립학교이지만 교사들은 대부분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 가정, 마을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홍동마을이 마을공동체의 좋은 모델이라면 홍동중학교는 학교와 사회의 좋은 연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김현섭, 2015. 교육이야기(<http://eduhope88.tistory.com/189>).



결국, 홍동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은 ‘학교 연계형 사업’ 과 ‘지역 사회 연계형 사업’ 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학교 연계형 사업으로 ‘홍동지역 범교과 교육과정연구회’ 와 ‘연합 방과후 학교 햇살배움터’ 가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형 사업으로 ‘홍동 거리 축제’ 와 ‘지역 인프라 활용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이 있다.

홍동중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화 교육과정은 농촌이 처한 현실에서 농촌 학생들에게 학교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4)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풀무학교는 이찬갑, 주옥로 선생이 1958년 설립한 학교로 교육목표는 성서에 바탕을 둔 깊이 있는 인생관과 학문과 실제 능력에서 균형잡힌 인격으로 하나님과 이웃, 지역과 세계, 자연과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풀무학교는 머리(학문), 가슴(신앙), 손(노작)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인문과목과 농업계열 전문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고 있다. 전교생이 3년간 생활관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적이면서 조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운다. 학생자치활동과 전교회,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5)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생태농업과

풀무학교 전공부는 시장경제와 경쟁에 대체할 세계관인 다양성, 상호의존, 개체속 전체, 순환,

조화, 자발적이라는 생태의 보편법칙 실현에 농업이 가장 핵심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농이 지역의 다양성을 살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함께 나누며,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농민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평화 사회실현에 중심축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농업과 농촌을 일으킬 농민을 기르고자 오랜 준비 끝에 새 세기가 시작하는 2001년에 개교하였다.

전공부는 대도시 집중, 노동경시, 과도한 경쟁, 엘리트 양성의 교육이 아니라 농촌교육, 민중교육, 정신교육, 실력교육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그들이 지닌 다양하고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인격교육, 일과 배움과 생활을 통해 개인의 머리, 가슴, 손을 교류실현시키는 전인교육, 학교자체가 자립하는 농사마을교육, 지역 속에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 교육을 교육의 본질로 추구하는 울타리 없는 풀뿌리 주민지역대학, 마을과 더불어 사는 대안대학이 되고자 한다.

(6) 마을활력소

마을활력소는 2010년부터 준비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홍순명 선생과 주형로 회장이 공동대표로 하여 마을과 지역일을 돕고 거드는 지역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을 지향하는 조직이다.

마을활력소의 설립목적은 순환농사를 바탕으로 자립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생각을 조정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주민스스로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공익적인 주민활동을 지원하면서 자치·자급·자율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되고, 경제적 효율보다는 생명이 살아숨쉬는 마을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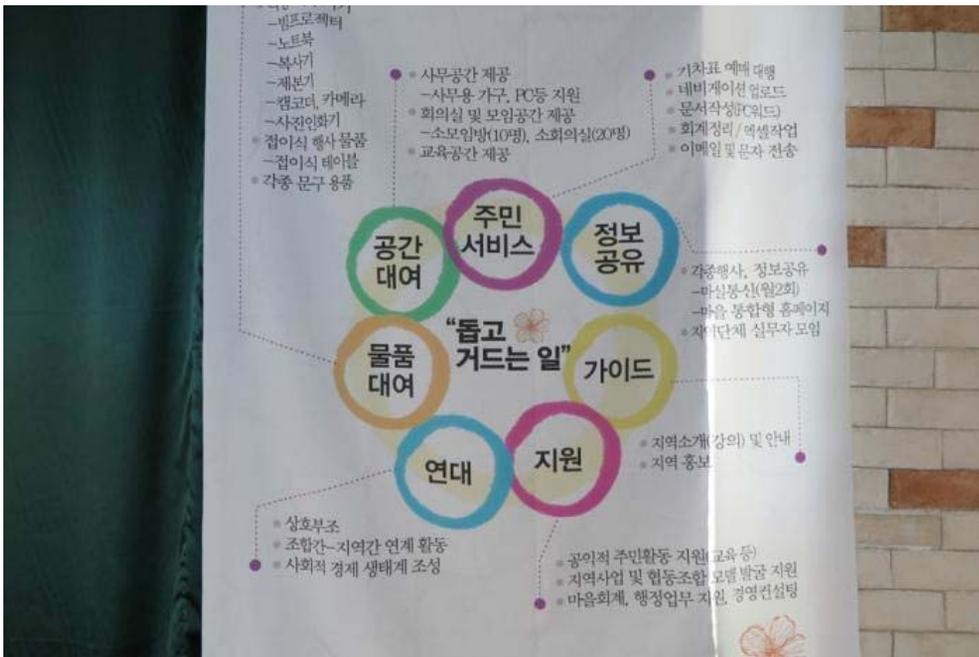
마을활력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안내소 기능으로 올망졸망 협동조합이 있는 마을, 유기농사를 짓는 흥동마을을 둘러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안내한다.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마을알아보기 프로그램인 “마실이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안에서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문같이 생각과 사람이 드나드는 일을 돕고 있다.

둘째, 마을설계소 기능으로 마을을 활기있게 만들면, 한달에 한번 여러 가지 지역소식을 알리는 “마을통신”을 발간하고, 와글와글 마을장터와 덩더쿵 거리축제도 돕는다. 연말에는 한해

를 갈무리하는 “우리마을발표회” 를 열어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의 과제를 논의한다.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마을주민단체의 부화소 기능으로 새로운 마을안 주직조직을 만들 때 전반적인 과정에 도움을 주고 사무실과 모임공간을 제공한다.



(7) 잣골목공실

잣골목공실은 2007년 운월리에 자리잡은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풀무학교 전공부가 목공실 및 도예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나무, 창작, 놀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내손으로 가구를 만들고 그네를 만들고 그렇게 스스로 창작하고 만들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바라며 풀무학교 전공부 뒷마당 층층나무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지역농민들의 집수리, 목공교실 등 사랑방 구실을 하며 지역 목공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 꿈이 자라는 뜰³⁰⁾

꿈이 자라는 뜰 농장은 풀무고등학교에서 읍내방향으로 약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도 따로 차를 타지 않고 걸어 올 수 있을만한 거리이기도 하다. 대략 1,000㎡(300평)정도 규모의 농장에는 툄두둑 텃밭, 비닐하우스 온실, 퇴비장, 연못, 생태화장실, 파고라 쉼터, 닭장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규모는 작지만 생태적이고 교육적인, 장벽이 없는(Barrier Free), 아늑하고 안전한 농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다.

꿈이 자라는 뜰은 2004년 즈음, 흥동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풀무학교 전공부에서 산책도 하고, 마을주민교사와 함께 원예활동을 하던 것이 처음 시작이었다. 이 활동이 매년 이어지면서 정기적인 방과 후 수업이 되었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하는 원예활동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다 2009년 흥동초등학교와 흥동중학교가 전원학교 사업을 시행하면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전에 해오던 원예활동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30) 꿈이 자라는 뜰 홈페이지(<http://www.greencarefarm.org/197>). 2016년 8월 25일 접속.

만들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이름은 ‘꿈이 자라는 뜰’로 다듬고, 흥동초등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학생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마을주민교사와 만나는 배움터로 자리잡게 되었다.

꽃밭교실은 초등학생, 꽃나무교실은 중학생, 나농교실은 고등학생을 위한 원예/농업교실이다. 여기에 초+중학생이 함께 바깥활동을 하는 어울림교실, 중+고등학생이 함께 하는 목공교실, 초등학생을 위한 풍물교실까지, 모두 6가지 활동을 매 주 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꿈이자라는 뜰의 교육활동은 유기농업에 생태교육과 직업교육을 엮은 ‘전인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마을에 사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을 꿈이자라는 뜰과 함께 지내는 동안, 농사일을 머리보다는 몸으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익혀 갈 수 있도록 도와려고 한다. 아울러 생태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농사일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마을 주민교사들과 오랫동안 꾸준히 맺어온 깊은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고른 신체 발달, 원만한 대인관계도 함께 키워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꿈이 자라는 뜰을 여는 굵직한 열쇳말은 ‘장애와 농업 그리고 마을’ 이렇게 세 가지이다. 장애와 농업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시도는 매우 새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장애와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장애인이 양말을 포장하고, 불펜을 조립하고, 커피를 파는 일도 의미가 있겠지만 도시가 아닌 이 곳 농촌에서라면, 주변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고 살 수는 없을까?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익히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 가족들과 가까운 마을 이웃들의 돌봄을 받으며, 마을 안에서 자기 몫의 일을 찾아 어울려 지낼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꿈이 자라는 뜰의 모습인 것 같다.

꿈이자라는 뜰은 안으로는 장애청소년을 중심으로 주민교사, 초중고 특수교사, 부모, 운영위원회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밖으로는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전공부와 같은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마을 단체와 주민들의 도움과 관심 속에 크고 작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을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관계 맺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제 몫의 일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꿈이자라는뜰이 그리는 내일의 모습이다.

(9) 논배미

논배미는 논생태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교육단체이다. 흥동지역 농민단체,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에 소속된 개인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생물조사팀 ‘논배미’를 결성하였다.



논배미는 논생물 조사활동, 논생태교육, 유기벼재배 기술, 자료제작 등의 활동을 수행해 왔다. 지역내부의 연대와 함께 지역외부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활동도 전개해나갔다. 전국에서 지역 자체 논생물조사팀을 결성한 경우는 처음이었고, 지역조사팀을 중심으로 지역의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논습지 관련 활동을 해간 경우도 처음이었다.

흥성 논배미의 사례



논배미 활동을 통해, 첫째, 지역의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내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기관까지의 생태교육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논이학교다라는 모토로 농부와 생산자가 교사이며, 논이 교실이 되고 교재가 되는 살아 있는 생태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셋째, 생산 및 소비자 단체에 논생태교육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지역공동체를 중심을 교사와 농민, 주민들이 함께 연구하는 장을 확장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교육기관, 농민단체 및 관련기관에 농생물조사 매뉴얼과 논생물도감을 배포할 수 있었다(논배미, 2009).

(10) 흥동밖밖도서관

2008년 풀무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구성된 ‘풀무교육5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두고 풀무교육 50년사 편집과 흥동 밖밖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밖밖’은 풀무학교 설립자인 이찬갑 선생의 호이다. 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430㎡ 내외의 도서관을 설립해서 이찬갑 선생이 강조했던 ‘위대한 평민’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흥동 밝맑도서관의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지역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기독교·국학·교육학 기념 아카이브
지역 역사자료와 지역관련 정보 모으기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어 꿈과 의미, 창의력을 높이는 두밀리어린이방
지역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도서를 모으고 활용하기
농민글쓰기, 전통농촌문화를 재창조하는 문화사업과 공연공간
각종 세미나와 강좌, 독서회, 토론회, 연구발표로 평생학습장
지역출판사와 연계 도서, 잡지 간행
갯길거 곤충의집(곤충관)과 휴게실, 선물가게 운영
작은 숙소와 식당, 전시공간과 이동식 박물관
아카이브, 역사정보, 두밀리방, 농촌문화 등 분야별로 위원회 조직 자율운영
도서자료의 인터넷 열람
도서관 주변이 지역의 중심적 문화공간이 되게 하다

이러한 계획 하에, 흥동 밝맑도서관은 2011년 10월 개관하였다. 밝맑도서관은 관청의 도움도 일부 있었지만, 주민들이 공사비를 모아 만든 도서관으로 지역도서관이자 동네도서관이요, 마을도서관이자 이웃도서관이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살아있는 도서관인 것이다.

현재 밝맑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각종 전시, 공연, 워크숍, 세미나, 평생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순명 선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흥동의 역사에서 1958년 학교개교가 제1의 물결이라면, 1975년 이후 유기농업이 지역에 퍼진 일이 제2의 물결이고, 풀무개교 50주년을 맞아 2007년부터 논의되어 2010년 제대로 활동이 시작될 흥동 밝맑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이 총체적인 평생학습공동체로 들어서는 것이 제3의 물결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밝맑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고 공동체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인문학을 습득하는 마을주민을 양성하는데 지식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홍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홍성여성농업인센터는 2002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정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미, 문화강좌를 열어 자신감을 얻고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 나눔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다(갯골생태농업연구소·마실이학교, 2010).

홍성여성농업인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2014 우리마을발표회, 2015)

첫째, 작은 도서관운영으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책들을 회원중심으로 대여하고 지역 어린이와 농민들도 이용 가능하다.

둘째, 보육사업으로 만1세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방과후 교실로 바쁜 농촌일손 때문에 방치되어질 수 있는 아이들의 방과후 상황을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지도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목표로 한다.

넷째, 상담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안내한다. 상담분야는 가정문제, 자녀교육, 청소년문제, 건강상담 등이며 전화상담, 방문상담, 진로상담 등 해당부분 전문상담사를 연결한다.

다섯째, 아래와 같은 여성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자아실현교육	여성농업인 정책, 여성농업인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전문농업인 교육	유기농업교육, 농업경제(영농일지 작성법, 가계경영 수지표 작성법), 농사경영
지도력 훈련	협동조합활동, 회의관리법, 조직관리법, 자모회, 부모회 운영

여섯째, 여성농업인 취미교육활동이다. 빼꾸기 합창단, 짚풀공예, 등산모임, 공방, 리폼 및 수선, 오키리나, 공연관람, 몸살림, 화장품과 비누만들기, 등산 등

일곱째, 농외소득사업 및 도농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외소득사업으로 매장을 상시운영하고 공동구매, 직거래 사업, 나눔장터를 개설한다. 체험활동으로 농사체험, 민속놀이, 전통식품만들기 등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12) 생각실천창작소

생각실천창작소는 생각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실험적인 공간, 프로젝트를 통하여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민하는 프로세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창의적 발상과 프로세스에 따라 변형가능한 공간이다.

지역학교의 재학생 및 지역에 남기를 희망하는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개별적 성장을 돕고 생각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플랫폼이다. 실천과정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시도가 되게 한다. 지역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자기 목적적 프로젝트를 통해 창작소 인턴스텝, 레지던시 활동가, 스토리메이킹 프로젝트로 참여할 수 있다.

2015년 8월 풀무고등부, 밝맑도서관, 그물코출판사와 함께 농촌인문학하우스를 꾸리고, 젊은 농부 마을 사진작가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13) 햇살배움터네트워크

햇살배움터네트워크는 흥동-장곡지역의 배움터와 일터가 힘을 모아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교육네트워크이다. 학교 밖, 마을 안 다양한 일터와 함께 온 마을 배움터를 만들어가며 흥동-장곡지역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찾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개별적인 지원을 한다. 더불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마을교사, 학부모를 돕는다.

2007년부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현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 흥동중학교와 흥동초등학교가 전원학교로 선정되어, 흥동지역

의 지원사업은 줄이고, 장곡지역에 반계분교, 오서분교(현재 폐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2년부터는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라는 이름으로 삼성꿈장학재단 지역네트워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홍동범교과 교육과정연구회’ 와 마을교사, 홍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의 역량이 모여 가능한 일이었다. 2014년에는 청소년거점공간 ‘ㅋㅋ만화방’ 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27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마을교사역량강화, 마을교육안전망 구축, 마을작업장학교를 통한 진로탐색, 농촌소외지역 문화정서지원,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4) ㅋㅋ만화방

‘ㅋㅋ만화방’은 마땅히 여가시간을 보낼만한 공간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2014년 8월 완성된 공간이다. 친구들과 모여 놀 공간이 없어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거나 혼한 편의점 하나 없어 비오는 날이면 다리 밑에서 라면을 먹던 아이들이 ㅋㅋ만화방을 이용한다. ㅋㅋ만화방은 햇살배움터네트워크에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면 지역에 들어선 만화방, ‘만화’아닌 ‘방’이 핵심

2014년 8월 ‘ㅋㅋ만화방’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는 유쾌한 공간이 면소재 중심 한 건물 2층에 들어섰다. 이 공간을 만든 주체는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이다. 배움터네트워크는 인근 학교와 민간단체 등 14개 단체가 모여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2013년 겨울, 배움터네트워크에서 ‘마을교육수다방’이라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지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다. 청소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흥동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로 고등학교를 가게 된 친구들도 편히 언제나 와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지역주민들과 교사가 모아준 후원금과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금이 공간을 꾸미는데 사용됐다. 현재는 40여명의 후원자들이 매달 정기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청소년들은 무료로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어른들은 입장료 2천원을 내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야간개장’을 한다.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 맥주도 팔아 어른들도 만화를 맘껏 즐길 수 있다.

“만화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화책을 읽을 수도 있고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고 자고 갈 수도 있고 모임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어른들이 뭘 제시하지 말지는 게 이 공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잔소리 말자, 멍때릴 수 있는 공간, 쉼터 같은 공간으로 만들자는 뜻이죠 (최수영 씨)”

만화방은 지난해부터 또 하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일명 ‘ㅋㅋ스프’를 시작하였다. 스스로 프로젝트의 준말로 일종의 만화방 동아리같은 개념이다. 동아리 운영원칙은 첫 번째 원칙 역시 어른들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학생 중심으로 4-5명에서 많게는 10명으로 조직된 동아리이다.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여서 이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 계획서를 내면 만화방에서 일정 부분 비용도 지원해주고 간식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매주 수요일에는 ‘타로카드’를 봐주는 시간도 있고, 만화방 대축제, 콘서트와 각종 강연회 개최 등도 한다.

최수영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배움터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이 좋아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아이런 직업을 가지고 여기서 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만화방은 첫 번째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목적으로 연결될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출처 : 옥천신문, 2016년 7월 22일자)

(15) 그물코 출판사와 느티나무 헌책방

갯골 들머리에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서 있다. 느티나무 뒤쪽 그물코 출판사가 운영하는 무인책방 느티나무 책방이 위치하고 있다. 그물코출판사는 2004년 서울에서 홍동마을로 이주하였다. 현재의 품방 자리가 사무실이었으나, 200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느티나무 헌책방은 2006년 4월에 문을 열었다.



2) 마을내 행사 및 매체

(1) 마실이 학교

마실이 학교는 지역의 줄거리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 혹은 농촌지역에서 자신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고자 2010년부터 진행해온 지역사회공부프로그램이다. 마을의 방언인 ‘마실’의 의미를 지닌 마실이 학교는 풀무생협, 환경농업교육관, 그물코출판사, 갯골연구소, 풀무학교생협, 흥성유기농, 흥성친환경작목회 실무자들이 모여 흥동을 알리고 모은 낭을 함께 하는 모임이다. 마실이 학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힘들지만, 마을내 32개 단체 실무자들이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우리 마을을 알리는 문화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마실이 학교의 주된 기능중 하나이다. 2016년까지 총9회에 걸쳐 마실이 학교가 개교하였다.

〈표 3-14〉 마실이학교 9기 세부프로그램

회	날짜	주제	내 용	강사	장소
1	9/15 14:00	마실이학교를 열면서	우리마을이야기	이동근	마을활력소
			마실이학교 운영방향 소개 및 자료집 배부, 자기소개	함께	
2	9/24 14:00	우리지역이야기	갯골에서의 10년	장은성	밝맑도서관
		우리지역둘러보기	지역둘러보기	함께	지역둘러보기1
3	10/1 14:00	우리지역이야기	유기농업과 우리지역 마을만들기	정예화	문당환경농업교 육관
		우리지역둘러보기	지역둘러보기	함께	지역둘러보기2
4	10/8 14:00	우리지역이야기	우리마을환경이야기	수수	마을활력소
		우리지역둘러보기	자연재배이야기	금장명	마을활력소
5	10/15 14:00	우리지역이야기	장곡에서 일어나는 일	신소희	생미장터골방
		우리지역둘러보기	지역둘러보기	함께	지역둘러보기3
6	10/22 14:00	우리지역이야기	함께하는 지역살이+지역내역할찾기	이가왕 이환의	마을활력소
		마실이학교를마치며	마실이학교 참가소감 나누기	함께	마을활력고

〈표 3-15〉 마실이학교 9기 견학단체 명단

구 분	견학단체
지역돌러보기1	갯골목공실 : 지역에서 나무로 상상하고 창작하는 공간 그물코출판사/느티나무헌책방 : 지역을 기반으로 퍼내는 상태와 환경도서 꿈이자라늘 뜰 : '장애는 마을의 꽃', 장애학생 지역배움터 밝맑도서관 :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지역도서관 씨앗도서관 : 토종 씨앗을 빌리고 보관할 수 있는 곳 여성농업인센터 : 여성 농업인이 만든 단체, 신나는 놀이방 운영 풀무학교고등부 :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작은 학교 풀무학교전공부(생태농업과) : 마을과 더불어 사는 풀뿌리 평민대학 풀무학교생협 : 지역협동조합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작은 가게 햇살배움터네트워크+ㅋㅋ만화방 : 만화도 보고! 모임도하고! 청소년쉼터
지역돌러보기2	논배미: 논에서 배우는 아름다운 생태학교 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 적정기술협동조합 얼렁뚱딱건축조합 : 함께 지어 더 즐거운 집짓기협동조합 평촌요쿠르트: 풀무학교를 졸업한 신후배부자(가족공동경영체)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 주민들이 함께 만든 의료생협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 :환경농업교육관 농촌생활유물관, 전통가옥체험관, 짬짬방, 물놀이장, 생태연못 등
지역돌러보기3	생미장터 : 지역농산물 구매직매장 젊은 협업농장 : 젊은이들이 함께 짓은 농사협동조합 최익씨 농장 : 귀농인 최익씨의 개인농장 행복농장 :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꾸려가는 농장 홍성유기농영농협동조합법인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





(2) 우리마을발표회

우리마을발표회는 마실이학교가 주관하여 마을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들의 활동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마을활력소가 주관하여 2013년부터 밝맑도서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 33개 단체, 2014년 21개 단체, 2015년 9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2015년은 1부에 큰 변화가 있거나 새롭게 설립된 9개 단체가 발표하였고, 2부에 ‘지역네트워크의 필요성’이란 공동의제 이야기 한마당으로 발표 및 토론하였다.



사진촬영:이동호(creatin.me@gmail.com)

2013 우리마을 발표회

12. 20(금) 9:30~18:30 밝맑도서관

□ 참여단체

▶ 참여하는 가나다 순입니다.

협동조합

갯골 목공실
동네마실방 들
얼렁뚱딱 건축조합
우리 마을 의료생협(가)
젊은협업농장
플무신용협동조합
플무환경농업영농조합
할머니장터조합
협동조합 청춘
홍동농업협동조합
홍성유기농영농조합
홍성한우식당 홍동점

지역 소모임

안전한 보행로 모임
같이 놀자 모임
홍동천사 모임
빠꾸기 합창단 모임

마을지원

그물코 출판사 느티나무 연행방
문당권역 사업단
문당환경농업교육관
오누이권역 사업단
정농회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홍성여성농업인센터
홍성통
L 희망 마을

교육

갯골어린이집
꿈이 자라는 들
논배미
농생태원예조합 가꿈
마실이 학교
밝맑도서관
장곡지역아동센터
플무학교 고등부·전공부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어느새 한 해의 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20일 「2013 우리 마을 발표회」란 이름으로 개인과 단체들이 밝맑도서관에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자립하고 협동하는 마을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이번 행사에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 본 발표회는 홍성농업기술센터 마실이 학교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 발표회 당일 점심은 홍성한우식당 홍동점의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 주관 밝맑도서관 · 마을 활력소

(3) 마실통신

마실통신은 우리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6월 17일 (가)지역단체뉴스레터(준비1호)에서 출발하여, 68호(2014. 4.10)부터 마실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고 있다. 2016년 8월 현재 96호가 발간되었으며, 웹진 및 오프라인 뉴스레터형식으로 발간하고 있다.

마실통신은 현재 마을활력소에서 발간되며, 지역사회 주민인터뷰, 특집기획기사, 지역통신과 소소통신, 단체통신을 통해 지역내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 개인 또는 가장단위 소식, 흥동면내 단체소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마실통신

8월의 사진 이야기



대문사진 이야기
 매일 쉬지 않고 자라나는 물줄에 피롱이 밭 한가운데서 열심히 힘을 빼고 자라를 쫓고 일어나면 두 손에는 여름채소들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비우고 채우고, 담고 내어주는 밭의 아름다움 변화, 우리는 지금,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김.문수영

이번호 내용

- 01 수영의 대문사진 이야기
- 02 우리는 이렇게 여름 중
- 03 시간이 만드는 음식처럼 느끼게, 건강하게, 김연화 씨를 만나다
- 04 21세기 바벨탑, GMO
- 05 지역통신
- 06 소소통신
- 07 숫자통신
- 08 단체통신
- 09 마실놀이

출판홍성 지역단체 뉴스레터 2016년 8월, 제96호 | 발행소: 지역연대 마을활력소 | 발행일: 2016년 8월12일 | 충청남도 홍성군 흥동면 문봉리 727-6 | TEL 041) 632-2918 | E-MAIL: htmajin@gmail.com

(4) 흥동 밝맑도서관 소식지

흥동 밝맑도서관 소식지는 책으로 벗들로 만나고 벗들로 마을을 이룬다는 모토아래, 2010년 11월 창간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후원회원 소개, 도서관 소식, 모임과 행사, 추천도서, 후원자 소식 등을 중심으로 꾸미는 도서관 소식지이다.

책과 고향
흥동밝맑도서관

소식지 32

2015. 11



11월 5일 도서관에서 열린 <2015 마을기록수집가 양성 과정 발표회-기록농사, 첫번째 이야기: 갈무리 하는 날> (사진 민택기사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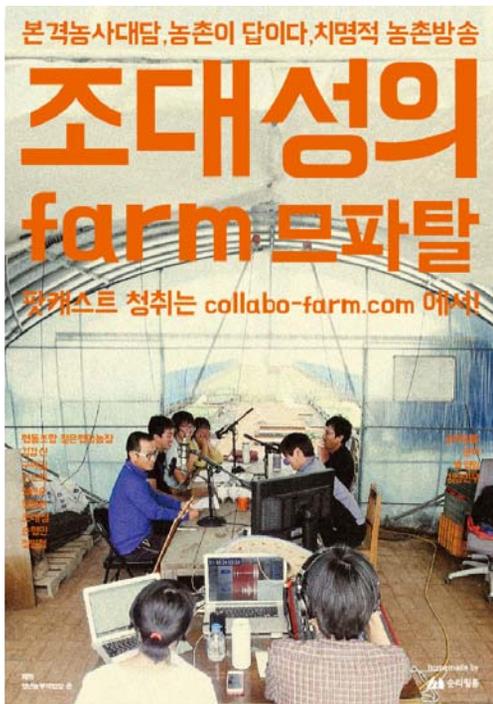
흥동밝맑도서관 소식지 2015년 11월 통권 32호 펴낸날 2015년 12월 23일 펴낸곳 흥동밝맑도서관 | 대표 홍순명 | 이사 박완 배지현 장현숙 최수영 박중희 이인영 | 감사 김경숙 이한중 | 사무국장 장은성 | 일본 장유리 정영은 김수진 전화 041-634-2333 주소 (350-811) 충남 홍성군 흥동면 광금남로 658-7 누리집 cafe.naver.com/hongdonglibrary 전자우편 hongdongbook@naver.com

(5) 조대성의 팜르파탈

조대성의 farm르파탈은 ‘젊은 협업농장’ 조합원인 조대성이 진행하는 농촌의, 농촌을 위한, 농촌에 의한 팟캐스트 방송이다. 농촌, 농사, 사람, 세상의 이슈를 자유롭게 다루는 무편집, 무NG, 무형식 방송이다.

스튜디오를 떠나 농촌 곳곳(하우스, 마을회관, 축산, 논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초월방송으로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위치한 젊은 협업농장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다.

2014년 10월 첫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농촌과 농사, 귀농과 귀촌, 지역과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로 꾸밀 계획이다.



제4절 소결

마을교육공동체 분석을 위한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을 어떤 주체가 주도하고 있는가 이고,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주체는 학교주도, 마을주도, 중간지원조직 주도 등 3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학교주도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학교가 주도하는 유형으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전공부, 거산초등학교 등이 대표적이며,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남행복공감학교로 선정된 20개 학교들도 이 유형에 속한다. 마을주도형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마을이 주도하는 유형으로 충청남도에는 홍성군 홍동면, 아산시 송악면 등이 대표적이다. 중간지원조직 주도형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중간지원조직이 주도하는 유형으로 충청남도에는 공주시 우성면의 충남교육연구소, 홍성군 홍동면의 햇살배움터네트워크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내용을 목적, 주체, 공간, 활동내용, 네트워크 등의 항목을 정하여 홍성군 홍동면과 아산시 송악면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주민성장과 삶의 질 향상, 주민간 소통과 관계망 확대, 교육기회 제공과 마을학습망 구축, 학습자원 공유와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학습문화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은 풀무학교로 대표되는 농촌학교와 마을간 협력적 관계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아산시 송악면은 학교와 마을이 온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에는 주민과 활동가, 교사, 농민회 등이 지역주체들의 주체적인 참여 즉, ‘각성된’ 주체들이 공동체운동에서 행하는 역할이다. 홍동면의 교육공동체 활동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참여이며, 마을과제에 대한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주체로 형성하게 된다. 마을주민이 교육대상자이고, 주민이 강사로 나서는 주민이 주민에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주체가 된다. 송악면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마을주민이다. 마을주민이 학교도서관의 사서로 참여하고, 마을교사 아카데미를 통해 마을주민이 교사역할을 하며,

마을언니들에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학습이 이루어진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논의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교육활동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흥동면과 송악면에서는 마을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마을의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마을 및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공간을 바라보면, 전통적인 학교, 도서관과 같이 제한된 장소를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적, 사회적공간이 모두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은 마을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접근에서 시작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양한 마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마을교육프로그램은 개별주민의 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여,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흥동면과 송악면에서는 마을이나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경험, 마을발표회 참석, 학교캠프, 공정여행 등을 통해 마을에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완결된 형태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직은 구축하기에도 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한 마을에 여러조직이 있고, 그 조직간 다른 영역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들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각 조직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흥동과 송악에서는 마을내 학교와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내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조직들과 연계하여 교육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이 함께 키우는 교육공동체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다.

제4장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1절 마을교육공동체 분석결과

1.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은 교육공동체현상이 마을이라는 시공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을이 학교다’ 라는 말 속에는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개념의 마을교육공동체현상이 들어 있다.

학생들이 마을에서 교육적인 모습을 띠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마을교육공동체가 되는 길이다. 이는 종래의 학교보다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증거이다. 마을교육공동체 현상에서 가장 교육적인 차원은 자연스럽게 ‘뜻있는 학습’ 으로 이어간다는 점이다.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일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마중물이 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물론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더 풍부한 교육과정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즉, 학교를 매개로 학부모, 지역단체가 가치를 공유하면서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이 마을에서 배우고 미래지향적인 마을주민이 되는 일이 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마을주민들이 학교 안팎에서 교사가 되고 학생들이 마을에서 미래의 꿈을 꾸다(서용선 외, 2015:55-60).

물론, 마을교육공동체는 단순히 ‘학습’ 이 일어나는 것 또는 학습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주민성장과 삶의 질 향상, 주민간 소통과 관계망 확대, 교육기회 제공과 마을학습망 구축, 학습자원 공유와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결국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학습문화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종선·이희수, 2015:96).

50년 넘게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룬 살아 있는 실천모델인 충남 홍성의 풀무학교에서 그리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위대한 학교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둔다. 평민에게 기본적인 가치관과 교양, 실제적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홍순명 선생은 다음의 열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중한 전통의 복원, 인생의 목표와 과정을 채우는 핵심적 세계관, 공부와 함께하는 노동, 지역에서 배우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정성과 창의가 깃드는 작은 규모의 학교, 하나의 마을로서 학교 공동생활의 경험, 따뜻한 눈빛과 마음이 교감을 이루는 대화, 장점이 발휘되는 신명, 모순을 슬기롭게 감싸 안는 진리의 양면성이다. 미래의 학교에 대해서는 홍순명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교는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교육은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는 공동체의 가치 기반인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교육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홍순명, 2006:267).

햇살배움터네트워크의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과 학교가 서로 돕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한마디로 ‘온마을학교’를 통해 행복한 아이들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햇살배움터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목표인 것이다.

마을이 존속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뿌리내리고 살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져야 농촌마을에 미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친구, 선배, 추억,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려합니다 (햇살배움터네트워크).

송악마을 마을교육공동체는 거산초등학교의 작은학교살리기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송남초등학교와 송남중학교 학부모들과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이 곧 학교라는 모토 아래 학교와 마을이 온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목표인 것이다.

마을이 희망입니다.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울 때 아이들은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송악의 학교에 송악마을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송악아이들이 송악의 초중학교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송악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마을 아이들의 부모입니다(송악동네 사람들).

서용선 외(2015)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실천적 방법으로 학습시킴으로서 그들의 학습역량과 정의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결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적 구조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공동체 구축과 사회적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은 물론이고 공동체적 가치와 문화, 민주적 시민의식 등에 관한 역량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교육은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이라는 세 가지 유형에 입각해 실천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개념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4-1〉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개념

구 분	내용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 키우기에 나서는 것 - 재능기부(학부모, 주민), 협력(교육협동조합 등), 의사결정 참여(교육협의체 등)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지역사회가 가진 교육자원과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 교육자원과 인프라 발굴, 교육자원과 인프라간 네트워크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시민)이 되는 것	지역아이들을 그 지역의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 - 지역사회공동체적 가치와 문화, 민주적 시민의식 등에 대한 역량의 강화

자료: 서용선 외(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정립과 정책방향 수립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pp.68-71.

2.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

성공적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에는 주민과 활동가, 교사, 농민회 등의 지역주체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각성된’ 주체들의 공동체운동에서의 역할이다.

이는 흥성의 풀무공동체 등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풀기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사자의 참여이며, 지역과제에 대한 주체적인 학습활동, 즉 자기교육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주민들의 주체적 역량은 주민들을 지역발전의 주체로 형성(empowerment)하게 된다. 주민들은 지역 과제를 주민의 자기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의 대안을 마련하거나 부조리적 상황에 대항하기도 하였다(양병찬, 2009 : 414).

홍동마을 햇살배움터네트워크나 마실이 학교, 밝맑도서관, 우리마을 발표회 등에서는 주민 스스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도 자율적으로 한다. 이러한 마을교육활동에서는 마을주민들이 교육대상자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강사로 나서는 주민이 주민에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주체가 된다.

송악마을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마을주민이다. 솔향글누리도서관에는 마을주민이 사서로 참여하고, 마을교사 아카데미를 통해 마을주민이 교사역할을 하며, 마을언니들에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학습이 이루어진다.

참여와 학습으로 성장한 주민의 역량은 마을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마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주체들 간의 공동체적 관계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어야 할 대상으로서 마을이 아니라 마을을 만드는 주체를 형성하는 일이다(이호, 2006; 50).

두 사례 마을을 통해서 보면,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학교’, ‘주민’ 이 주도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주민을 주체로 성장시키며, 마을의 교육과 공동체문화가 작동하게 만드는 마을교육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3.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간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논의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사례에서는 ‘마을카페’ 등 마을내 교육공동체의 주체들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

스럽게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사례지역인 흥동마을에서는 ‘마을카페 뜰’, ‘풀무학교생협 작은가게’, 송악마을에서는 ‘마을 카페 놀다가게’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마을의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다음으로, 교육활동의 장소로서 공간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자체가 ‘학교 밖’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공간확보를 하지 못하면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다하더라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마을교육 장소로서의 공간은 도서관 및 커뮤니티센터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례지역인 흥동마을에서는 ‘밖밖도서관’, ‘환경농업교육관’ 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송악마을에서는 ‘솔향글누리 도서관’, ‘송악반딧불이지역이동센터’가 마을교육활동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활동의 장으로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가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공간을 바라보면 전통적인 학교와 같이 제한적 장소를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적, 사회적공간이 모두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시설과 장소의 개념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며 공간을 재명명하면서 재창조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그 공간은 이전과 다른 활동과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낸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사회적 공간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주민 교육이 마을 안 지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가 마을축제나 사업을 통해서 다른 공간들을 사용하게 된다. 한 발 더 나아가 마을 내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마을인근 또는 외부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마을 외부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들의 학습공간으로 마을 안에서 마을 밖 인근까지 공간을 새롭게 창조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 주민 ‘생활의 장’이며 주민들이 만나 마을의 교육자원을 발견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가능케 한다(김중선·이희수, 2015).

흥동마을 학생들은 마실이학교나 햇살배움터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마을내 소재하고 있는 9개 단체들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송학마을 학생들은 학부모 및 교사들과 놀이판을 펼치는 마을골목길과 천렵을 하는 마을하천을 교육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4.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마을주민들을 위한 좋은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은 마을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접근에서 시작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양한 마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마을교육프로그램은 개별주민의 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여,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을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을봉사, 체험학습, 마을발표회 등과 같은 마을행사로 활동을 확장시켜 간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주민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게 하고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새롭게 창조해 간다.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은 학습활동이며, 활동이 확장됨으로써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다양한 주제로 학습해 가는 학습과 활동의 선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생활의 장이며 주민 스스로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마을자원을 공유 활용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심점이라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주인을 키워 내고 주민을 발견하고 주민들 간의 뒤섞임을 만들어내며 마을공동체를 작동시키는 동력이 된다. 마을은 마을교육공동체 경험을 통해 마을을 움직이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마을력(마을 역량)을 만들어 내는 가능성의 보고다(김종선,이희수, 2015).

홍동마을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은 학생들은 밝맑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여, 햇살배움터 네트워크와 청소년 마실이학교를 통해 마을내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경험, 마을발표회 참석,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 생각실천 창작소를 통해 자신들의 꿈에 대한 실천을 시도할 수 있다.

송악마을에서는 학생들은 솔향글누리도서관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캠프를 통해 꿈을 키우고, 마을공정여행과 송악마을 예술제에 참여하면서 마을에서의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게된다.

학부모들은 마을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마을교사로 성장하게 되고, 교육프로그램에서 마을사업으로까지 마을활동이 확장된다. 주민이 성장하고 사회적 관계망과 마을활동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5. 마을교육공동체의 네트워크

지역사회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Henderson과 Mapp(2002)은 지역사회가 학교시설개선 학교장 및 교사의 질 향상, 높은 수준의 학습프로그램 제공, 교수 및 교육과정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료 제공, 방과 후 학교를 위한 재정 지원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향식·최은수(2009)는 학교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장기간 지속하는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 간 복합적인 파트너십 활동들이 결합될 때 학교평생교육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병찬(2003)은 학교는 인근의 공원이나 도서관, 청소년센터, 문화원 그 외의 각종 사회시설이나 자연환경, 문화유산의 인적, 물적, 공간,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완결된 마을교육공동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하나의 섬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학교를 지역의 섬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과 진학을 목표로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기인한다. (최돈민, 2013).

완결된 형태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직은 구축하기에도 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한 마을에 여러조직이 있고, 그 조직간 다른 영역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들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각 조직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내 여러 조직들의 관계망이 형성되면 그 마을의 교육생태계 또한 발전할 수 있다(박경민, 2015:72).

사례지역인 흥동마을과 학교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풀무학교의 지역과의 협력은 지역전체를 하나의 마을교육공동체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인 풀무학교의 교육이념과 정신이 지역으로 확산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공립학교는 지역과는 연계하지 않고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흥동지역에서는 공립학교의 지역화에 힘쓰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은 흥동지역 ‘범교과교육과정연구회’의 활동을 기획하였다. 2003년 이후 유기농오리쌀을 급식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흥동초등학교와 흥동중학교 학생들에게 환경농업교육관 체험프

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지역화교육프로그램으로 생태친화적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되었다.

2006년 연구회는 흥성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역 방과후 학교사업을 제안 받아 예산지원을 받고 7월부터 월1회의 방과후학교 ‘햇살배움터’를 운영하였다. 또한 농사체험을 공동실천하며, 흥동거리축제를 개최하였다.

2008년에는 흥동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역의 어른들과 교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전개하고자 고민하던 중 삼성고른기회장재단(현,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역교육네트워크’ 사업에 공모하여 ‘햇살배움터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흥동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롯한 공교육기관 5개와 논배미, 원예조합가꿈, 갯골유기농협동조합 등 지역단체 11개가 연계하여 교육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마을이 함께 키우는 교육공동체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양병찬, 2016):61-64).

송악마을은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송악동네사람들, 송악교회, 아빠모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농어촌희망재단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다.

제2절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제

1.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말하는 마을은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된다. 학교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이 양자가 교류하고 함께 변화한다. ‘학교가 마을이다’ 거나 ‘학교밖 학교’ 라는 말이 그런 차원의 의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반자치의 대상인 마을과 교육자치의 대상인 학교가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갖출 때 비로소 마을교육공동체가 꽃피울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를 실현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충남교육상생협력기획단’ 을 구성·운영해 왔다. 5차례의 기획단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비전과 추진전략, 실행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19개 과제(24개 세부사업)를 발굴하고, 충청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재원을 공동부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으로 마을과 교육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마을교육공동체만들기 업무협약식을 맺으면서(2016.10.12.) 그 출발을 알렸다.



인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2일 '충남형 마을교육 공동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 마을교육 공동체 만들기 ‘맞손’

교육·일반자치 상생협력 협약 실천사업 올 151억 공동투자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만들기에 손을 맞잡았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형 마을교육 공동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상생과 협력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공유·활용하고 학교 내 문화·체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할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미래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육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통학로 확보 등을 추진하고, 인성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생 건강 증진을 협조하고 재난과 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행복한 학교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은 실천사업

으로 19개 전라과제와 24개 세부사업에 올래 151억 원, 2017년 158억 원, 2018년 143억 원을 공동투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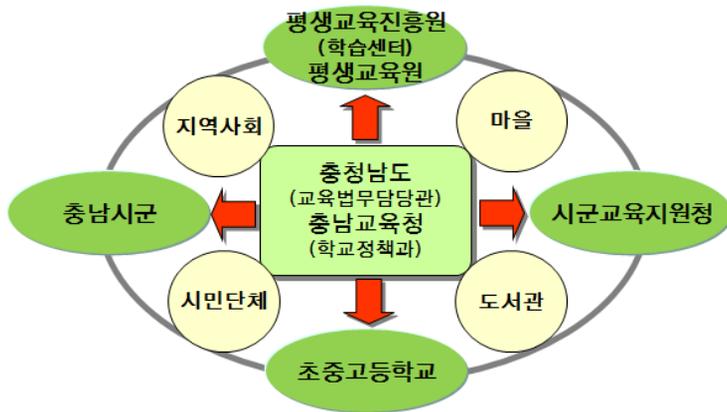
24개 세부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의 복합화,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활성화, 초·중·고 학생의 민주시민 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교육을 등이다.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와 인터넷 청정 교육 환경 조성, 학교시설 디자인 컨설팅, 연수기관 협력, 도서관 연계 운영 시스템 구축,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운영 등도 진행된다.

내포=명창호 기자 mnews@...
10.10.10.10.10

(그림 4-1) 충남도-교육청간 마을교육공동체 공동추진 업무협약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교육감의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한 협력체결은 분명히 그 의미가 크지만, 협약체결만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주 체	역 할
충청남도	정책수립, 교육재정확보 및 지원, 성과분석, 평가
충남교육청	교육정책수립, 교육재정 지원, 성과분석, 평가
충남 시군	교육경비 확보 및 지원, 협력사업 수행, 계획수립
평생교육진흥원/교육원	충남도, 시군, 교육청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평가
지역사회(마을 등)	프로그램 실행,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충청남도는 교육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충남시군의 교육담당분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지역사회(마을), 충남도교육청은 학교정책과(학교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충남시군교육지원청, 충남평생교육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학부모 등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들과 구성원들이 24개 사업수행을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해가는 것이 요구된다.

2.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

1) 충청남도 교육협력 조례제정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교육공동체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행재정의 협력을 위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사업 및 충청남도교육발전의 방향 및 정책제안을 위해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교육여건 개선, 인력양성 및 교육협력을 위한 ‘충청남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발전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이 유사중복되고, 도청과 교육청간의 교육협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과 교육환경개선, 창의인재 양성, 공교육내실화 등을 통합한 가칭 “충청남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에 교육에 대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와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교육재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다.

〈표 4-2〉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 (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해 필요사항,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 통한 공교육 내실화, 인재양성기반
- (협의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심의하기 위해 교육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둔.
 - 교육정책협의회 : 교육비전입금, 경기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경기도교육감과 도지사 협의사항,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사업, 우수인재 육성 및 창의력 양성사업,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복지 증진사업,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 실무협의회 : 교육정책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선정과 의견조정 등
- (교육재정지원) 예산편성협의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 규모 통지 및 전출
- (교육협력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 교육협력관 상호파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교육협력 및 지원조례,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혁신교육협력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 시군에서도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교육협력센터 설치/지정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3〉 서울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교육지원청, 영등포구 관할구역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 (적용범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
- (주요내용)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보조금의 지원,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교육협력관 위촉

〈표 4-4〉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목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시장의 책무) 안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지원 책무
- (교육센터 설치 및 사업)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기획 및 보급, 교육관련 사업 평가 및 컨설팅,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운영,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주요내용) 운영비 지원, 공무원 파견, 운영위원회 구성, 재능기부 봉사자 운영,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2) 충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의 제정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성이 대두되나, 아직까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경우는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2015.11.4.)” 를 제정·운용중에 있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친화적 마을교육공동 조성”에 관

한 조례(2015.5.15.)”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5.20.)” 를 제정·운용중에 있다.³¹⁾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2016.6.30.)” 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학교다사업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제정 운용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는 아니지만, 마을공동체만들기(활성화)지원조례는 충청남도에도 공주시, 보령시, 천안시 등의 자치단체들이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내용상 마을만들기를 위한 교육자원 발굴교육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를 참고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에는 충남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실태 조사, 사업자 선정, 평가, 연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1) 경기도, 광주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조례 원문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표 4-5〉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장	조항	내용
제1장	제1조(목적)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정의)	조례 내 용어 정리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원칙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꿈의학교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제5조(마을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무)	마을교육공동체 주체의 권리와 책무
제2장	제6조(기본계획)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 및 주민의견 수렴 관련
	제7조(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제8조(사업)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9조(사업자 선정 등)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방법
	제10조(성과평가 등)	경기꿈의학교 사업 성과평가 및 선정 취소
	제11조(연수 등)	사업자 및 관계자 연수
제3장	제12조(지원기본계획)	교육협동조합지원기본계획 수립
	제13조(실태조사)	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제14조(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	추진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 내용
	제15조(지원)	교육협동조합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제4장	제16조(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교육자원봉사활동 범위
	제17조(지원계획)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18조(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제19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
	제20조(지원)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21조(시행규칙)	교육규칙으로 정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6.10.20접속

3.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및 강화

1) 광역자치단체 행정조직 개편

광역자치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의 행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협력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이 수행하고 있다. 주로 교육협력과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업무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고, 교육협력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지역인재육성, 평생교육, 도서관업무 등이 중시되고, 충남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충남도에서는 교육협력, 인재육성, 도서관업무, 공무원역량강화교

육 등의 업무를 한데 묶어 ‘교육협력과’를 기획조정실에 설치함으로써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도청내에 교육협력국을 설치하고 교육정책과, 교육협력과, 도서관정책과 등 3개과에서 평생학습, 교육협력, 도서관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인재개발정책관을 두고 공무원교육, 인재채용, 교육협력, 평생교육, 도민참여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4-6〉 경기도 교육협력국 수행업무

- 교육정책과 :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G-MOOC(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교육관련 경비 보조, 평생학습, 도추진 교육사업,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일자리 연계형 교육사항 등
- 교육협력과 : 대학유치, 외국인 유학생유치/지원, 대학과의 협력, 학교교육활성화지원, 자유학기제, 학생진로교육체험전 제공, 외국인학교, 대학학자금 이자 지원 등
- 도서관정책과 : 도서관 정책,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활성화,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정책연구 및 교육, 도서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2) 기초자치단체 행정조직 강화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재원확보, 교육자치 및 일반자치간의 협력 등에 초점을 둔다면,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구체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교육협력 관련 행정조직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과외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및 평생교육관련 업무는 시급 자치단체는 구분되어 있고, 대부분의 군급 자치단체는 평생교육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사무와 관련한 책무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주민들의 관심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교육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교육지원담당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상황³²⁾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존의 교육협력관련 부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단순히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소극적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발전연구, 교육복지증진, 민관학협력 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도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조례(2015.8)”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보다 주도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4-7〉 경기도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 (목적)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증진, 우수인재 육성 등, 안산시 교육발전 도모
- (시장의 책무) 교육발전지원정책 수립/시행 노력, 정보제공, 교육예산제공 등
-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지원정책 연구제안,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증진, 교육경비 보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력, 기타 교육발전 사항
- (교육경비보조) 보조기준액, 보조사업 범위 등

3) 교육협력관의 상호파견제 도입

교육협력관의 기능은 자치단체마다 부여하고 있으나, 교육청 내에서는 ①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업무사업의 조사기획, ②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의 집행과 지도·감독,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③교육행정협의회 운영, ④산하기관(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 업무 지원, ⑤의회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파견지에서는 ①교육지원업무 등에 대한 사도지사 보좌, ②교육지원사업계획의 수립과 자문, ③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④교육관련 외부기관(교육인적자원부, 대학 등)과 상호연계·조정, ⑤교육업무와 관련된 의회업무 지원 및 지방의회 출석 답변, ⑥간부회의 참석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⑦교육지원팀과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교육지원업무를 사실상 지휘한다.

교육협력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2003년), 부산시(2004년), 서울시(2005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 의하면, 동 제도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교육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비법정전입금이 확충 등의 현안 대응에 유용하며, 경기도와 서울시는 교육협력 관련 조직의 확대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하봉운(2005).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조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7권 1호.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충청남도와의 협력을 위해 교육협력관을 파견하고 있으나, 향후 충남도청에서도 충청남도교육청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청의 교육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협력관 상호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 교육협력 조례 제정시 교육협력관 상호파견제도를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기도 교육재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에 교육협력관의 상호 파견제를 규정하고 있다.

4. 지방교육을 위한 협의회 운영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양 기관의 협력은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 중에 있고, 주요업무는 교육여건 개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시설 개방, 우수인재육성,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조례와 함께 지금까지 충남도청과 교육청간의 교육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와 교육청간의 일반자치와 교육상생협력을 위한 협약(2016.10.12.)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협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회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³³⁾ 첫째, 교육감과 도지사의 교육협력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행정기관은 교육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교육감의 적극적인 태도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회의석상에서 주요 안건을 직접 설명하고, 교육협력의 필요성을 수시로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회의 후에도 자치단체장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해야 한다.

셋째, 정책 안건의 발굴과 실무협의회 내지 사전 협의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안이 교육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협의회를 기파하게 만드

33) 이일용(2011).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문제연구. 제29권 2호. 71-72.

는 요인이 된다. 교육청에서는 협의회를 재정지원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정책적인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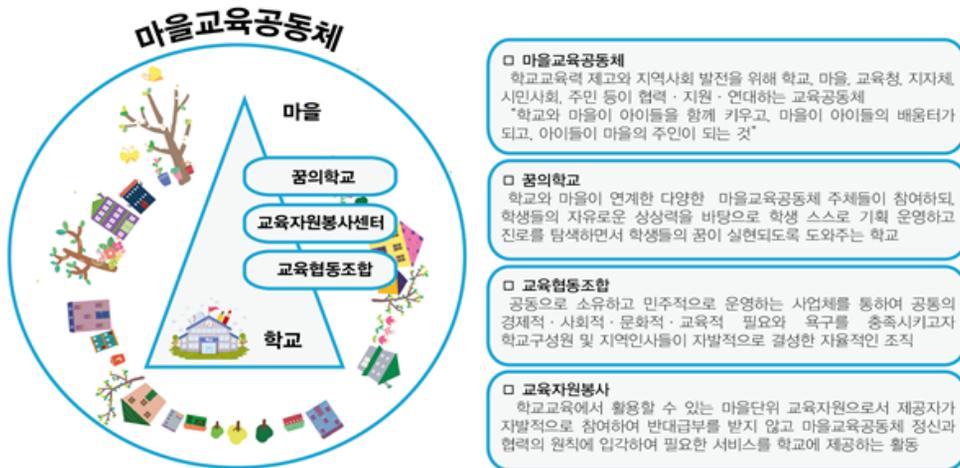
넷째, 교육정책 자문기구의 설치 및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활발하게 이양됨에 따라 지역의 교육정책은 지역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이에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지역의 정책을 연구,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5. 충청남도-교육청 공동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가 학문적,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교육공동체활동은 이미 여러 마을에서 진행되어 왔다.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운동, 작은학교 살리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와 교육의 역할이 증대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가 갖는 생소함으로 인해 교육주체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정립과 실천사례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내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라고 부를만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목적, 주체, 공간, 활동내용, 네트워크 등에서 워낙 다양하게 실천되다보니 개별사례들로는 존재하지만, 체계화하는데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사례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연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직접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별사례들에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마을주민들, 마을공동체 스스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정리 및 체계화를 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정리(경기도)

예를 들면, 충청남도과 교육청에서는 충청남도 차원의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정립 및 실천 사례의 체계화, 교육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방안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은 첫째, 물리적인 마을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마을교육공동체활동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기본계획은 관이 주도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민/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우선으로 한다. 셋째, 마을과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학생 스스로 채워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여건분석, 비전설정, 과제 및 전략,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치방안, 도민/학생 인식조사, 마을교육활동을 위한 자원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마을교육 및 도민학습방안, 사업성과 및 평가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6. 학교와 마을의 교육연계 및 교류활성화

1) 학교가 주도하는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학교와 마을이다. 이중 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아이들이 마을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거산초등학교나 흥동중학교와 같이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 혹은 공동체교육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 마을교사를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지역 활동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학교공간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만으로 기능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및 동아리활동,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가 만들어서 마을에 제공할 것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러한 학교공간에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학교나 마을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발굴하고 동아리를 만들어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개설할 수 있다. 송악마을과 같이 마을내 초중학교 모든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장터, 마을예술제 등도 학교공간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

〈표 4-8〉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예시

구 분	주요프로그램
서울시	(강북구)지역협력 방과후 학교, 마을배움터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성북구)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1동1교, 마을교사 역량강화 마을에서 길을 찾다. 꿈틀꿈틀프로젝트 방과후학교에서 방과후 마을로
인천시	(남구)남구 온마을학교 운영지원
경기도	(오산시)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지원 (의정부시)꿈이룸 배움터, 마을교육공동체구축
전남도	(영광군)무지개학교네트워크, 학부모네트워크 구축
전북도	(남원시)남원고을 교육공동체만들기,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강원도	(태백)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한밤 마을교육공동에 운영
충남도	(5개지구예정)마을교육공동체사업

이제 학교는 마을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통합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힘쓰고 마을은 교육적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에서는 꼼꼼한 기획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주체발굴 및 육성지원

마을의 교육력이란 마을 전체주민이 교육적 필요를 인식하고, 교육적 실천을 위하여 참여와 희생을 공유하는 관계적 결속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공동체 개념을 발전시키고 마을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마을의 교육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평생교육 접근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사회적 배움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와 마을의 연대를 강화하는 접근이기도 하다(서용선 외, 2015 : 247-248).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주체는 사람이다. 이 주체는 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마을지도자, 종교인,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회적경제조직 등 마을내 조직 활동가일 수 있다. 이들은 교육에 대해 그리고 마을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요구를 발굴해 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학교와 마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흥동마을의 ‘마실이 학교’ 와 같은 마을알기 프로그램의 개설, 송악마을의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과 같이 마을에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모임의 결성을 통해 마을 주체발굴 및 육성의 장을 지원하는 시책이 요구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주체발굴 및 육성은 성급한 홍보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학교와 마을간 파트너십 구축지원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하나로 융합되고, 학생과 마을주민이 만나는 구조를 의미한다. 학교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장소가 아닌 마을과 함께 숨쉬는 마을, 공동체형성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만들어 어른과 아이,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을의 과제와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을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학교공간을 학생과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홍동마을의 햇살배움터네트워크 및 홍동중학교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과 같이 학생들이 마을내 다양한 기관에서 배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송학마을의 솔향누리도서관과 같이 학교도서관이 학생과 마을주민의 공동이용 공간으로 활용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시책들을 독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마을과 학교간 작은사업 추진지원

충남도내 마을과 학교간 교류경험이 없는 곳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단계부터 마을과 학교간 일정 수준 이상의 교류나 파트너십을 요구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과 학교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송악마을의 경우도 그동안 어머니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학교와의 교류를 논의를 통해 아버지들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작은 사례가 발전하여 학교와 마을간 교류를 주도하는 모임체로 자리잡은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경험이 일천한 마을의 경우는 이와 같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작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7.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와 협력방안 모색

충청남도과 충남 시군에서는 주민스스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적인 장치로 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지원조례(2015.10.30.)”,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2016.9.19.)”, 예산군에서는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 활성화지원조례(2016.7.15.)”, 홍성군에서는 “홍성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2016.10.6.)”,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2016.5.11)”, 보령시에서는 “보령시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2015.12.30)” 를 각각 제정 및 운용하고 있다.

충남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설립운영중에 있고, 홍성군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아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등을 개소하는 등 시군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들이 설립중에 있다.

마을만들기(공동체)조례에서 마을만들기(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교육, 평생교육, 주민역량, 마을만들기 학습·교류 등의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어,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의 핵심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9〉 홍성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목적)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영역과 연계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 (정의)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
- (마을만들기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지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 수립
- (지원사업)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 복지증진사업,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사업,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도농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사업,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 (기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전담부서 지정, 행정지원협의회, 전문인력지원, 사업지구대상 선정,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8.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주체 역할과 역량 제안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주체는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주민(활동가), 행정가(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해야 할 각 주체별 역할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외에도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시책으로 도입하고,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표 4-10〉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별 역할과 역량

구분	역할	역량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마을의 학습자원 발굴 - 학부모와 협력관계 유지 - 지역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연계 협력 관계 형성 및 유지 - 지역교육공동체 활동 참여 -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및 철학에 대한 이해 -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능력 - 마을학습자원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능력 - 마을 특성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이해 - 마을교육공동체활동 참여 의지 - 마을교육공동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 지역사회와 네트워킹 능력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참여 -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지역 내 학습자원의 활용 - 자녀의 마을교육공동체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격려 -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과 철학에 대한 이해 - 학교의 조직과 문화의 특성에 대한 지식 - 학교 교원과 소통하는 능력 - 자녀와 의사소통 능력 - 자녀의 학습지원 능력 - 자녀교육에 도움 되는 마을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이해와 활용 -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 지역사회 기관 및 구성원과 네트워킹 능력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참여 - 지역사회 봉사 - 지역 내 학습자원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과 철학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 지역사회의 봉사 수요에 대한 지식 - 자신의 학습필요에 맞게 지역학습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능력 - 지역사회구성원과 소통하는 능력
마을주민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참여 - 지역사회 봉사 - 지역학습자원의 발굴과 연계 - 마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학교 운영에 참여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과 철학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이해 - 학교의 조직과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 - 학교 교원과 소통하는 능력 -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 지역사회 기관 및 구성원과 네트워킹 능력
행정가 (자치단체,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연계 협력 관계 형성 및 유지 -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과 철학에 대한 이해 -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 지역사회 기관 및 구성원과 네트워킹 능력 - 학교의 조직과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최근 학교가 지역사회의 주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을 함께 기르려는 마을주도적 공동체적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연구는 학교는 마을이고 마을이 학교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야 교육의 본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이름을 가진 지역교육공동체 사업들이 전개되어 왔으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의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추진해 왔다. 도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인수위에서 제시된 마을교육공동체사업³⁴⁾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큰 그림이었으나,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 출범으로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교육력 개조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교육공동체로 정의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활동으로 꿈의 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협동조합 등을 제시하고 있어 당초보다 다소 축소된 형태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서용선 외, 2015).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풀무지역교육공동체는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58년 홍동면에 개교한 풀무학교는 ‘지역이 학교이고 학교가 지역’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출발에서부터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34) 학교정규교육 과정에서 마을교육과정 실시, 마을교육공동체 학교연계와 학교협동조합 구축, 마을에서 실시하는 교육 활동지원, 과정중심마을학교추진 실시,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운영, 혁신교육지구를 장기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전환, 연대와 봉사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자원봉사센터운영 등(서용선 외, 2015)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마을공동체들이 여기 저기 형성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생적 마을교육공동체와 더불어 충남도청과 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목적을 둔 ‘행복공감학교’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이러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정책적인 시도가 향후에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만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가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향후 바람직하게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져야 하는지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충남의 대표적인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두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목적, 주체, 공간, 활동, 네트워크라는 분석의 틀을 만들고 이를 준거로 사례지역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이 학교요, 학교가 마을이라는 이념 아래 학교와 마을이 온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학교’, ‘주민’, ‘코디네이터’가 주도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마을내 공동체의 리더와 활동가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간은 전통적인 학교와 같이 제한적 장소를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적, 사회적공간이 모두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시설과 장소의 개념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은 마을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학습동아리 참여, 마을발표회 참여, 마을내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경험, 마을협동조합 조합원 참여, 마을내에서의 배움과 나눔의 실천, 공정여행 참여, 마을문화예술제참여 등 마을에서 행해지는 주민교육과 마을의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의 네트워크는 학교와 마을, 아이들과 마을주민, 단체, 교육활동간 지속적이고 자율적이며 느슨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느슨한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보다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소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구된다.

제2절 정책제언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닌 주민교육과 역량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을만들기 정책이 주민교육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과 충남의 각 시군도 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대안 모색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충남지역 마을교육공동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충남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도청이나 충남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서는 활동주체(학교주도, 마을주도, 중간지원조직주도),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 주체, 공간, 활동, 네트워크에 대한 보다 정교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일반자치의 대상인 마을과 교육자치의 대상인 학교가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충남도 차원에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행·재정적 협력을 위한 교육협력조례, 충남도와 시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및 강화가 요구된다. 우선 충청남도에서는 ‘(가칭)교육협력’ 과와 같은 과 단위 부서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존 교육협력관련 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교육을 위한 협의회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협력,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시책들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회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충남도와 도교육청간에 교육협력관을 상호파견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교육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비법정전입금 확충 등의 업무를 협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협력관을 상호파견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충남도와 도교육청 공동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청남도과 도교육청에서는 충남도 차원의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정립 및 실천사례의 체계화, 교육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교는 마을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운영, 공동체교육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 마을은 교육적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교교사, 마을지도자, 종교인,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회적경제조직 등 마을내 활동가들과 같은 마을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장을 지원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열 번째, 학교와 마을간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마을의 과제와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을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 즉,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모임구성, 학교공간을 학생과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열 한번째, 마을과 학교간 작은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과 학교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된다.

열 두번째,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충청남도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시군의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핵심사업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주체 역할과 역량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주민(활동가), 행정가(자치단체 및 교육청) 이 각각의 역할과 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갯골생태농업연구소·마실이학교(2010). 우리 마을입니다. 갯골문고 2. 그물코.
- 강영택(2012).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연구: 홍성군 홍동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4.
- 강윤정 외(2015). “마을이 성장시키는 학교,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사회적경제의 발견. 포도밭.
-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2015).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
- 김성길(2004). 배움공동체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7(2).
- 김영정(2008). 지역거버넌스와 공동체 운동 :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만들기’운동의 사례분석. 지역사회학. 9(2).
- 김용련(2015). 지역사회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33(2)
- 김종선·이희수(2014). ‘마을학교’를 찾아가는 개념지도 만들기. 평생학습연구의 새로운 쟁점과 연구문제 탐색. 2014년 한국평생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한국평생교육학회. 273.
- 김종선·이희수(2015). 개념지도에 근거한 마을학교 정체성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Vol21. No2.
- 김춘진(2010).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 소규모 공동체학교. 2010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김향식·최은수. 2009. 지역사회학교의 평생교육실천적 함의 : 지역사회 학교의 평생교육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제5권 제1호.
- 논배미(2009). 논생태교육프로젝트 ‘논생물 친구들’
- 농림수산식품부(2012).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마을교육연구소(2012).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한티재.
- 박경민(2015).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 노원구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계식(2007).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소규모학교 발전 가능성 모색: 충남 아산 거산초등학교 폐교위기 극복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 박상욱(2010). 지역사회와 학습의 관계 탐색 : 지역사회 형성 및 발전과정으로서의 학습활동. 평생교육학연구. 16(2).

- 박원순(2010). 마을이 학교다 : 함께 돌보고 배우는 교육공동체. 서울:우리교육검동소.
- 박제명(2014).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에 관한 사례연구: 하늬교육마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백형충(2009). 학교와 지역요인 및 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이 학교평생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 서용선 외(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정립과 정책방향 수립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서용선 외(201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 살림터.
- 서용선(2014). 꿈의 학교 정책입안 배경과 과정. 참조작성.
-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2016). 2016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지원계획(안).
- 서울시교육청(2015). 2015학년도 마을결합형학교 운영기본계획.
- 성기선(2014). 경기형'꿈의 학교'교육과정 개발연구. 경기도교육청.
- 손명(2016). 마을과 학교가 함께 키우는 광주마을교육공동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65권 754호를 참조하여 작성.
- 양병찬(2008). 농촌학교와 지역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충남 홍성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3).
- 양병찬(2009). 농촌지역 교육공동체의 주체형성 과정 : '청원교육문화연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Vol.15. No.4.
- 양병찬(2014). 자자체마을만들기사업에서'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 :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 2(1).
- 양병찬(2015a). 농촌의 교육공동체운동 : 마을이 살아나는 교육·교육이 힘이 되는 마을. 서울:교육아카데미.
- 양병찬(2015b). 마을만들기사업과 평생교육의 협동가능성 탐색 : 시흥시 '학습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1(3).
- 양병찬(2016). 농촌의 교육공동체운동 : 마을이 살아나는 교육·교육에 힘이되는 마을. 교육아카데미.
- 윤여각 외(2013). "농촌교육공동체와 지역교육력 강화: 충남교육연구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평생교육 사례와 과제. 에피스테메.
- 윤여각 외(2013). 지역평생교육. 에피스테메.
- 이승준 외(2015). 마을교육공동체 연수체계 개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윤정(2009). 자생주민조직의 학습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 충남 당진군 송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진(2015). 의사소통행위 관점에서 본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주민공동체학습의 특성.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대학원.
- 이은경(2015). 지역사회 향해 활짝 열린교문, 마국커뮤니티스쿨. 희망제작소.
- 이일용(2011).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문제연구. 제29권 2호. 71-72.
- 이태문(2014). 대안학교가 귀촌형 공동체마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논문집. 163)
- 정현경(2012). 학습공동체운영사례연구: 반딧불이문화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대학원.
- 조성희(2009). 충남교육연구소의 농촌교육공동체 실천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대학원.
- 최돈민(2013).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방안. 교육종합연구. 11(4).
- 하봉운(2005).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조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7권 1호.
- 홍순명(2009). 흥동 밝맑도서관 바탕과 과제.

부 록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4.] [경기도조례 제5078호, 2015.11.4., 제정]

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031-820-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기꿈의학교·교육협동조합·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생활환경이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경기꿈의학교”란 경기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 소외극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7.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8.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하여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2. 학교는 혁신교육을 실천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주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경기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한다.
4. 경기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가능하도록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5.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은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함에 있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교육협동조합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계획” 을 마련하여 학부모 및 마을주민의 교육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무) ① 마을교육공동체 각 주체는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

- ②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경기꿈의학교 지원

제6조(기본 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 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꿈의학교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꿈의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경기꿈의학교 사업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기꿈의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범위
 4. 경기꿈의학교와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5. 그 밖에 경기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경기꿈의학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경기꿈의학교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경기꿈의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4. 그 밖의 경기꿈의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 전문직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교육공무원
4. 그 밖에 경기꿈의학교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활동가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비용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꿈의학교 운영
 2. 학교 밖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꿈의학교 운영
 3.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한 경기꿈의학교 지원
- ②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자 선정 등) ① 경기꿈의학교 사업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으로 하며,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원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정한다.
-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성과평가 시행 전까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사업자 선정 시 전년도 우수사업인증을 받은 경기꿈의학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자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보고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체하였을 때

제11조(연수 등)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와 발표회, 연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협동조합 지원

제12조(지원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교육협동조합 지원기본계획” (이하 “지원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4.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협동조합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기본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협동조합 정책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자문위원회) ①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이하 “추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동조합 지원사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추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활동가

⑥ 추진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추진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추진자문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비용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추진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조성사업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6조(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 분야의 업무 지원에 관한 활동
2. 교육사업의 수행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
3. 학생 교육 지원 및 상담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활동

제17조(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계획” (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2. 교육자원봉사 수요 조사에 필요한 사항
 3. 교육자원봉사자 모집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자원봉사자 또는 교육자원봉사센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자원봉사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교육자원봉사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1. 경기도내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2. 교육자원봉사자 중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활동가
-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센터장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3.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대책 관리
4. 교육자원봉사자 발굴과 양성
5. 교육자원봉사자 수요 조사와 활동 지원
6. 관할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 지원
7.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자 활동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20조(지원)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 지원
2.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안전한 환경 구축
3.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4. 지역사회 공헌과 교육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육자원봉사자 또는 센터 등에 대한 포상이 때 포상의 내용과 절차는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5. 교육자원봉사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수행 경력 및 그 공헌에 대한 인정(이 경우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함)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78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 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976호, 2016.12. 20 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혁신과), 044-320-2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세종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세종마을교육공동체는(이하“마을교육공동체“라 한다) 학교 구성원 및 마을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도 수립·시행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추진 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범위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 마을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비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자 선정 등) 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으로 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교부와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에 한정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자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보고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체하였을 때

제10조(연수 등)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시민에게 필요한 연수와 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관과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중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제976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5.15.] [광주광역시조례 제4523호, 2015.5.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인권생활교육과), 062-712-6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원칙)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학교 구성원 및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학교 구성원 및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체계
4.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5. 추진 사업 목록
6. 자원 조달 방안
7. 협력 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 교육감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 운영 및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3.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4. 마을교육 교재·프로그램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관련 매뉴얼 개발
5.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지원
3.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어린이·청소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교육공동체 기초 조사, 사업 분석 및 평가·연구
3.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교육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관련 교육·홍보
7.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523호, 2015.5.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송두범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강수현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2016-24 ·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실태분석및 활성화방안

글쓴이 · 송두범, 양병찬, 강수현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00(미래전략연구단)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74-2 03350

<http://www.cn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